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 연구

2009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정 갑 영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 연구

●●● 연구책임자

이원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이춘아 | 한밭문화마당 대표

한진영 | 한남대 강사, 관광경영학 박사

●●● 위촉연구자

정정훈 |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연구개요

1.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배경 및 목적

- 현재 전국에는 45개의 문학관이 설립되어 있고, 10여개의 문학관이 건립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임. 1990년대까지 8곳에 불과하던 문학관은 2000년대 들어 그 수가 급증하여 현재에 이르게 됨
- 문학관 수의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1995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자체의 지역이미지의 제고와 지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문학관 건립이 지자체의 중요한 추진사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문학계 내부에서도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학관 건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문학관 수의 급증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학관을 정책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함.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래 4-5년 동안 지원되었던 균특예산의 지원 적절성 여부, 향후 국고 지속 지원 필요성, 그리고 지원 규모 확대 및 축소의 필요성 등 적정한 국고 지원 자료로도 활용키 위함
-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지역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목적을 두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문학관의 실태조사와 현황분석, 그리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임

2)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학관의 운영실태, 프로그램, 주변 문화관광 자원의 현황 분석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문학관의 전수조사를 통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지역문학관 운영사례와 프로그램 제시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역문학관 현황 분석을 통한 운영 콘텐츠 우수 모델과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관리방안 제시
 - 지역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있어 정부, 지역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각각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시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인터넷과 현지답사자료를 통한 외국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학관을 직접 운영하는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지조사(09년 2월)와 자문회의를 포함한 워크숍을 활용하였음

2. 지역문화관 현황 및 활성화 장애요인

1) 지역문화관 실태조사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 2009년 2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지역문화관 실태조사는 전국 41곳의 지역문화관을 현장 방문하여 문화관 운영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2009년 지역문화관 현장방문 조사표’의 수집된 자료는 EXCEL과 SPSS 1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문화관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내용에 따라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 등이 사용되었음
- 지역문화관 운영형태는 공공운영이 24개(58.5%), 민간운영이 17개(41.5%)로 나타남. 공공운영 문화관 중 지자체 운영은 17개(41.5%), 위탁운영은 7개(17.1%), 민간운영 문화관 중 개인 운영은 6개(14.6%), 단체운영은 11개(26.8%)로 나타남
- 지역문화관 성격은 특정작가를 위한 문화관이 26개(63.4%)로 가장 많고, 기타, 지역 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화관, 창작 공간 순으로 각각 17.1%, 12.2%, 7.3%로 나타남
- 지역문화관의 설립재원 중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 받은 곳은 총 25개로 평균 7억8천5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 민간자금 12개, 기타 4개로 조사되었음
- 지역문화관의 행정현황을 살펴보면, 연 예산규모는 최소 1천5백만 원에서 최대 8억 원으로 큰 편차를 보이며, 평균 1억3천5백만 원의 규모를 보임. 직원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으로 평균 3.7명이 문화관 운영인력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정규직 수가 전혀 없는 문화관도 있었으며 평균 2.31명으로 분석되었음
- 문화관 재정수입은 31개의 지역문화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자금을 받고 있었으며, 총수입 대비 약 71.4%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것은 재정수입 부문에 있어 다중응답 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임
- 전국 대다수 문화관의 사업목적은 특정작가의 문화적 유산 및 유품보존 및 전시목적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목적의 중복성은 지니지만 기타 문학교육의 장, 문화 관광 시설로서 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문화관의 주요사업 비중은 상설전시 비중이 51.4%로 가장 높이 나타났고, 이외 문학교육, 문학체험, 기획전시가 각각 15.6%, 13.05%, 11.71% 순으로 조사되었음
- 문화관 방문객의 입장료 유무를 살펴본 결과, 입장료가 유료인 곳은 총 12개(29.3%)로 나타났으며, 유료 시 입장료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00원으로 조사되었음
- 문화관 방문객의 수는 문화관 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최소 230명에서 최대 500,000명으로 나타났고, 2008년 41개 문화관의 평균 방문객 수는 51,041명으로 분석되었음
- 지역문화관은 작가의 유품 등의 전시 기능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학제, 낭송, 강좌, 강연, 교육, 기획전시, 경연, 체험, 창작 집필실, 문학상 시상, 문학캠프, 문학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었음

2) 지역문화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

- 지역문화관들은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여 문화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관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확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조직 및 인력, 예산 및 재정, 법률, 홍보, 시설, 행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지역문화관 운영 실무자들의 고충이 나타났음. 각 부문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직 및 인력 부분에서는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직된 정책적 마인드, 성수기 때 인원부족, 학예사 및 해설사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남
 - 예산 및 재정부문은 운영비 부족,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예산확보가 일정치 않음, 지속가능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책의 어려움 등이 나타남
 - 프로그램 부문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재원확보의 문제로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인원 제한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됨
 - 법률 부문은 문화관을 지원하는 법률의 부재,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문화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이 제기됨
 - 홍보 부문은 온라인 네트워크 부재, 도로 표지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제기됨
 - 시설 부문은 세미나실 등 부속시설 부족 및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 영상자료실 미비로 교육의 어려움 등이 제기됨
 - 행정 및 관리 부문은 문화관 운영 및 관리하는데 행정적 지원 필요,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등이 제기됨

3.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 개요

1) 정책개발의 기본방향

- 지역문화관 운영활성화 정책의 정책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 고려사항: ‘문화성과 지역성’(인물, 지역 등 문화유산으로서 가능성 설정) 담보
 - 목표: 발전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관 정체성과 위상 정립’으로 압축됨. 따라서 정부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는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발전방안: 지역문화시설로서 공간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설지원근거(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력의 전문화’(관리직과 학예직의 이분화)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함

2) 지역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 및 지역문화관 건립 이행요건

- 문화관 위치의 전략적인 선택
 - 각 지역문화관의 기능 및 역할, 처해있는 환경 등에 따라 설립위치의 전략적 선택이 제기됨. 즉 지역민의 문화향유공간으로서, 그리고 문학교육의 기능 등이 요구된다면 문화관 위치는 접근성이 편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생가보존 및 추모, 창작 집필실, 그리고 문화관 광적 기능 등이 요구된다면 지역에서 중심지가 아닌 생가지나 외곽지역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 지역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화관 건립필요
 - 문화관 건립에 있어 특정작가를 위한 문화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화관 건립정책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배려와 함께 유명문인이 배출되지 않은 지역의 문화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문화관 건립에 대한 기준조건
 - 문화관 건립 기본조건을 중앙정부 예산배정 심사 시 가점과 감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화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를 위한 객관적 지침이 필요함

3) 균특예산의 지속지원과 확대 필요성

- 문화관 건립 추세분석
 - 지금까지 건립된(건립이 확정된 문화관 포함) 지역문화관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지역문화관 건립재원별, 연도별 건립현황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민간 자금	1	3	0	0	1	0	1	1	1	3	1	2	0	2	0	0	0	16
균특 예산	0	0	0	0	0	0	0	0	0	0	1	0	1	2	4	2	2	12
국고0 보조금	0	0	0	0	0	0	0	0	2	2	2	3	1	0	0	1	2	13
계	1	3	0	0	1	0	1	1	3	5	4	5	2	4	4	3	4	41

- 문학 부문의 유일한 문화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관은 시설 건립 초창기인 90년대에는 개인 또는 사단,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주도로 건립되기 시작하였음
- 그 후 2000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통한 문화관 건립이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는 균특예산 지원을 통한 문화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2005년을 끝으로 더 이상 민간 자금에 의존한 문화관 건립은 발견되지 않는 대신

일부 국고보조금 활용 문학관과 균특예산 활용 문학관 건립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최근에는 균특예산에 의존한 문학관 건립이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문학관 건립 목표의 설정

- 지역문학관을 문학 장르 부문의 문화기반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학 향수 증진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특히 문학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문학관 건립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유명 문학인의 배출 절대 수 등을 고려하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 232개(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행정구 포함) 모두에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정책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 정부의 지역개발 기조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나 4대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건립 중장기 정책의 검토 과정에서 이미 제시된 문화기반시설의 복합공간화, 생활권 단위의 문화기반시설 건립 정책의 취지 및 인구 희소 자치단체인 농어촌 지역과 인구 과밀지역인 대도시 지역이 혼재된 행정단위를 고려할 때 자치단체 총 수의 50%인 115개 내외를 중장기 건립 목표로 설정코자 함
- 이 경우, 현재 건립되어 운영 중인 45개관(41관+4관) 및 건립계획이 확정된(균특예산 배정) 13개관 등 58개관 외에 추가로 최소 57개관을 건립 목표로 설정함
- 최근의 추세로 판단하면 더 이상 순수 민간 문학관 건립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고 보조금을 통한 문학관 건립도 감소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목표치인 115개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5개 내지 6개관의 문학관을 추가로 건립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균특예산의 지속 지원과 확대 필요성

-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학관의 효용과 당위성에 근거하여 향후 균특예산의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더하여, 현재까지 매년 3-4개의 지자체에 지원하였던 균특예산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앞서 설정한 문학관 건립 목표에 도달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지역문학관의 설립재원 중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 받은 총 25개 문학관은 평균 7억8천5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기 운영 중인 문학관의 경우, 평균 2~30억원 정도의 건립비가 소요되었으며, 최근 건립된 문학관의 경우에는 3~40억원 또는 80억원까지 소요된 사례(태백산맥 문학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의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목표치 115개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개관 평균 지원금 10억원×5개소(최소)=50억원, 또는 15억원×6개소(최소)=90억 원 정도의 국고(균특예산) 예산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방안

- 문화관 활성화 정책방안은 크게 정부, 지역문화관, 한국문화관 협회의 역할별 발전방안을 기준으로 분류됨. 각 정책의 개입주체에 따라 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세 요소에 대한 현황, 문제점, 해결책, 정책개입의 주체, 중장기전략을 제시하였음
- 지역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역할주체별 정책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음

※ 지역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정책 개입 주체	중장기 전략 (5개년)		
	‘09년 (준비단계)	‘10년 (시행단계)	‘11년~‘13년 (안정 및 정착단계)
	(각종 시행계획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 운영 매뉴얼 및 지침 개발 - 리모델링 연도별 예산 조사 및 반영 계획 - 문화관 학예직 법적 근거마련 - 직영에서 위탁체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 지침 전국 지자체 배포 - 표준 조례 지침 개발 - 민간단체 위탁시행 - 사회문화예술교육공모에 문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관 리모델링 예산 반영 - 민간단체 위탁 시행 계속 - 문화관 활성화 연구 계속
문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의 도입 - 인근 문화시설 및 단체, 동아리, 문인협회 등과 지역 내,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연계 코스 개발 - 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교육프로그램 확대 - 지역교류 프로그램 확대 - 특성화 프로그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교육 및 지역교류 프로그램 계속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계속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 평가시스템 구축 - 문화관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 평가 실시 - 문화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 평가 계속 및 인센티브 제공 - 문화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계속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시범 사업 실시

- 지역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각 요소별(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문제점, 해결책, 정책개입의 주체, 중장기전략은 아래와 같음

※ 지역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각 요소별 추진 전략

요소	현황	문제점	해결책	정책개입의 주체	중장기 전략 (5개년)
시설	2009년 현재 45개 문화관 중 본 연구 에서 41개 문화관 분석 직영: 17 위탁: 7 개인: 6 단체: 11	-문화관 인지도 낮음 -문학콘텐츠 담은 설계디자인 부족 -접근성 떨어짐 -노후화 하자 보 수 증대 -관광단지내 문 화관 위상 모호	-시설설계디자인 컨설팅 -주변 경관 어우러진 예 교유지엄 지향 -인근 관광지 연계 -리모델링 지원 -체험코너 보완 -표지판 알림표식 강화 -관광단지내 문화관 시설 부각 표식 강화 -문화관정책 마인드 고양	(정부) -주요 문화기반시설로 대등한 위상정립 -지역문화기반시설로 법적 제도 적 근거 마련 -시설관리운영 매뉴얼 및 지침 시행 -표준조례 시행 및 지역조례 점 검체제 구축 -리모델링 중장기 예산수립 (문화관) -문화시설, 관광지 연계 코스 개발 (협회) -컨설팅 기능	-문화관 운영 매뉴 얼 및 지침 개발 -리모델링 연도별 예산 조사 및 반 영 계획 -컨설팅 자문단 구성 -연계 코스 개발
인력	(운영실무인력) 평균2~3명 (인력형태) 전문학예사 문학단체실무자 관리직 자원봉사자 인턴(공공근로)	-절대인력 부족 -시설관리에 시 간 소모 -기획력 떨어짐 -보조인력(인턴, 공공근로 등) 지속성 보장되 지 않음.	-관리직과 학예직의 이분 화 -문화관 전문직 양성 교 육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배치	(정부) -문화관 전문학예사 배치 기준 마련 -민간전문단체 위탁화 -문화관 위상제고 (문화관) -관리와 사업의 이분화 노력 -자체 자원봉사자 양성 (협회) -실무/봉사인력양성 교육(직접 또는 위원회 의뢰) -동일사업 지역별 네트워크 및 컨설팅	-문화관학예직 법 적 근거마련 -직영에서 위탁체 제 검토 -문화관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 발 및 시범교육
프로그램	-전시(상설, 기획), 안내 -문학강좌, 교육 -자료정리,보관, -홍보, 출판 -창작집필실 운영 -문학(축)제 -문학기행 -백일장, 낭송회 -문학콘서트 -문학국내 외 세미 나	-기획전시 예산 등의 이유로 거 의 못함 -안내 해설프로 그램 빈약 -문학콘텐츠 빈 약한 문학제, 백일장, 시낭송 회	-기획전시로 관람객 증대 -안내 및 해설프로그램 강화 -홍보 강화 -문학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문학기행, 콘서트로 문 학향수층 저변확대 -지역문인 유치위한 세미 나, 행사 기획	(정부) -문화마케팅과 문화예술교육지 원위해 위원회와 진흥원 프로 그램 지원분리 -문화관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강화 (문화관) -문학동아리, 문학단체 활성화 -인근 문화시설 및 단체와 교류 프로그램 확대 (협회) -전국문학관안내 홍보자료 개발 -프로그램 컨설팅 및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문화관 활성화 세미나 매년 개최 -문화관 평가 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의 도입 -문화관 평가시스 템 구축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 구성 -인근 문화시설 및 단체, 동아리, 문 인협회 등과 지역 내,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목 차

연구개요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지역문학관 현황 및 실태	7
제1절 지역문학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	9
1. 지역문학관의 개념	9
2. 지역문학관의 역사	10
3. 지역에서 문학관의 역할	11
제2절 우리나라 지역문학관 현황 및 실태분석	12
1. 지역문학관 현황	12
2. 지역문학관 운영실태 분석	17
3. 지역문학관 프로그램 분석	30
4. 지역문학관 문화관광자원 분석	33
5. 지역문학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	36
제3절 지역문학관 정책 및 지원 분석	38
1. 지역문학관 지원 정책 분석	38
2. 지역문학관 정책 및 지원의 문제점	40
제3장 지역문학관 현황 및 실태	43
제1절 외국의 지역문학관 운영 사례	45
1. 유럽의 문학관	45
2. 미국의 문학관	47
3. 일본의 문학관	49
제2절 외국의 지역문학관 프로그램 분석	53
제3절 외국의 지역문학관 특성과 시사점	55

제4장 지역문학관 운영 활성화 정책 개발	57
제1절 지역문학관 정책개발의 방향 및 추진체계	59
1. 문학관 정책개발의 기본방향	59
2. 문학관 정책의 추진체계	60
제2절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방안	62
1.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62
2. 문학관 설치근거법 제·개정	63
3. 문학관 운영 및 관리지원 정책	64
4.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지원	70
제3절 지역문학관 운영 콘텐츠 개발	72
2. 문학관 운영 콘텐츠 사례	73
3. 문학관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80
4. 문학관 운영 콘텐츠 관리방안	82
제4절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제언	86
1. 문학관 건립 및 시설지원 정책	86
2. 문학관 신규 사업 지원정책	91
3. 문학관 활성화 전략 방안	95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부 록	103
부록 1. 표준 조례안 예시	105
부록 2. 초등학생들의 체험 학습 길잡이	114
부록 3. 2009년 지역문학관 현황 조사표	118
부록 4. 지역문학관 현황 조사 결과표	122

표 차례

〈표 2-1〉 지역문학관현황(2009년 1월 1일 현재)	13
〈표 2-2〉 군특예산 대상 지역문학관현황	14
〈표 2-3〉 사이버 문학관 현황	16
〈표 2-4〉 조사대상 문학관	17
〈표 2-5〉 설문지 문항구성	18
〈표 2-6〉 문학관 운영형태(1)	19
〈표 2-7〉 문학관 운영형태(2)	19
〈표 2-8〉 문학관 성격	20
〈표 2-9〉 문학관 설립재원	21
〈표 2-10〉 문학관 설립재원 종류	21
〈표 2-11〉 문학관 행정현황	22
〈표 2-12〉 '08년도 문학관 재정및 총수입 대비 비중	22
〈표 2-13〉 문학관 사업목적 여부	23
〈표 2-14〉 문학관 사업목적 비중	24
〈표 2-15〉 문학관 주요사업 여부	24
〈표 2-16〉 문학관 주요사업 비중	25
〈표 2-17〉 방문객 입장료 유무	25
〈표 2-18〉 유료 시 입장료	26
〈표 2-19〉 방문객 유형	26
〈표 2-20〉 2008년 총 방문객 수	27
〈표 2-21〉 지역축제 연계 유무	27
〈표 2-22〉 지역축제 연계 시 축제명	28
〈표 2-23〉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29
〈표 2-24〉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시 프로그램명	29
〈표 2-25〉 지역문학관 운영 프로그램	31
〈표 2-26〉 지역문학관 인근 문화관광자원	34
〈표 2-27〉 지역문학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	37
〈표 2-28〉 2008년 '예술전용공간 지원' 공모신청현황	39
〈표 3-1〉 외국문학관 프로그램 사례	54
〈표 4-4〉 운영방식에 따른 문학관 현황	66
〈표 4-5〉 문학관 평가지표예시	83

〈표 4-6〉 지역문학관 건립재원별, 연도별 건립현황	86
〈표 4-7〉 '09년 문학관 사업 지원정책 현황	92
〈표 4-8〉 문학관 신규사업 지원정책 개발 예시	93
〈표 4-9〉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로드맵	95
〈표 4-10〉 지역문학관 활성화 이행체계	97
〈표 4-11〉 지역문학관 운영형태 예시	98

그림 차례

[그림 2-1] 지역문학관 전국분포도	12
[그림 2-2] 지역문학관 운영형태(1)	19
[그림 2-3] 지역문학관 운영형태(2)	20
[그림 2-4] 문학관 성격	20
[그림 2-5] 방문객 입장료 유무	25
[그림 2-6] 유료 시 입장료	26
[그림 2-7] 지역축제 연계 유무	27
[그림 2-8]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유무	29
[그림 3-1] 셰익스피어 생가1	45
[그림 3-2] 셰익스피어 생가2	45
[그림 3-3] 찰스 디킨즈 박물관	46
[그림 3-4] 박물관 전시물	46
[그림 3-5]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전시물 1	48
[그림 3-6]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전시물 2	48
[그림 3-7]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전시물 3	48
[그림 3-8]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전시물 4	48
[그림 3-4] 일본 근대문학관	50
[그림 3-5] 일본 근대문학관 전시물	50
[그림 3-6] 가나자와 근대문학관 전시관	51
[그림 4-1] 지역문화기반시설의 3대 요소	60
[그림 4-2] 문학관 활성화 정책개입의 3대 주체	60
[그림 4-3] 문학관 발전 방안 개념도	61
[그림 4-4] 지역문학관 건립재원별, 연도별 분포현황	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현재 전국에는 45개의 문학관¹⁾이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10여개의 문학관이 건립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곳에 불과하던 문학관은 2000년대 들어서 그 수가 급증하여 매년 4, 5곳의 문학관이 설립됨
- 문학관의 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역이미지의 제고와 지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문학관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추진사업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한국문학 100년이 지나면서 작고 문인에 대한 지역문학계 내부의 추모 행사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념문학관 설립 요청이 늘어남
 -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문화행정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문화시설공간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문화관련 행사 등의 개최(축제 등)를 기획하였음
 - 이러한 기획의 산물로서 지역 출신 유명문인들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더불어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문학관의 역할을 기대함
 - 더불어 중앙정부 역시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등 지역주민과 외부관광객의 요구에 새로운 형태의 시설로서 문학관 건립에 다양한 정부예산(예컨대, 군특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
- 둘째, 현대에 들어 활자매체를 이용한 문학은 더 이상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의 극복을 위해 문학을 대중들과 친근하게 만들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 문학관의 건립으로 이어짐
 - 일반대중에게 활자화된 문자로 쓰여진 문학작품은 지루하거나 고루한 것으로 여겨져, 대중은 더 이상 문학작품을 문화향유활동의 일환으로 여기지 않음
 - 시각화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일반대중에게 문학작품의 향유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문학관을 건립을 통해 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고 함
 - 이는 <한국문학관협회>에서 발간하는 『문향을 따라가다』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문학이 지닌 힘을 책과 함께 독자가 문학관을 찾아가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얻기를 원하고 있음
 - 이는 김종우(2008, 89)가 논한 ‘문학의 대중화’ 경향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대중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음

1)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개발 연구’를 시작한 시점인 2009년 1월 전국의 문학관은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40개의 문학관과 등록하지 않은 문학관 5개소가 있음

- 문학관 수의 급증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학관을 정책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원에서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됨
 - 특히 중앙정부 입장에서 현재까지 지원된 국고에 대한 적절성의 여부와 더불어 앞으로 국고지원 지속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확대·축소 필요성 등 향후 적정한 국고 지원 자료로 활용
 - 이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문학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역시 문학관 운영 초기단계로 인력·프로그램·콘텐츠 부족 등의 부족에 따른 운영 미숙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운영활성화 정책으로서 활용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역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목적을 두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문학관의 실태 조사와 현황분석, 지역문학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금까지 정부예산²⁾의 도움으로 건립된(2009년 1월 현재 25개관 지원, 10개관 개관) 문학관의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가능케 하고, 더불어 향후 문학관 건립에 있어 국고지원 지속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확대·축소 필요성 등 향후 적정한 국고 지원 자료로 활용될 것임
 - 이와 더불어 문학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운영단체, 민간단체 등 문학관 운영자들에게는 문학관 운영 초기단계에서 겪었던 운영의 미숙함, 인력의 부족문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학관의 운영실태, 프로그램, 주변 문화관광 자원의 현황 분석
 -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학관의 전수조사를 통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균특예산)

- 외국의 지역문학관 운영사례와 프로그램 제시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역문학관 현황 분석을 통한 운영 콘텐츠 우수 모델과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관리방안 제시
- 지역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있어 정부, 지역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각각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국·내외 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례조사, 문학관의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조사(2009년 2월 1일~28일)와 자문회의를 포함한 워크숍³⁾을 활용하였음
- 문헌 조사: 지금까지 연구된 문학관 관련 논문 및 자료를 통해 문학관 현황자료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국·내외 문헌과 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사례조사: <한국문학관협회>와 각 지역 문인협회가 해외우수문학관을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와 기행문을 통해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외국 문학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음
- 문학관 실무자 면접 및 자문회의: 전국의 문학관 전수조사를 통해 문학관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청취⁴⁾, 문학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 의견을 수렴하였음
 - 현재까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문학관 41곳의 현지조사를 통해 문학관 현황,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 활성화 방안을 청취하고 이를 보고서에 적극 반영함
 - 문학관 실무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2009년 지역문학관 현장방문 조사표’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EXCEL과 SPSS 13.0 통계패키지 방식으로 통계처리 되어 지역문학관 현황파악에 이용됨
 - 본 보고서의 다양한 정책제안은 지역문학관을 관리·운영하는 문학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반영하였고, 또한 2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민·관의 의견을 조율한 후 기술되었음

³⁾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개발 연구’ 현장워크숍은 두 차례 개최되었음

① 1차 워크숍: 2009년 3월 7일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개최한 워크숍은 안동지역 국어과 담당 초·중·고등학교 교사, 안동문인협회 관계자, 지역축제조직위원회의 담당자가 발제를 하여 이육사문학관이 그동안 지역의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이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음

② 2차 워크숍: 2009년 4월 15일 문학의 집·서울에서 개최한 2차 워크숍은 한국문학관협회 측의 지원으로 지자체 운영문학관(목포문학관), 민간위탁운영문학관(최명희문학관), 민간운영문학관(세계여성문학관), 문학인(이종주 시인) 등이 토론으로 참석하여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토론하였음

⁴⁾ 문학관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은 부록 4. 지역문학관 현황 작성표를 통해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음

제2장

지역문화관 현황 및
실태

제1절

지역문학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역문학관의 개념

- 문학관은 ‘작가의 삶과 창작의 기억과 자취들을 간직하는 곳’
 - 작가의 출생지이거나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한 곳 중 유·무형의 흔적들을 보존하는 곳
 - 문학관의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은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문학관이 운영되면서 문학관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공간이 아닌 지역민에게 문학을 소비하는 종합시설⁵⁾이자, 신진작가들의 창작 공간⁶⁾ 역시 문학관의 형태로 분류
- 문학관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곳의 명칭은 다양함
 - 예컨대, 문학관 이외에 문학촌(예, 김유정문학촌), 체험관(예, 만해문학체험관), 문학의집(예, 문학의집 서울), 마을(예, 백담사만해마을), 박물관(예, 삼성출판박물관), 문학기념관(예, 조태일문학기념관), 문화관(예, 토지문화관)
 - 영문표기에서도 literary house, memorial hall, museum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칭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문학관은 특정작가 또는 지역작가를 기념하는 문화공간, 그리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공간 등을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을 문학관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 현재 문학관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없기에 현재까지 법률적 의미에 따라 문학관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음
 -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일부 지역문학관이 2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조항 중 2조인 박물관의 정의를 폭넓게 문학관의 정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서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함
 -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정의된 박물관의 정의에 따라 문학관 역시 문학작품의 보존, 수집, 관리,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임

5) 충남문학관(구 한국문인인장박물관), 세계여성문학관, 청류재수목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한국가사문학관 등)

6) 백담사만해마을, 토지문화관, 지촌문학관

2. 지역문학관의 역사

- 현재 전국의 문학관은 45개로서 현재 건립 중인 10여개의 문학관이 완공되면 약 60여개의 문학관이 설립·운영 되어 질 것임.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지역문학관의 대부분은 2000년대 들어 건립되었음
 -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유명 문학인의 이름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그 수가 급증하게 되었음
- 1988년 경북에 지촌문학관이 국내 문학관으로는 처음 건립된 이후 문학관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최초의 문학관⁷⁾은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리문학관(1992년 개관)으로서, 추리문학관의 개관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문학풍토에서 지방인 부산에서 문학관이 처음 개관된 것
 - 현재 지역문학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 개인의 문학관이 아닌 한 장르(추리부분)를 내세운 문학관
 - 지자체나 국가의 예산이 아닌 한 개인의 사자에 의해서 건립된 문학관
 - 문학관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지적되는 전시위주의 문학관 운영이 아닌 프로그램⁸⁾위주의 문학관 운영
- 추리문학관 개관 이후 1990년대에는 해마다 한 두 곳의 문학관이 개인이나 재단에 의해서 운영되기 시작함
- 문학관은 2000년대 들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문학관 건립에 포함되면서 급증하게 됨
 -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 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 활성화, 지역이미지 창출, 관광증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간에 경쟁적으로 문학관을 유치
 - 지역의 대표문인들을 내세우면서 1990년대 건립된 특성화된 문학관(예컨대, 추리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에서 개인의 유품과 문학작품이 주가 되는 문학관이 세워 짐
- 문학관 수의 양적 팽창은 근본적으로 문학발전에 일정정도 기여를 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제한 된 문학관 수의 급증은 결국 문학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됨
- 이와 더불어 문학관 운영의 질적인 저하를 막기 위해 문학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2004년 4월 한국문학관협회가 결성됨
- 한국문학관협회의 설립은 지역문학관 대표자들의 모임으로서 현재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지역문학관 건립에 대한 컨설팅 업무
 - 문학관 홍보 책자 발간
 - 문학관 협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의 문학관 행사 및 전시 안내
 - 지역 문학관 실무자들을 위한 연수와 해외 문학관 파견 사업

⁷⁾ 1988년 개관한 지촌문학관은 문학관이라기보다는 문학촌으로서 문학인들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하였다.

⁸⁾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프랑스 문화특강, 21세기 문화특강, 겨울 추리여행, 추리소설 교실 등을 꼽을 수 있음

- 매년 6~10명의 문학관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지역문학관의 인력난 해소
- 한국문학관협회는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학관의 구심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문학관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지역에서 문학관의 역할

- 문화시설을 비롯하여 문화생산, 유통, 소비 등 문화의 중앙 집중화 현상이 벌어짐
 - 문학 역시 예외로 둘 수 없을 만큼 문학작품의 생산과 일반시민들의 문학작품 향유에 있어 중앙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
 - 특히 문예지의 80%가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는 현실은 점점 더 문학의 중앙 집중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문학관련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 역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 되어 있음
- 지역문학관의 활성화는 결국 문학의 중앙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음
 - 지역문학관의 활성화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문학작품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향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더불어 문학관이 지역민의 사랑방이자 문학교류의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함
 -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문학관이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교육여건을 개선 할 수 있음
- 문학관의 역할을 단순히 한 문학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전시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한정시킨다면 서울 중심의 중앙 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음
 - 이는 결국 문학의 중앙종속화를 심화시키고, 지역의 우수문화자원을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남
- 따라서 문학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 것은 자명함
 - 특히 앞서 언급했던 지역민의 교류장소이자 학생들의 교육시설로서 문학관은 앞으로 문학관이 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더불어 문학관이 위치한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문학애호가나 문학인을 위한 창작 집필실로서 역할도 필요로 함
- 결국 문학관은 지역에서 다른 문화기반시설과 함께 문화향유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이는 지역문학관이 향후 추구해야 할 이상임

제2절

우리나라 지역문학관 현황 및 실태분석

1. 지역문학관 현황

- 지촌문학촌(1988년 설립)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관이라 명명할 수 있는 추리문학관(1992년 설립)이 설립 된 이후 2009년 1월 1일 현재 <표2-1> 및 <그림2-1>과 같이 총 45개의 문학관이 운영 중에 있음
- 문학관들은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인구의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학관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2000년 이후 문학관 급증의 배경이 된 지자체 건립 문학관이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임
- 이러한 요인과 함께 과거 유명 문인들의 고향이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역에 있고, 아울러 문학작품의 소재지나 집필 공간 역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그림 2-1] 지역문학관 전국분포도

〈표 2-1〉 지역문학관현황(2009년 1월 1일 현재)

	문 학 관	위 치	개 관 연 도
1	경남문학관	경남 진해	2001
2	구상문학관	경북 칠곡	2002
3	김달진문학관	경남 진해	2005
4	김삿갓문학관	강원 영월	2003
5	김유정문학촌	강원 춘천	2002
6	농민문학기념관	충북영동	2005
7	동리·목월문학관	경북 경주	2006
8	마산문학관	경남 마산	2005
9	만해기념문학관	경기 광주	1998
10	만해문학체험관	충남 홍성	2007
11	목포문학관	전남 목포	2007
12	문학의집서울	서울특별시	2001
13	미당시문학관	전북 고창	2001
14	박재삼문학관	경남 사천	2008
15	백담사만해마을	강원 인제	2003
16	백수문학관	경북 김천	2008
17	삼성출판박물관	서울특별시	1990
18	세계여성문학관	서울특별시	2000
19	아리랑문학관	전북 김제	2003
20	영인문학관	서울특별시	2001
21	오장환문학관	충북 보은	2006
22	요산문학관	부산광역시	2006
23	원서문학관	충북 제천	2003
24	이병주문학관	경남 하동	2008
25	이육사문학관	경북 안동	2004
26	이주홍문학관	부산광역시	2002
27	이효석문학관	강원 평창	2002
28	정지용문학관	충북 옥천	2005
29	조병화문학관	경기 안성	1993
30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전남 곡성	2003
31	지촌문학관	경북 안동	1988
32	채만식문학관	전북 군산	2001
33	청류재수목문학관	경기 안성	1993
34	청마문학관	경남 통영	2000
35	최명희문학관	전북 전주	2006
36	추리문학관	부산광역시	1992
37	한국문인인장박물관(충남문학관)	충남 예산	2000
38	충주문학관	충북 충주	2007
39	태백산맥문학관	전남 보성	2008
40	토지문화관	강원 원주	1999
41	평사리학관	경남 하동	2004
42	한국가사문학관	전남 담양	2000
43	한국현대문학관	서울특별시	1996
44	한무숙문학관	서울특별시	1993
45	혼불문학관	전북 남원	2004

자료출처: 한국문학관협회, 전국문학관 찾아가기와 지역문학관활성화정책연구팀이 자체 조사한 것을 추가하여 재구성

- 본 연구의 1차 연구대상이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이하, 균특예산)은 <표2-2>와 같이 현재 개관 예정 문학관을 포함하여 총 25개로 그 중 12개의 문학관이 개관을 하였고, 13개의 문학관은 현재 개관을 준비 중임
- 균특예산지원 문학관의 특징 중 하나는 대체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문인들에 대한 문학관 건립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광역단위를 대표할만한 문학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음

〈표 2-2〉 균특예산 대상 지역문학관현황

(단위 : 백만원)

문학관명	지 역	개관일	일반 현황
1. 동라목월 문학관	경북 (경주)	06.3.24	○김동리, 박목월 2인 문학관 ○총사업비 4,000 ○대지 4,189평, 연면적 462평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국고지원 : 1,200(02)
2. 마산 문학관	경남 (마산)	05.10.28	○이은상 및 마산지역 작가 관련 전시 ○총사업비 2,700 ○대지 3,327평, 연면적 139평 ○전시실, 세미나실, 문인 및 관리사무실 ○국고지원 : 600(02)
3. 이효석 문학관	강원 (평창)	02.9.7	○총사업비 2,200 ○부지 7,813평, 연면적 218평 ○전시실, 메밀자료관, 자료실, 문학교실 ○국고지원 : 600(02)
4. 최명희 문학관	전북 (전주)	06.4.25	○총사업비 1,650 ○대지 508평, 연면적 140평 ○전시실, 도서실 및 수장고 등 ○국고지원 : 300(03)
5. 이육사 문학관	경북 (안동)	04.7.31	○총사업비 2,190 ○부지 2,324평, 연건평 196평 ○국고지원 : 600(03)
6. 정지용 문학관	충북 (옥천)	05.5.14	○‘향수’ 시인 정지용 기념관 ○ 총사업비 1,000, 부지 370평 ○전시실, 영상실, 문학교실 ○국고지원 : 300(03)
7. 신동엽 문학관	충남 (부여)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2,695 ○부지 : 2,026㎡, 건물 : 462㎡ ○전시실, 문학교실, 관리실 등 ○국고지원 : 370(04)
8. 오장환 문학관	충북 (보은)	06.9	○총사업비 : 888백만원 ○부지 1,337㎡, 건물 107㎡ ○영상관, 전시실, 세미나실 등 ○국고지원 : 250(04)
9. 김정한 문학관	부산	06.11.21	○총사업비 1,230 ○요산 유품 전시관, 다목적 세미나실, 문인 집필실 등 ○대지 206평, 연면적 88평 ○국고지원 : 250(04)

문학관명	지 역	개관일	일반 현황
10. 김동명 문학관	강원 (강릉)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2,000 ○부지 250평, 연건평 80평 ○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사무실 ○국고지원 : 150(05)
11. 박인환 문학관	강원 (인제)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1,500 ○연면적 200평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국고지원 : 200(05)
12. 충주문학관	충북 (충주)	07.11	○총사업비 : 500 ○부지 1,400㎡, 건물연면적 1,742㎡(지상2층) ○지역작가 작품전시실, 자료열람실, 휴게실, 강의실, 회의실, 문화사랑방 등 ○국고지원 : 150(05)
13. 만해문학체험관	충남 (홍성)	07.10	○총사업비 : 3,000 ○연건평 300평 ○전시실, 세미나실, 문학인의 집, 수장고 ○국고지원 : 450(05), 450(06)
14. 눌인문학관	전북 (무주)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3,300 ○부지 1,748㎡, 연면적 1,322㎡ ○전시실, 자료열람실, 세미나실 등 ○국고지원 : 500(05), 246(07)
15. 강화문학관	인천 (강화)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1,500 ○부지 900㎡, 연면적 852㎡(257.7평) ○전시실, 북카페, 수장고, 세미나실 등 ○국고지원 : 100(06), 77(07)
16. 석정문학관	전북 (부안)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3,520 ○면적 7,500㎡ ○문학관, 관리동, 부대시설 등 ○국고지원 : 400(06), 600(07), 500(08)
17. 복합문학관	전남 (순천)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2,500 ○부지 29,567㎡, 건물450㎡ ○정채봉문학관식, 김승옥 문학관, 종합전시관 ○국고지원 : 190(06), 87(07) *07년 정채봉문학관→복합문학관으로 변경
18. 박재삼 문학관	경남 (사천)	08.11.22	○총사업비 : 1,550 ○부지 250㎡, 건물 연면적 635㎡(지상 3층) ○문학관, 홍보관, 사무실, 전망대 등 ○국고지원 : 180(06), 131(07),
19. 임제백호문학관	전남 (나주)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4,000 ○부지4,700㎡, 건물연면적660㎡ ○전시실, 장서각, 자료실, 문화사랑방 등 ○국고지원 : 231(07)
20. 백수문학관	경북 (김천)	08.12.10	○사업비 : 2,004 ○대지 3,587㎡, 연면적 603.2㎡ ○전시실 120㎡, 세미나 80㎡, 자료실 40㎡, 사무실 37.2㎡, 집필실 22㎡등 ○국고지원 : 307(07)
21. 이문구 문학관	충남 (보령)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7,763 ○부지 20,000㎡, 건물연면적 1,500㎡(지상 3층, 지하 1층) ○주요 시설내용 : 문학관, 전시실, 전시실, 수장고 등 ○국고지원 : 1,000(08)

문학관명	지 역	개관일	일반 현황
22. 대전문학관	대전 (동구)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2,687 ○부지 6,467㎡, 건물연면적 1,100㎡(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 수장고, 교육관, 자료실, 창작실 등 ○국고지원 : 540(09)
23. 박경리문학관	경남 (통영)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4,797 ○부지 4,465㎡, 건물연면적 1,150㎡(지하층, 지상1층) ○주요시설 : 전시실, 세미나실, 영상실, 관리실 등 ○국고지원 : 650(09)
24. 향파 이주홍 기념관	경남 (합천)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1,900 ○부지 2,340㎡, 생가복원 62.2㎡, 아동문학관 636.48㎡ ○주요시설 : 생가, 문학관, 시비 및 흉상 ○국고지원 : 300(09)
25. 시문학파기념관	전남 (강진)	개관 준비 중	○총사업비 : 1,600 ○부지 1,521㎡, 건물연면적 600㎡ (지하1층, 지상1층) ○주요시설 :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소공원등 ○국고지원 : 300(09)

- 사회가 현대화가 되고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표 2-3>와 같은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문학관 역시 찾아 볼 수 있었음
- 향후 이러한 형태의 문학관은 문학인 개인 홈페이지와 더불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여겨짐

〈표 2-3〉 사이버 문학관 현황

문학관명	홈페이지 주소	소 개
동인지문학관	http://donginji.arko.or.kr/	○ 한국동인지문학관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지어서 만든 문학잡지라는 뜻인 '동인지'에 기초하였음 ○ 한국문화예술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포털사이트를 구축 ○ 연수회와 사이버 문학 활동을 통하여 본격적인 인터넷 한국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 졌음
황순원 사이버문학관	http://www.soonone.com/main/	○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의 대표적 실향민 작가인 황순원 선생의 문학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학관임 ○ 향후 선생의 고향에 문학관과 생가 복원을 위해 미리 힘을 결집하고 마음을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짐

2. 지역문학관 운영실태 분석

1) 지역문학관 실태조사 연구방법

- 점차 증가되고 있는 지역문학관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역문학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지를 작성하여 사전연락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부록 3, 4〉 2009년 지역문학관 현장방문 조사표 참조]
- 조사대상: 2009년 1월 현재까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문학관 총 41곳⁹⁾을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대상 문학관은 다음과 같음[〈표 2-4〉 참조]

〈표 2-4〉 조사대상 문학관

위치	문학관 수	문학관 명
강원도	5	만해문학박물관, 김유정문학관, 김삿갓문학관, 이효석문학관, 토지문화관
경기도	3	만해기념문학관, 조병화문학관, 청류재수목문학관
경상남도	7	경남문학관, 김달진문학관, 마산문학관, 박재삼문학관, 이병주문학관, 청마문학관, 평사리문학관
경상북도	4	구상문학관, 백수문학관, 동라목월문학관, 이육사문학관
부산광역시	3	요산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추리문학관
서울특별시	5	문학의 집서울, 세계여성문학관, 영인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한무숙문학관
전라남도	4	목포문학관, 조태일시문학관, 태백산맥문학관, 한국가사문학관
전라북도	4	미당시문학관, 아리랑문학관, 채만식문학관, 최명희문학관
충청남도	1	만해문학체험관
충청북도	5	농민문학기념관, 오장환문학관, 원서문학관, 정지용문학관, 충주문학관
합계	41	

- 조사일시: 2009년 2월 1일~28일
- 조사방법: 각 문학관 실무자 면담을 통한 전수조사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문학관들을 현장 방문하여 문학관 운영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학관 운영현황 및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9) 전국의 문학관 45곳 중 문학관 성격보다는 박물관이나 예술촌의 성격이 강한 삼성출판박물관, 한국문인인장박물관, 지촌문학촌은 조사에서 제외되었고, 전북 남원에 있는 혼불문학관은 문학관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인터뷰 문항은 ‘2009년 지역문화관 현장방문 조사표’¹⁰⁾를 작성하여 면담대상자들이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질문문항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조사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 문화관 총 41곳을 전수조사 하였음
- 분석방법: 운영현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실시
 - 수집된 자료는 EXCEL과 SPSS 1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문화관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내용에 따라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등을 사용
 - 문화관 활성화관련 심층인터뷰 자료는 문화관 활성화 문제점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해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조사항목: 문화관 운영현황 관련 항목 및 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의견제시 항목

〈표 2-5〉 설문지 문항구성

구 분	내 용	응답 형태	문항수
문화관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 운영형태 · 문화관 성격 · 설립재원 · 행정현황 · '08년도 재정수입현황 · 사업목적 · 주요사업 · 방문객관련 · 지역 문화관광과의 연계 ·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 · 문화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 	선다형 기술형	11
문화관 활성화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 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기술형	2

2) 지역문화관 실태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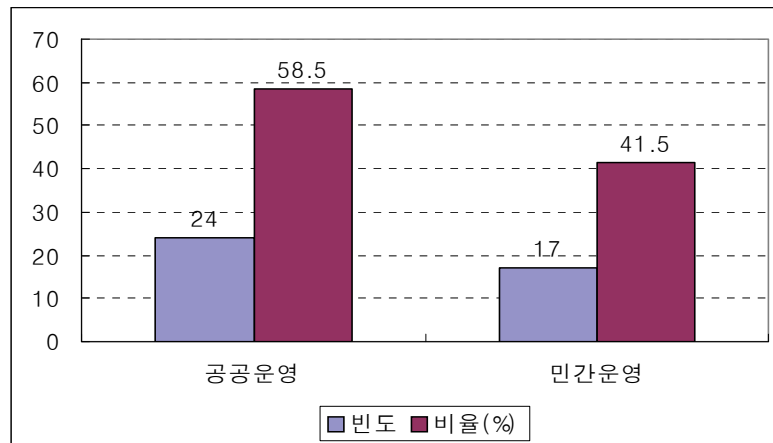
□ 문화관 운영형태

- 지역문화관 운영형태는 41개의 문화관 중 공공운영이 24개(58.5%), 민간운영이 17개(41.5%)로 공공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¹⁰⁾ 부록 3에 ‘2009년 지역문화관 현장방문 조사표’ 첨부

〈표 2-6〉 문학관 운영형태(1)

구 분	빈 도	비 율(%)
공공운영	24	58.5
민간운영	17	41.5
총계	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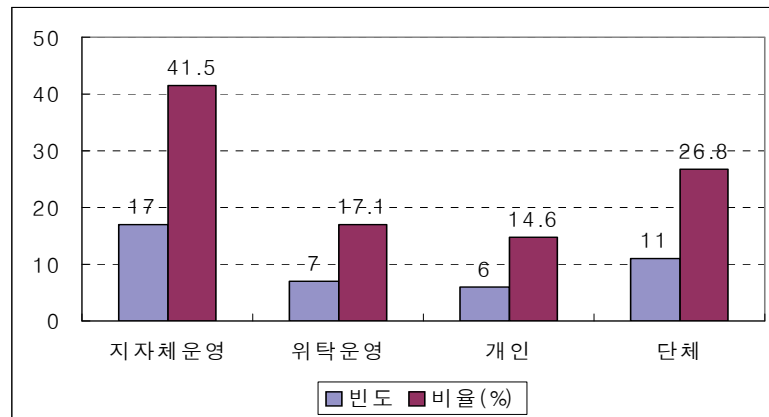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문학관 운영형태(1)

- 문학관의 운영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운영 중 지자체운영은 17개(41.5%), 위탁운영은 7개(17.1%)로, 민간운영 중 개인운영은 6개(14.6%), 단체운영은 11개(26.8%)로 나타남

〈표 2-7〉 문학관 운영형태(2)

구 분		빈도	비율(%)
공공운영	지자체운영	17	41.5
	위탁운영	7	17.1
민간운영	개인운영	6	14.6
	단체운영	11	26.8
총계		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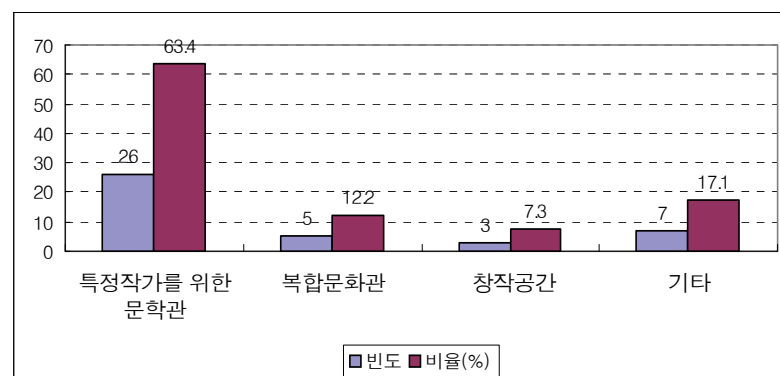
[그림 2-3] 지역문학관 운영형태(2)

□ 문학관 성격

- 우리나라 지역문학관 성격은 특정작가를 위한 문학관이 26개(6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기타 7개(17.1%), 지역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화관 5개(12.2%), 신인·기성 작가들의 창작 공간 3개(7.3%) 순으로 나타남
- 기타 문학관 성격은 종합문화관, 문인연구지원공간,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단의 문학사료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표 2-8〉 문학관 성격

구 분	빈 도	비 율(%)
특정작가를 위한 문학관	26	63.4
지역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화관	5	12.2
신인기성 작가들의 창작공간	3	7.3
기타	7	17.1
총계	41	100



[그림 2-4] 문학관 성격

□ 설립재원

- 설립재원은 지자체자금을 지원받은 문학관이 총 27개로 가장 많은 설립재원의 형태로 나타났음. 또한 최소 1천7백만 원에서 최대 67억8천만 원으로 평균 11억9천9백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지자체자금 지원은 표준편차가 14억3천2백만 원으로 지자체에 따라 설립지원액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받은 곳은 총 25개로 평균 7억8천5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자금 12개, 기타 4개로 조사되었음

〈표 2-9〉 문학관 설립재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중앙정부	25	80	4,687	784.76	960.00
지자체자금	27	17	6,780	1,199.16	1,432.24
민간자금	12	80	2,000	600.67	671.25
기타	4	150	500	325.00	144.34

주) 문학관 설립재원은 다중 응답

- 문학관 설립재원의 각 지원종류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자금으로 국비, 특별교부금, 균특자금 등으로 나타났고 지자체자금으로는 도비, 군비, 시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민간자금으로는 개인사비, 발전기금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재원으로는 기업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조사되었음

〈표 2-10〉 문학관 설립재원 종류

구 분	종 류
중앙정부	관광자원개발(1), 국비(2), 특별교부금(1), 균특(7), 남해안관광벨트사업기금(1)
지자체자금	도비(13), 군비(8), 시비(11), 문학관설립기금(1), 민간경상보조(1), 이명산문학예술촌조성사업(1)
민간자금	개인사비(2), 대학교내예산(1), 대지제공(1), 마사회(1), 발전기금(1), 이사장출연금(1)
기타	관장개인자금(1), 토지공사(1), 후원금(2), 기업기부금(2)

주) 문학관 설립재원의 종류는 다중응답됨

□ 행정현황

- 문학관의 행정현황을 살펴보면, 연 예산규모는 최소 1천5백만 원에서 최대 8억 원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1억3천5백만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직원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7명이 문학관 운영인력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 수가 전혀 없는 문학관도 있었으며 평균 2.31명으로 분석되었음. 임시직 수는 최대 4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45명의 임시직이 문학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11〉 문학관 행정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 분	빈 도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연 예산규모	36	15	800	134.98	154,340
직원 수	40	1	9	3.70	1,742
정규직 수	39	0	5	2.31	1,341
임시직 수	40	0	4	1.45	1,197

□ 재정수입현황

- '08년도 문학관 재정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문학관이 31개로 총수입 대비 약 71.41%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자체운영수입이 있는 문학관은 18개로 나타났고 총수입 대비 약 37.63%를 자체운영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12〉 '08년도 문학관 재정및 총수입 대비 비중

(단위: 백만 원)

구 분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외부	중앙정부	4	13 (10%)	54 (58%)	29.28 (26.13%)	17.96 (21.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	6 (1%)	100 (46%)	17.74 (13.78%)	24.64 (12.87%)
	지방자치단체	31	3 (6%)	718 (100%)	98.10 (71.41%)	133.01 (34.55%)
	후원(기업/개인)	14	2 (4%)	175 (88%)	49.63 (31.61%)	56.07 (24.98%)
자체	자체운영수입	18	1 (1%)	150 (100%)	40.22 (37.63%)	39.61 (31.62%)

주1) ()는 각 부문의 총수입 대비 비중임

주2) 문학관 재정수입현황 및 비중은 다중응답됨

주3) 문학관 재정수입은 다중응답 되었으므로 총수입 대비 각 부문 재정수입비중의 평균 합계는 100%를 초과함

□ 문학관 사업목적

- 문학관 사업목적은 작가의 문화적 유산 및 유품 보존 및 전시를 총 39개(95.1%)의 문학관이 응답하였으며, 문학교육의 장 제공 37개(90.2%), 지역문화의 중심역할 32개(78.0%), 낙후된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 28개(68.3%), 기타 6개(14.6%)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 이는 대다수 문학관의 주요한 사업목적이 작가의 문화적 유산 및 유품 보존 및 전시이지만, 문학교육의 장 제공, 지역 문화의 중심역할, 낙후된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 등의 다양한 역할 등을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임

〈표 2-13〉 문학관 사업목적 여부

구 분	빈 도		비 율(%)
작가의 문화적 유산 및 유품 보존 및 전시	있음	39	95.1
	없음	2	4.9
	총계	41	100
지역 문화의 중심역할	있음	32	78.0
	없음	8	19.5
	무응답	1	2.4
	총계	41	100
문학교육의 장 제공	있음	37	90.2
	없음	4	9.8
	총계	41	100
낙후된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	있음	28	68.3
	없음	13	31.7
	총계	41	100
기타 목적	있음	6	14.6
	없음	35	85.4
	총계	41	100

주) 기타 목적에는 소외 이웃 문학향유 기회제공, 여성문인 연구지원, 일반인의 문학향유 및 소양 함양기여, 도서관 사업, 문인 및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후학양성 등임

- 문학관 사업목적의 비중을 살펴보면 작가의 문화적 유산 및 유품보존 및 전시목적 비중이 최소 0%에서 최대 100%로 평균 50.12%의 역할비중을 보이고 있음
- 작가의 문화적 유산 및 유품 보존 및 전시목적이 전혀 없는 문학관은 창작공간으로의 역할을 하는 문학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문학교육의 장 제공 목적 비중이 평균 19.02%, 지역문화의 중심역할 목적 비중은 평균 15.88%, 낙후된 지역의 문화관광발전에 기여목적 비중은 10.12%, 기타 사업목적 비중 5.0% 순으로 분석되었음

〈표 2-14〉 문학관 사업목적 비중

(단위: %)

구 분	빈 도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차
작가의 문화적 유산 및 유품보존 및 전시목적 비중	41	0	100	50.12	23.20
지역문화의 중심역할 목적 비중	40	0	50	15.88	11.92
문학교육의 장 제공 목적 비중	41	0	60	19.02	14.06
낙후된 지역의 문화관광발전에 기여목적 비중	41	0	30	10.12	9.12
기타 사업목적 비중	41	0	85	5.00	15.49

□ 주요사업

- 문학관 주요사업 여부를 살펴보면, 상설전시를 실시하는 문학관이 38개(92.7%)로 가장 많았으며, 문학교육 실시 34개(82.9%), 문학체험 실시 27개(65.9%), 기획전시 실시 24개(58.5%), 창작 집필실 운영 실시 12개(29.3%)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2-15〉 문학관 주요사업 여부

구 분	빈 도		비 율(%)
상설전시	실시	38	92.7
	미실시	3	7.3
	총계	41	100
기획전시	실시	24	58.5
	미실시	17	41.5
	총계	41	100
문학체험	실시	27	65.9
	미실시	14	34.1
	총계	41	100
문학교육	실시	34	82.9
	미실시	7	17.1
	총계	41	100
창작 집필실 운영	실시	12	29.3
	미실시	29	70.7
	총계	41	100
기타	실시	6	14.6
	미실시	35	85.4
	총계	41	100

- 문학관 주요사업 비중은 상설전시 비중이 51.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학교육 비중 15.61%, 문학체험 비중 13.05%, 기획전시 비중 11.71% 순으로 분석되었음

〈표 2-16〉 문학관 주요사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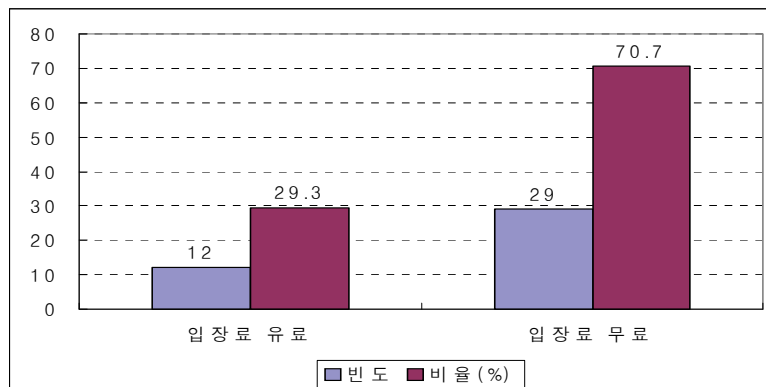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편차
상설전시 비중	41	0	100	51.46	29.01
기획전시 비중	41	0	80	11.71	16.72
문학체험 비중	41	0	50	13.05	13.18
문학교육 비중	41	0	50	15.61	12.10
창작 집필실 운영 비중	41	0	85	6.46	14.93
기타 비중	41	0	20	1.95	5.11

□ 방문객 관련

- 문학관에 방문한 관람객의 입장료 유무를 살펴본 결과, 입장료가 유료인 곳은 41개 문학관 중 총 12개(29.3%)의 문학관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7〉 방문객 입장료 유무

구 분	빈 도	비율(%)
입장료 유료	12	29.3
입장료 무료	29	70.7
총계	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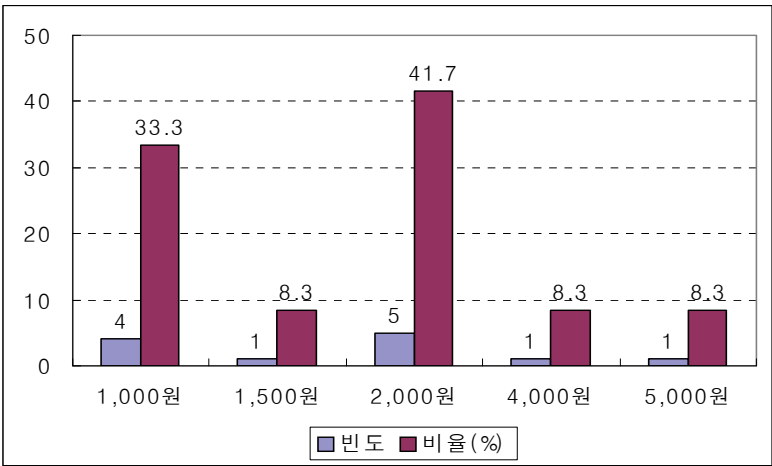


[그림 2-5] 방문객 입장료 유무

- 유료 시 입장료 가격은 2,000원을 받는 문학관이 5개, 1,000원을 받는 문학관이 4개로 나타났다으며, 가장 비싼 입장료 가격은 5,000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2-18〉 유료 시 입장료

구 분	빈 도	비율(%)
1,000원	4	33.3
1,500원	1	8.3
2,000원	5	41.7
4,000원	1	8.3
5,000원	1	8.3
총 계	12	100



[그림 2-6] 유료 시 입장료

- 문학관의 방문객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 비중은 최소 20%에서 최대 90%로 평균 53.8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방문객 단체 비중은 평균 46.15%로 문학관을 방문하는 개인 비중이 약 8%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19〉 방문객 유형

(단위: %)

구 분	빈 도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차
방문객 개인 비중	40	20	90	53.85	21.42
방문객 단체 비중	40	10	80	46.15	21.42

- 2008년 총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최소 230명에서 최대 500,000명으로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41개 문학관의 평균 방문객 수는 51,041명으로 분석되었음

〈표 2-20〉 2008년 총 방문객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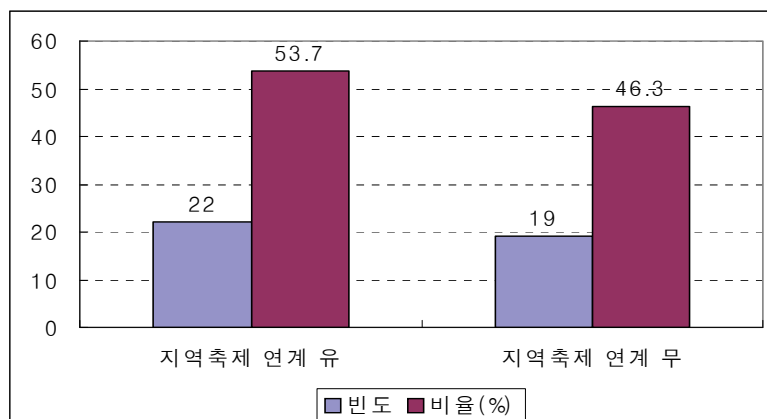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차
2008년 총 방문객 수	41	230	500,000	51,041.46	97,124.64

□ 지역 문화관광과의 연계

- 지역축제 연계 유무를 살펴보면,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학관은 22개(53.7%), 연계하지 않은 문학관은 19개(46.3%)로 나타남
-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학관은 지역축제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문학관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이는 문학관이 지역문화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함

〈표 2-21〉 지역축제 연계 유무

구 분	빈 도	비율(%)
지역축제 연계 유	22	53.7
지역축제 연계 무	19	46.3
총계	41	100



[그림 2-7] 지역축제 연계 유무

○ 각 지역문학관과 연계된 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2-22〉 참조]

〈표 2-22〉 지역축제 연계 시 축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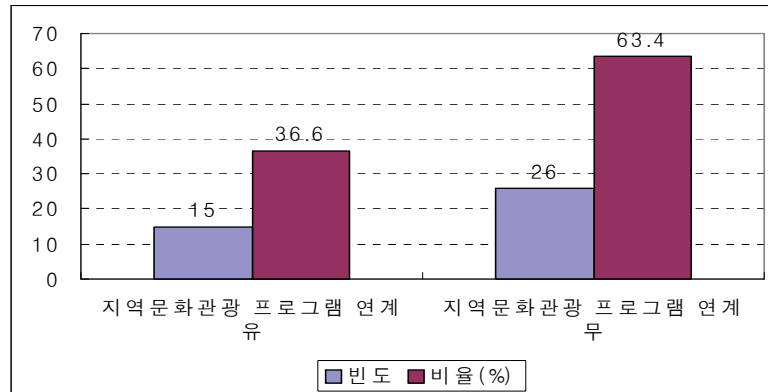
번 호	문학관명	연계 축제 명
1	경남문학관	진해군항제
2	김달진문학관	김달진문학제
3	김삿갓문학관	김삿갓문화큰잔치
4	김유정문학관	김유정문학제
5	동라목월문학관	경주시민의 날
6	만해기념문학관	남한산성문화제
7	문학의 집서울	하이서울페스티벌
8	미당시문학관	고창국화축제
9	아리랑문학관	지평선축제
10	오장환문학관	오장환문학제
11	요산문학관	금정문화제
12	이병주문학관	메밀꽃 코스모스축제
13	이육사문학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4	이주홍문학관	이주홍문학제
15	이효석문학관	효석문화제
16	정지용문학관	지용제
17	조병화문학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18	최명희문학관	전주국제영화제
19	추리문학관	달맞이철학축제
20	충주문학관	우륵문화제
21	평사리문학관	토지문학제
22	한국가사문학관	담양대나무축제

○ 각 문학관과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유무를 살펴보면,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문학관은 15개(36.6%), 연계하지 않는 문학관은 26개(63.4%)로 나타났다

- 이것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문학관이 지역문화관광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그러므로 문학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이 방문객에게 지역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표 2-23〉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구 분	빈 도	비율(%)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유	15	36.6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무	26	63.4
총 계	41	100



[그림 2-8]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유무

○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된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24〉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시 프로그램명

번 호	문화관광명	연계 프로그램명
1	경남문화관	이순신프로젝트
2	김삿갓문화관	영월박물관 팸투어
3	김유정문화관	김유정 소설과 만나는 삶의 체험
4	마산문화관	마산시티투어관람
5	만해기념문화관	남한산성투어
6	만해문학박물관	만해축전
7	목포문화관	갯바위권 해양관광지 코스
8	아리랑문화관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9	영인문화관	박물관공동전시
10	원서문화관	농부와시인
11	이병주문화관	문학제, 학술세미나
12	최명희문화관	한옥마을 팸투어
13	충주문화관	충주문화유적투어
14	평사리문화관	최참판댁 단지내 투어
15	한국가사문화관	담양 명품투어

3. 지역문학관 프로그램 분석

- 지역문학관은 작가의 뜻을 기리고 유품을 전시하는 주요 기능이외에도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 문학관은 또한 지역출신 문학과 지역과 연관된 문학작품을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운영함으로써,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학향유, 교육, 체험, 창작 공간, 낭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지역문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음[〈표 2-25〉 참조]
- 조사결과, 지역문학관들은 문학제, 낭송, 강좌·강연·교육, 기획전시, 경연, 체험, 창작집필실, 문학상 시상, 문학캠프, 문학기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지역문학관(19개)은 강좌, 강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문학강좌, 문예대학, 문학아카데미, 문예교실, 창작대학, 심포지엄, 문학강연,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
 - 백일장, 문학학술대회, 독서감상문 공모 등 경연 프로그램은 14개의 문학관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경연을 통해 문학관을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알려 문학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었음
 - 지역문학관들은 해당 지역문학관의 작가들을 기리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문학제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학제’, ‘문화큰잔치’, ‘문학축전’, ‘문학청소년축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개최하고 있었음
 - 탁본체험, 퀴즈, 한옥체험, 판화체험, 서체 따라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관이 ‘머물고 싶은 장소’, ‘다시 가고 싶은 장소’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었음
 - 어린이문학캠프, 문학수련회 등으로 문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학기행 등을 기획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음
- 한편 문학제, 교육, 경연 등의 운영프로그램 외에도 ‘다문화가정주부 문학투어’(조병화문학관), ‘최참판댁 해설’(평사리문학관), ‘추리연극’(추리문학관), 전주교도소 장애인 수감자 대상 ‘예술치료 및 심리상담프로그램’(최명희문학관), ‘전국문학길 열린음악회’(한국가사문학관), ‘어린이예절교실’(요산문학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학관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음
 - 이러한 사례는 문학관이 기존에 행하였던 운영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문학공간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임
-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역문학관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소수의 문학관들은 전문 인력 및 재정 등을 이유로 작가의 유품 전시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었음. 그러므로 이러한 소수의 문학관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려 하는 문학관들에 있어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표 2-25〉 지역문학관 운영 프로그램

구 분	해당 문학관명	프로그램 명
문학제 (13)	김삿갓문학관	· 김삿갓 문화큰잔치 축제
	김유정문학관	· 김유정문학제
	경남문학관	· 경남문학제
	김달진문학관	· 김달진문학제
	이병주문학관	· 이병주하동 국제문학제
	평사리문학관	· 토지문학제 개최
	동라목월문학관	· 동리, 목월문학제
	요산문학관	· 요산문학제
	이육사문학관	· 이육사문학축전
	이주홍문학관	· 이주홍문학제
	문학의 잡서울	· 문학청소년축제, 이웃사랑문학제, 봄맞이문학축제, 자연사랑문학제
	목포문학관	· 김우진문학제, 목포문학축전, 김현 문학축전
	한국현대문학관	· 청소년 문학행사, 한국 시의 밤 행사
낭송 (9)	조병화문학관	· 시낭송회
	청류재수목문학관	· 시낭독회
	박재삼문학관	· 박재삼 시읽기모임
	동라목월문학관	· 시낭송의 밤
	문학의 잡서울	· 시낭송
	목포문학관	· 목포시낭송대회
	조태일시문학관	· 문학낭송회
	농민문학기념관	· 작품낭송회
	정지용문학관	· 시낭송 체험
강좌강연교육 (19)	김유정문학관	· 향토작가와 함께 하는 순회문학강연
	토지문학관	· 문학강연(년 8회, 전국에서 온 시민 청소년 등 대상)
	만해기념문학관	· 만해학교
	조병화문학관	· 시청작교실(편운 아래서 쓰다)
	경남문학관	· 작고문인심포지엄, 문예대학
	마산문학관	· 문학아카데미, 문예창작교실
	이병주문학관	· 이병주문학학술세미나, 지역대학 콜로키움
	평사리문학관	· 문학교실
	구상문학관	· 문학창작교실
	백수문학관	· 백수문학관 문학아카데미
	동라목월문학관	· 동리, 목월 문예창작대학
	요산문학관	·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민문예교실
	추리문학관	· 추리창작교실, 21세기 문학강좌
	문학의 잡서울	· 수요문학광장(월 1회)
	목포문학관	· 청소년문학교실
	조태일시문학관	· 문학강연
	채만식문학관	· 백룡 채만식 세미나, 지역문학제 강연
	정지용문학관	· 문학교실, 문학강좌, 학술세미나
	최명희문학관	· 박예분 선생님의 글쓰기 교실, 다시 읽는 「혼불」
기획전시 (12)	만해문학박물관	· 만해를 주제로 한 시서화전
	이효석문학관	· 이효석과 북만주 하얼빈(2008년)
	조병화문학관	· 한국문단 반세기 사진전
	청류재수목문학관	· 시화전〈생태계와 문학의 접근〉
	경남문학관	· 기획전시(연 2회)
	마산문학관	· 충무공 이순신 담론 자료전
	박재삼문학관	· 박재삼 시인의 대표적 시표구 전시
	문학의 잡서울	· 작고문인 초상화전
	영인문학관	· 육필원고와 초고전
	한무숙문학관	· ‘한무숙과 사람들’-문인편지사진전(예정)
	최명희문학관	· ‘수공(手工)’ 그 아름답고 귀한 시작
	평사리문학관	· 지리산 일대 작가 및 작품전시

구 분	해당 문학관명	프로그램 명
경연 (14)	김삿갓 문학관	• 동양화, 한글 붓글씨, 휘호대회, 조선민화공모전 등
	만해기념문학관	• 만해문학백일장
	조병화문학관	• 백일장, 사생대회
	경남문학관	• 환경백일장
	이병주문학관	• 초·중·고 백일장대회(9월)
	청마문학관	• 청마우체국 개명 염원 글쓰기 대회(10월중)
	요산문학관	• 요산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이주홍문학관	• 시화전, 백일장
	문학의 잡서울	• 독서감상문 공모, 독서지도, 함께 연극하기, 서울 문학인 대회 등
	목포문학관	• 박화성백일장
	조태일시문학관	• 학생백일장
	한국가사문학관	• 전국가사문학학술대회, 전국 가사시조 창작공모, 전국 가사시조낭송대회
	충주문학관	• 백일장
	백수문학관	• 백수전국백일장
체험 (7)	김유정문학관	• 김유정 소설과 만나는 삶의 체험
	만해기념문학관	• 시화그리기, 판화체험, 알록달록 시전지, 발도르프 원목교구, 〈님의 침묵〉 옛책 만들기
	김달진문학관	• 문학체험교실, 독서체험교실
	최명희문학관	• 최명희 서체 따라쓰기, 문학관은 우체부, 엽서쓰기,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
	만학문학체험관	• 만해작품 탁본체험, 만해관련 퀴즈 체험, 만해 어록
	정지용문학관	• 대표작품 노래체험
	평사리문학관	• 청소년 한옥체험
창작집필실 (2)	토지문화관	• 문인 및 문화예술인 창작실 운영지원사업
	만해문학박물관	• 문인 창작실 지원사업
문학상 시상 (5)	조병화문학관	• 편운문학상 시상
	김달진문학관	• 김달진문학상 시상
	청마문학관	• 청마문학상 시상
	동라목월문학관	• 동라목월문학상 시상
	이주홍문학관	• 이주홍문학상
문학캠프 (4)	김유정문학관	• 김유정문학캠프
	이병주문학관	• 어린이문학캠프(여름, 겨울)
	김달진문학관	• 문학캠프(연 2회)
	조태일시문학관	• 문학수련회
문학기행 (5)	김유정문학관	• 소설의 고향을 찾아가는 문학기행
	동라목월문학관	• 동라목월의 작품배경을 찾아가는 문학기행
	이육사문학관	• 시상지 참관활동(웃판대, 칼선대)
	이주홍문학관	• 문학기행
	아리랑문학관	• 소설 아리랑 문학기행
기타 (8)	조병화문학관	• 다문화가정주부 문학투어, 한미친선프로그램 운영
	평사리문학관	• 최첨판덕 해설(문학 속 공간+한옥 구조)(연평균 50만명)
	추리문학관	• 추리연극, 추리어행, 헌책축제, 계수나무심기, 영어교실, 화가의 방, 기타교실
	문학의 잡서울	• 우리사우리노래신작 가곡음악회
	한국가사문학관	• 전국문학길 열린음악회
	최명희문학관	• 전주교도소장애인수감자 대상 〈예술치료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오장환문학관	• 단막극 형식의 오장환에 대한 영상
	농민문학관	• 농민문학사전 제작
	요산문학관	• 어린이예절교실, 주부다도교실, 문학콘서트

4. 지역문학관 문화관광자원 분석

- 각각의 지역문학관들은 문학관 인근에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예컨대, 문화시설, 문화유적, 보물, 관광지, 민속자료, 관광단지 등)이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문학관 주변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축제 및 문화관광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또는 문학관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우리나라 지역문학관들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볼거리 및 교육의 기회를 접하고자 문학관을 찾고 있으며, 문학관 관람뿐만이 아니라 문학관 인근 관광지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겸목적으로서의 역할을 문화관광자원이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이와는 반대의 의미로 관광지를 찾았다가 호기심의 이유로 문학관을 찾아 작가를 기리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문화관광자원과 지역문학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문학관은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여 활성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점차로 지역문학관들이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문학관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문학관 인근 문화관광자원을 각 도별, 문학관 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표2-26〉]
- 각각의 문학관들은 위치해 있는 특성에 따라 각각의 독특한 자연환경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인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들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문학관: 김삿갓 문학관, 영인문학관, 박재삼문학관, 마산문학관, 목포문학관, 백수문학관 등
 - 문화관광축제와 연계된 지역문학관: 이효석문학관, 추리문학관, 이병주문학관 등
 - 관광단지와 연계된 문학관: 평사리문학관, 목포문학관, 동리·목월문학관 등
 - 국립공원과 연계된 문학관: 오장환 문학관, 만해문학박물관 등
 - 산성과 연계된 문학관: 구상문학관, 만해기념관 등
- 이러한 지역문학관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예를 들어 문학관과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된 코스개발, 지도제작 및 배포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문학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문학관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님을 인식해야 하며, 관람객들에게 작가의 생가방문, 작품배경지 탐방, 문학향수 기회제공 등 문학관이 충분히 관광객 및 관람객들에게 문화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도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각 문학관의 운영자들도 이러한 주변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표 2-26〉 지역문화관 인근 문화관광자원

위치	문화관 명	인근 문화관광자원
강원도	김삿갓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삿갓 묘역, 김삿갓 계곡, 마대산 · 조선민화 박물관, 영월곤충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영월서강미술관, 영월화석박물관, 묵산미술박물관, 호안다구박물관 등 박물관 특구지역 · 동강, 서강, 고씨동굴, 태백산맥-소백산맥 접경지역, 김병연 선생유적지
	김유정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물 : 당간지주, 칠층석, 청평사 회전문 · 중요민속자료 : 청풍부원군 상여(김유정의 9대조부)와 국립춘천박물관 · 문화유적지:혈거유지, 천전리 지석묘군, 삼악산, 적석총, 청풍부원군묘역, 장절공묘역, 봉의산성, 백로 · 왜가리 번식지, 중리 고분군, 신매리 석실고분, 청평사지, 의암유인석 묘역 · 문화재 : 소양정, 청평사삼층석탑, 월송리 삼층석탑, 삼악산성지, 채재근 전통가옥, 민성기 전통가옥, 김정은 전통가옥, 방동리 고구려고분, 한백록 묘역 및 정문 · 기타 : 춘천호, 소양호, 의암호, 국립춘천박물관, 남이섬, 중도, 고슴도치섬, 삼악산, 구곡폭포 외 3폭포, 도립화목원, 집다리골, 휴양림 등
	만해문학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설악 예술인촌, 산촌민속박물관, 백담사
	이효석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효석문화제(매년 9월), 대관령 눈꽃축제(1월), 진부 송어축제(1월) · 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허브나라, 무이예술관, 월정사, 대관령목장 등
	토지 문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백운산 자연 휴양림, 천은사 계곡, 농악전수관(준비 중), 박경리 문학 공원
경기도	만해 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산성, 행궁 등 250여개의 문화유산, 삼학사 등
	조병화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맞춤박물관 · 청룡사, 칠장사, 3.1운동기념관, 미리내성지, 남사당전수관,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에버랜드, 민속촌
	청류재수목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운문학관(조병화 문학관), 박두진 집필실 및 연구자료실, 미평문학관(김윤배)
경상남도	경남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달진문학관, 진해벚꽃 군항제, 해양관광공원, 안골왜성, 환경생태공원
	김달진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홍사 (사찰), 대장동 자연발생 계곡, 구천계곡, 웅천도요지, 안골왜성, 안골포 골강, 명동왜성, 웅천읍 성동, 이순신장군 해전지, 시립박물관, 진해해양공원, 진해식물원, 황포돛대노래비, 신행만, 흰돌메공원, 삼포가는길 노래비, 진해예술촌
	마산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시립박물관, 문신미술관, 마산음악관, 국립 3.15묘지, 3.15아트센터
	박재삼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산공원, 노산공원 내 시비(詩碑), 창선-삼천포 대교 관광유람선, 항공우주박물관
	이병주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문화축제, 대봉감축제, 벚꽃축제, 섬진강여름축제, 코스모스축제
	청마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마선생 시비 및 흉상 설치(청마 거리), 남망산 공원 - 유명예술인 시비, 김춘수 유품전시관 (임시 건물), 윤이상기념관(2010년 완공 예정), 박경리문학관(2010년 완공 예정)
	평사리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계사, 칠불사, 화계장터(소설'역마'의 무대), 청학동,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노랑 앞바다 · '최참판댁'이라 불리는 관광단지내의 최참판댁(문학속 공간 한옥건축물), 평사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전통 한옥체험관

위치	문화관 명	인근 문화관광자원
경상북도	구상문화관	· 거산산성, 송림사, 다부동전적기념관, 가실성당
	백수문화관	· 직지사, 세계도자기박물관
	동라목월문화관	· 불국사 관광단지 인근 · 석굴암, 신라를 빛낸 인물관
	이육사문화관	· 도산서원, 퇴계종택, 농암(이현보)종택, 오천유적지, 국학진흥원, 산림과학박물관, 퇴계선생퇴실, 퇴계묘소, 왕모산성, 예던길(강변오솔길), 도산온천
부산광역시	요산문화관	· 범어사, 을숙도, 낙동강 하구언 에코센터
	이주홍문화관	· 금강공원 및 금정산, 동래온천, 온천천공원, 총렬사, 우장준기념관, 동래읍성, 복천박물관
	추리문화관	· 축제: 해맞이축제, 달맞이온천 축제, 부산국제연날리기대회, 해운대모래축제, 모래작품전, 문탠로드 걷기행사(달맞이), 해운대 Beach Festival, 바다무용제, 부산바다축제, 달맞이연덕철학축제, 한일 친선 해변걷기 대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 해운대미술작가전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 서울	· 남산, 한옥마을, 애니메이션 센터, 청소년유스호텔, 명동
	영인문화관	· 가나 아트센터, 김홍수 미술관, 토탈미술관, 김종영미술관, 가인갤러리, 그로리치 갤러리
	한국현대문화관	· 남산 소월시비, 문학의 집 서울, 남산 한옥마을
	한무숙문화관	· 장면가옥, 집풀생활사박물관, 최순우 옛집, 심우장, 이태준 고택
전라남도	목포문화관	· 갯바위해양관광단지 · 문화예술회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생활도자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
	조태일시문학관	· 곡성팔경, 태안사, 섬진강 자연학습원
	한국가사문화관	·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가로수, 관방제림, 금성산성, 추월산, 대나무박물관 · 소쇄원 및 정자(면양정, 송강정, 식영정, 환벽당, 명옥헌원림 등), 무등산, 화순온천
전라북도	아리랑문화관	· 백제시대 저수지인 벽골제
	채만식문화관	· 철새조망대, 서해낙조, 새만금방조제
	최명희문화관	· 문화시설: 한방문화센터, 교동아트,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문화센터 · 문화유적: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한벽루 · 기타: 전주한옥마을, 전주덕진공원
충청남도	만해문학체험관	· 지정 문화재: 도지정 기념물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 보물: 고산사대광보전, 도지정 무형문화재 결성농요(전수관 및 농사박물관) · 도지정 기념물: 결성읍성 · 관광지: 남당항 및 궁리포구, 오서산, 그림이 있는 정원
충청북도	농민문학기념관	· 난계국악당, 노근리 사건 현장, 월류봉 외 한천 팔경, 영국사 외 양산팔경, 삼도봉 민주지산 물한계곡 지통마, 직지사
	오장환문화관	· 속리산 국립공원 · 법주사, 만수계곡, 삼년산성, 서원계곡, 선병국가옥
	정지용문화관	· 육영수여사 생가, 장계관광지, 용암사 · 농심테마공원, 장용산휴양림
	충주문화관	· 관아공원, 탄금대, 탄금호, 우륵당, 중원고구려비, 중앙탑, 충주호, 월악산 · 삼색온천(수안보온천-백반석, 양성온천-탄산온천, 문강온천-유황온천), 중원문화벨트의 중심지

5. 지역문화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

-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역문화관들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요인 및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이는 우리나라 문화관이 초창기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문화관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확고하지 않음에서 기인됨. 그러므로 지역문화관이 활성화되는데 있어 장애요인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 판단되며, 이를 통해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문화관 현장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지역문화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이 지적되었음[〈표2-27〉 참조]
- 각 지역문화관들은 조직 및 인력, 예산 및 재정, 프로그램, 법률, 홍보, 시설, 행정 및 관리, 기타 부문 등에 있어서 지역문화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음
 - 조직 및 인력 부문에서는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시 공무원들의 경직된 정책적 마인드, 성수기 때 인원부족, 학예사 및 해설사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 제기
 - 예산 및 재정부문은 운영비 부족,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예산확보가 일정치 않음, 지속가능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책의 어려움,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부족, 매년 행사기획 단계부터 예산확보의 불안정으로 행사기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 상존 등의 문제점 제기
 - 프로그램 부문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 재원확보의 문제로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인원 제한 등의 문제점 제기
 - 법률 부문은 문화관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규재정 필요 및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문화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의 혜택 제한 등의 문제점 제기
 - 홍보 부문은 온라인 네트워크 부재, 도로 표지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제기
 - 시설 부문은 세미나실 등 부속시설 부족 및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 영상자료실 미비로 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제기
 - 행정 및 관리 부문은 문화관 운영 및 관리하는데 있어 행정적 지원 필요,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제기
 - 기타 부문은 문화관에 대한 기본정책 미확립, 지방정부의 문화관에 대한 치적위주의 건립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문화관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 부족, 정부차원의 글로벌화 노력 결여, 문화관 주변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 제기
- 이러한 지역문화관의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들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정부 및 각 지자체, 문화관 운영자들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또한 장애요인 및 문제점 해결을 통하여 각 문화관들은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표 2-27〉 지역문화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지역문화관 활성화 장애요인 및 문제점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시 공무원들의 경직된 정책적 마인드 · 설립주체인 지자체의 문화예술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부서 이동으로 인한 일관된 문화정책 부재 · 상근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필요(최소한 국민 4대 보험혜택) · 주말 및 휴가철 등 성수기 때 인원부족 · 학예사 및 해설사 확보의 어려움(외진 곳에 위치, 교통불편, 인건비 문제 등) · 인력지원이 6개월마다 지원되고 있어 연속성이 없음 · 문화관의 특성상 지원인력의 연령제한 폐지 필요 ·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인건비가 지원되나 학예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필요 · 인턴 등 배정받기 힘들
예산 및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나 도의 무관심으로 모든 경비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자금부족 · 지자체의 운영비 부족(인건비 등 재정적 지원의 현실화) · 문예진흥기금이 행사위주사업 등에 지원되는 평가항목으로 인한 어려움 · 문화제 등 지속가능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책의 어려움 · 매년 행사기획 단계부터 예산확보의 불안정으로 행사기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 상존 ·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예술경영 및 기획, 학예사 등) 확보의 어려움 · 리모델링 필요하나 예산부족 · 관리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 · 공정하지 못한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심사 · 예산확보가 일정치 않음 ·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축소로 인한 문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축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연수확대 필요 · 지방자치단체 운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부족 ·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부족 · 자원확보의 문제로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학생 및 일반인 제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규제정 필요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문화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의 혜택 제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표지판 확보의 어려움(도로교통법 상 표지판 제한됨) · 온라인 네트워크(홈페이지) 부재 · 온오프라인을 통한 문화관 홍보부족 · 리플렛 홍보물 제작의 어려움 · 다양한 계층에 적극적 홍보 필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실 등 문화관 부속시설 부족(수장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확장 등) · 부대시설 확충필요(휴게실, 공연장, 냉난방시설) ·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식사, 음료 등) · 영상자료실 미비로 교육의 어려움 · 문화관 관람객을 위한 숙박시설 미비 · 문화관의 위치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
행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 운영 및 관리하는데 있어 행정적 지원 필요 ·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 문화관 간 연계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대한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부족 · 문화관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 부족 · 정부차원의 글로벌화 노력 결여(예: 국제심포지엄 등과 연계) · 문화관에 대한 기본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장기적인 계획이 힘들) · 지방정부의 문화관에 대한 치적위주의 건립에 대한 의식전환 필요 · 생존작가의 문화관의 경우 문화관 협회 가입이 제한됨 · 문화관 주변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제3절

지역문화관 정책 및 지원 분석

1. 지역문화관 지원 정책 분석

1)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정책

- 지금까지 문학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하여 열악함.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균특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해주는 것이 전부였으며, 이후 문학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자체에 맡겨 놓은 상황임
- 200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문학관 건립에 따른 균특예산의 지원¹¹⁾은 <표2-2>와 같이 2002년 동리·목월 문학관에 12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2009년 시문학파기념관에 3억 원을 지원한 것 까지 총 25개의 지자체에 지원이 되었음
 - 균특예산 지원 25개의 문학관 중 현재 12개의 문학관이 개관을 하여 지자체가 운영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음
 - 아직 완공되지 않은 13개의 문학관은 현재 개관을 준비 중이며, 대부분의 문학관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정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전용공간지원(문학관 및 창작집필실지원) 사업을 각 지역에 있는 문학 관련 단체나 문학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금을 교부하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은 총 5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1단계는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금사업의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을 확정하고 지원심의 운영의 기본 방침을 확정, 이를 토대로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공고함
 - 2단계는 지원신청서의 접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제2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 8개 분야 10개 분과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심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함
 - 3단계는 지원신청 된 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과정으로 각 분야별 1차 지원심의회의가 개최된다. 심의방식은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분야별 심의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심의위원별 절대평가에 의한 개별 채점방식으로 이루어짐
 - 4단계는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과정으로 개최 됨. 2차 심의과정에서는 각 분야

11) 지원 근거는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비 지원사업

별 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인터뷰 심의를 개최하며, 각 지원 유형별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 배정(안)을 마련

- 5단계는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로서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3차 회의 및 4차 회의에서 분야별 지원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사업과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예술전용공간지원(문학관 및 창작집필실지원)에 대한 2009년 문예진흥기금 신청은 <표 2-28>과 같이 총 41개의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여 그 중 23개 프로그램 총 4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 문예진흥기금 중 창작집필실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7천여만 원으로 단위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외 창작교실, 육필원고전, 문학축전, 문학관 소장자료 조사 사업 등이 공모에 당선되어,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2천5백만 원의 문예진흥기금을 받음

〈표 2-28〉 2008년 ‘예술전용공간 지원’ 공모신청현황

단체명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심의결과
(사)열린시조학회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소통의 문학 - 문학관 순례	0	무
(사)요산기념사업회	요산문학관활성화사업	0	무
(사)이주홍문학재단	아동문학활성 및 문학관공간활용 지원	10,000,000	유
(사)한국문인협회	문학과 청소년의 만남	20,000,000	유
(사)훈불정신선양회	제7회 훈불문화제	10,000,000	유
(재)백담사만해마을	문인창작집필실 지원사업	70,000,000	유
(재)토지문화재단	2009 문인 창작실 지원사업	100,000,000	유
(재)한국현대문학관	문학인 영상자료 제작	25,000,000	유
경남문학관	시여! 춤추어라	16,000,000	유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문학관활성화사업	10,000,000	유
광주전남현대문학연구소	광주, 전남 문학진흥을 위한 초청강연	0	무
김원길	창작집필실 지원사업	0	무
김유정문학촌	제 3회 청소년 문학축제'봄.봄'	15,000,000	유
농민문학기념관	제4회 농민문학 포럼	10,000,000	유
만해기념관	제 5회 만해문학 어린이 백일장	0	무
목포문학관	목포!문학축전	20,000,000	유
문학을사랑하는사람들	문학을사랑하는사람들 육필원고전, 시화전과 시낭송 및 음악회	0	무
미당시문학관	2009 미당문학제	10,000,000	유
부산문화연구회	문학아 놀자-문학콘서트	16,000,000	유
부악문학관	창작집필실지원	0	무
삼성출판박물관	일제강점기~1960년대 소설 전시회 <소설, 문화콘텐츠의 아이콘이 되다>(가제)	0	무
세계여성문학관(숙명여대도서관)	주인과 함께하는 세계문학 산책 : 북미 문학과와의 만남	0	무
영양문화의집	2009 문향의 고장 영양군을 찾아서...	0	무
영인문학관	문인육필원고전	10,000,000	유
오장환문학제추진위원회	오장환문학축전	16,000,000	유

단체명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심의결과
원서문학관	제6회 원서문학관 시의 축제 -시와 그림과 글씨의 만남	0	무
이병주기념사업회	문학캠프	0	무
이효석문학관	이효석창작교실	10,000,000	유
정한숙기념관	문학을 따라서	16,000,000	유
조병화문학관	시, 그림, 가곡 전시 및 공연 <하루만의 위안-편운, 시를 쓰다 그리다 노래하다>	10,000,000	유
조태일문학관	조태일문학관 청소년 창작학교 및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	10,000,000	유
진해시김달진문학관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시아, 놀자프로그램 운영	16,000,000	유
최명희문학관	문학과 미술, 젊은 창작인들의 장서표 제작 및 전시회	0	무
추리문학관	2009 추리문학창작교실	10,000,000	유
추리문학관	추리문학 페스티벌	0	무
하동 평사리문학관	문인집필실 운영	0	무
하동 평사리문학관	전국 청소년 한옥체험 및 문학교실 (옛 생활에 스며 있는 문학 옛보기)	10,000,000	유
한국가사문학관	제10회전국가사문학제	10,000,000	유
한국문학관협회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연수	0	무
한국문학관협회	전국 문학관 소장자료 조사 사업	25,000,000	유
한국문학평화포럼	2009 신나는 문학관기행	0	무
현대문학	현대문학과 함께하는 즐거운 책읽기	0	무

2. 지역문학관 정책 및 지원의 문제점

1) 시설 건립 위주의 지원 정책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학관 관련 사업 지원정책은 주지하듯이 균특예산을 통한 문학관 건립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임
 -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예산비율이 대체적으로 3:7의 비율(국고예산:지자체예산)로 정해져 있음. 하지만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은 지자체는 국고예산을 신청하여 예산 배정이 되더라도 잔여 건립비용을 지자체에서 충당하지 못하여 문학관의 건립이 공정예정시기보다 늦어지는 결과가 나타남
 - 이로 인하여 자연히 문학관 운영의 동력이 낮아지고, 때로는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더불어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지자체 예산의 상당부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문학관 개관 이후에는 문학관 운영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지자체나 민간위탁운영 단체들이 호소하고 있음

2) 문학관 건립 예산 배정에 있어 선결요건 검토의 부재

- 지자체에서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신청을 하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배정을 하고 있음
- 국고예산지원에 대한 신청은 지자체가 정부에 사업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내역, 향후 일정별 사업 추진계획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함. 이중 사업개요 부분에 주목을 하면,
 - 사업목적의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지자체가 배출한 유명 문인에 대한 문학관 건립이 1차 목적이고,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 문화관광 사업의 활성화가 주요 목적임
 - 더불어 유명 문인을 내세우는 지자체는 유명문인의 문학 정신을 지역민이 향유하게끔 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 이 사업의 목적임
 - 하지만 이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목적은 결국 문학관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심의에 있어 구체적인 선결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정부는 예산배정심의에 있어 가장 좋은 명분을 가진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하기에 문학관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음
-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학관 건립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학관 건립이 연기되면 문학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떨어지며, 더불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관의 부지 역시 지역주민이 문화기반시설로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위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문학관의 인력 역시 지자체 문학관 담당자들의 문학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의 결여로 문학관 활성화 위한 저해요소로 지적됨
- 그러므로 현재 주지된 문제 해소를 위하여 문학관 건립 예산 배정 심의에 있어 우선적으로 문학관 건립 선결요건을 마련하여 이를 심의에 참조할 필요가 있음

3)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예산의 미비

- 현재 문학관 운영,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만이 유일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임
 - 주지하듯이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문학관 담당자들이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대부분의 문학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참가하지만 5억여 원의 예산으로 전국 45개 문학관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더군다나 이 예산의 30~40%는 창작집필실에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작 이외 프로그램에 공모한 문학관이 매년 안정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받는 것이 어려움
 - 이상과 같이 문학관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생각되는 문학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은 절대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예측성과 기대감을 상실하게 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제3장

지역문화관 현황 및
실태

제1절

외국의 지역문화관 운영 사례¹²⁾

1. 유럽의 문학관

1) 셰익스피어 센터

-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븐은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문화상품임
 - 셰익스피어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생가와 학교(그래머 스쿨), 런던에서 성공 후 돌아와 살던 대저택(뉴플레이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교회(홀리 트리니티), 그의 가족들이 살던 집 등이 모두 문화상품임
- 왕립 셰익스피어 극장에서는 1년 내내 그의 작품을 상영하며, 셰익스피어로 분한 광대들은 행인들을 반기고, 상가들은 셰익스피어를 앞세워 기획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음
- 셰익스피어 센터(개장 1964년)는 그의 생애와 가족사, 작품세계를 사진과 도표로 소개함
- 셰익스피어 생가는 셰익스피어의 사소한 흔적들을 보존하고 복원하여 1570년대의 일상과 풍경을 전하고 있으며, ‘영국 셰익스피어생가재단’에서 이곳을 통합관리하고 있음
 - 셰익스피어의 생가에는 각 방마다 해설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생가 주변은 그의 작품에 등장했던 꽃과 나무들로 꾸며져 있음
 - 전시관과 생가를 지나는 출구에 기념품 상점을 두어 관람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 2층 유리창에 나다니엘 호손, 토마스 카알라일, 윌터 스코트, 존 키츠, 마크 트웨인, 헨리 롱펠로우, 찰스 디킨즈의 사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그림 3-1] 셰익스피어 생가1



[그림 3-2] 셰익스피어 생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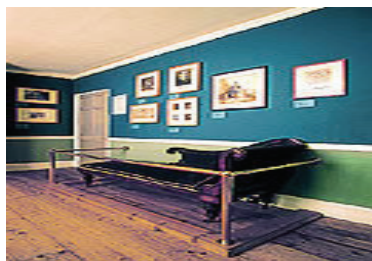
¹²⁾ 외국의 지역문화관 운영사례는 「작가의 눈」(전북작가회의, 2008), 「문학관」(한국현대문학관, 2008), 「경기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관 정책연구」(경기문화재단, 2006), 「꿈」(조병화시인기념사업회, 2008), 문학관협회에서 주최한 외국문학관순례 기행문, 그리고 각 외국문학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

2) 제인 오스틴 기념관

- 영국 햄프셔주 초튼(Chawton)은 제인오스틴이 주요 작품을 완성한 공간이며 생의 마지막을 보낸 장소로서 ‘제인오스틴기념재단(1947년)’이 제인오스틴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음
- 기념관은 옛 영국의 전통과 풍습을 느낄 수 있게 보존되어 있으며, 그 시대의 의상, 가족의 이력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 제인 오스틴의 작품무대는 시골의 고요한 일상이며 단조롭고 평범한 생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소소한 일상이 투영되어 있음

3) 찰스 디킨즈 박물관

-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근처에 위치해 있는 도우티가(The Doughty Street) 48번지의 빅토리아풍의 건물은 ‘디킨즈펠로우십(설립 1902년)’에 의해 유지되어 오다 1925년부터 ‘찰스디킨즈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옴
- 찰스디킨즈박물관은 디킨즈가의 족보와 일러스트, 각종 삽화들, 연재된 신문들 등 다양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서재, 침실과 부엌 등 그대로 보관되어 전시됨
 - 디킨즈의 삶과 관련된 그림, 희귀한 발행물과 원고, 원래의 가구와 많은 기타 물건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영상물 상영
- 문학인들이 남긴 원고와 작업노트, 편지, 사진, 메모 등은 새로운 창조 작업의 토대가 되며 자료들을 모으고 보존함으로써 후세에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3-3] 찰스 디킨즈 박물관



[그림 3-4] 박물관 전시물

4) 안네 프랑크 하우스

- 안네 프랑크가 나치를 피해 일기를 썼던 은신처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의 집(The Anne Frank House)은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음
 - 1635년에 세워진 안네 프랑크의 집은 ‘협력자’들이 일했던 장소이자 아버지의 사무실로 쓰였던 앞 건물과 안네 가족이 숨어 있던 뒤쪽 건물로 나뉨

- 각 방들은 벽마다 안네의 일기 일부분이 적혀 있고 각종 시청각 자료가 흘러나와 은신하던 시기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함
 - 안네 가족이 사용한 실제 물건들은 뒤쪽 건물에 전시되어 있으며 실제 그 당시 갇힌 삶을 엿볼 수 있음

2. 미국의 문학관

1) 마크 트웨인(Mark Twain) 생가와 박물관

-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 생가는 들어가는 코스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관광객이 잘 구경할 수 있게 관광지화 됨
 - 생가 근방에는 『톰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동굴이나 등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이 모든 환경이 소설 속의 생생한 모델로 재연된 것과 같음
 -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마크 트웨인’이 미시시피 강과 숲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녹아 있음
- 생가는 그대로 복원되어 있으며 부부침실과 아이들 침실, 마크 트웨인의 서재, 마크 트웨인의 동상을 그대로 만들어 놓아 현실감이 느껴지게 했음

2) 알렌 포우의 포우 코티지(Poe Cot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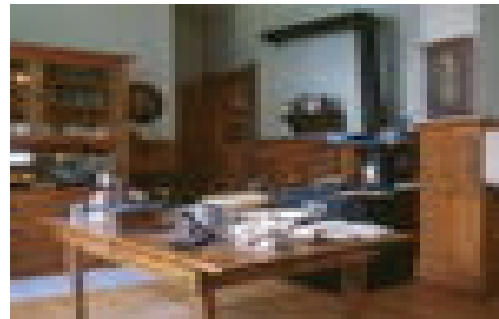
- 포우 공원(Poe Park) 북쪽의 목조건물인 포우 코티지(Poe Cottage)는 1812년에 세워진 하얀 2층 건물이며 포우의 기념관임
 - 기념관 1층은 전시실로 포우가 앉았던 흔들의자, 그들 부부가 살던 시대의 가구, 집기, 그릇들과 사진, 동상 등이 전시되어 있음
 - 2층은 버지니아가 숨을 거둔 침대가 놓인 작은 방과 포우의 생애와 포우 코티지를 소개하는 비디오 영상실이 있음
- 포우는 시와 소설의 이론을 개척하고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만들었으나 당시 일반적인 미국인의 엄격한 청교도 사상에 크게 위배되는 문학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 포우의 대표작은 「에너벨 리(Annabel Lee)」, 「종(The Bells)」, 「검은 고양이」 등 서정적인 시들과 공포와 슬픔이 공존하는 작품들을 남김
- 포우 코티지는 현재 브론즈역사학회(The Bronx County Historical Society)에 의해 관리되고 뉴욕시를 비롯하여 여러 기업과 개인들의 도움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음

3)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 있는 헤밍웨이 기념관에는 헤밍웨이 기념관에는 헤밍웨이 박물관, 서점, 기록물 보관소가 있음
 - 소장품으로 800장의 사진과 옷, 액세서리, 가구, 미술품, 결혼식 초대장 등이 있음
 - 기록물 보관소에는 2300권의 책 외에 신문기사, 사진, 팸플릿, 영화 포스트 등이 있음
-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은 헤밍웨이 재단(Ernest Hemingway Foundation)에서 운영 중이며, 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4시간 이상을 봉사하고 있음



[그림 3-5]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전시물 1



[그림 3-6]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전시물 2



[그림 3-7]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전시물 3



[그림 3-8]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전시물 4

- 생가 기념관에서는 문학강연 프로그램과 헤밍웨이 작품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음
 - 해마다 헤밍웨이 작품 콜로키움, 공공 강연, 탄생지 관광 등을 후원하고 있음
 - 매년 헤밍웨이 단편소설 독후감 공모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음

4) 월트 휘트먼 생가와 통역센터

- 월트 휘트먼 생가는 시인의 아버지가 1819년에 세운 농장 집으로 뉴욕 주의 역사적 건물로 보존되고 있음
 - 월트 휘트먼의 원고, 책표지 등과 옛날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음
- 통역센터에는 휘트먼의 초상화와 편지, 원고, 공예품, 목소리 녹음물 등이 있음
 - 가이드가 안내를 하며, 오디오, 비디오쇼 등을 하며 도서관, 박물관, 가게, 서점 등이 있음
- 월트 휘트먼 탄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낭송, 강연, 콘서트 등 이벤트성 행사, 그리고 마을 언덕을 하이킹하는 ‘하이킹 투어지도’가 준비되어 있음
 -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와 휘트먼 생가 건축,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내용임
 - 서점에서는 휘트먼의 시가 담긴 오디오와 비디오 물, 시집과 팸플릿 등을 판매

3. 일본의 문학관

1) 일본 도쿄 근대문학관

- 일본 도쿄 근대문학관은 박물관과 도서관을 겸한 문학관임
- 도쿄 근대문학관은 당 시대에 활동했던 문인 관련 자료와 문학서적 등 각종 출판물을 망라하고 있으며 약 120만점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음
 - 도쿄 근대문학관은 근대문학 자료가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하였으며, 일본의 문학관들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우선으로 삼고 있음
 - 문학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중들에게도 확산되어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근대문학의 경계인 인문사회과학 연구 분야의 자료가 있으며 후대 문학인들이 채워야 할 공간까지 남겨두었음
-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전문연구가들과 함께 새로운 출판물로 제작·출판해서 얻은 수익으로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음
 - 특히 귀중한 자료들은 연구를 목적으로 열람하게 함으로써 연구가들의 손에 의해 전혀 새로운 결과물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복각본 작업을 하고 있음
 - 수장고의 자료들은 18세 이상이면 내·외국인 누구라도 신청해 볼 수 있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료를 신청하면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음
- 문단과 학계, 언론 관계자들이 재단법인을 만들고 설립한 이래 관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한편 도쿄근대문학관은 전국 문학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3-4] 일본 근대문학관



[그림 3-5] 일본 근대문학관 전시물

2) 가나가와 근대 문학관

- 가나가와 근대문학관은 가나가와가 지닌 문학유산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워짐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일본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자 시마자키 도손,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다니자키 준이치로, 일본 근대 문학의 시초로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 오오카 쇼헤츠, 나카즈마 쓰시, 오자키 가즈오 등이 집필활동을 하였음
 - 가나가와 근대문학관은 1984년 설립되었으며, 요코하마 항이 내려다보이는 미나토노 미에 루오카 공원 정상에 위치해 있음

- 문학관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제일로 꼽히고 있으며 본관과 전시관 2개동으로 구성된 문학관에는 3곳의 서고와 전시실, 회의실, 공연장 등이 있음
 - 가나가와 근대문학관은 100만점 이상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의 80%이상이 개인 또는 출판사 기관 단체들로부터 기증받은 것들임
 - 가나가와문학관 1층에는 비디오부스가 있는데 노래방시설처럼 번호를 누르면 해당 작가에 대한 설명이 화면으로 흘러나오는데, 노벨상 수상작가에서부터 대중소설가 까지 빼곡하게 담겨져 있음
 - 지하에는 책 보관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항온제습시설이 갖춰진 수장고가 있음
- 지역주민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장소와 여유의 시간을 만들어 주기위하여 만화영화와 교육용 비디오,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음



[그림 3-6] 가나가와 근대문학관 전시관

3) 가마쿠라 문학관

- 에도시대의 유명한 무사가문인 마에다 가문의 별장을 개축해 가마쿠라와 관련된 문학인 300여명의 자료를 모아서 1985년에 개관하였음
 - 일본의 대표적 문화도시인 가나가와의 영주였던 마에다 가문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학문을 장려하기로 유명했었는데, 후손이 땅과 건물을 가마쿠라 시에 기증하였음
- 가마쿠라문학관은 연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문학관이 대중과 소통하는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음
 - 가마쿠라 문학관은 주변 환경도 빼어나며 다양한 기획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음
- 관광지인 가마쿠라문학관은 지역 주민들의 연령층을 고려해 다양한 장르의 행사들을 기획함

-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문학관의 여유 공간은 동네 아이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음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획전시를 하는 이유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 책이며, 관람객을 늘리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이나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4) 오사라기지로 기념관

- 「쿠라마 텐구」로 잘 알려진 소설가 오사라기지로(1897~1973)의 삶과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음
- 자필원고와 저서의 초판본, 연구서 등이 전시돼있고 서재도 재현해 꾸며졌음
 - 작가 사후 유족들이 작가와 관련된 모든 유품을 요코하마시에 기증했고, 시는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78년 기념관을 옴
- 기념관의 운영은 민간단체인 가나가와현 예술문화진흥재단이 맡고 있음
 - 시에서는 약간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5) 미야자와켄지 기념관

- 미야자와켄지 기념관은 시나 동화, 교육, 농업, 과학과 같은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 켄지의 세계를 친숙하게 보여주기 위해 1982년 개관됨
- 연간 20만 명 넘게 방문하고 있으며 켄지의 애용품, 원고 등 켄지와 관계되는 물건 이외에 비디오나 슬라이드, 도서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음
 - 미야자와 켄지의 작품을 보존·관리하고 작품을 통한 교육의 장, 하나마키시 출신 문학가의 소개 등 관광장소로서의 역할 수행
 -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동화마을을 건립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기획전을 통해 매년 그림을 이용한 동화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음
- 학교수업의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학회의 거점으로서 전문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음

6) 세타가야 문학관

- 세타가야 출신 100명 이상의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관련 기관이 건립되게 되었으며 1995년 7월 문학관이 설립되었음
- 문학관을 운영하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지자체에 운영을 부탁하였으며, 현재 세타가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 보존 기능의 하나로 작가의 자료 보관 및 원고가 정리되어 있으며, 문학의 생활화를 위해서 눈으로 보는 전시뿐만 아니라 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중요시하게 하고 있음
- 그 밖의 출판기능으로 세타가야와 관련된 각종 서적 출판과 문학자 탐방, 문학에 관한 특집이나 정보, 세타가야 문학상 상위입상작품을 게재하는 문예세타가야를 25회 출판하고 있음

제2절

외국의 지역문학관 프로그램 분석¹³⁾

- 미국의 헤밍웨이 생가기념관은 문학강연 프로그램, 작품토론 공공강연, 단편소설 독후감 공모 등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탄생지를 둘러보는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월트 휘트먼 생가와 통역센터는 시낭송, 강연콘서트,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휘트먼 생가의 건축 및 지역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의 찰스디킨즈 탄생 기념관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이것과 차별화되어 영어, 지리, 수학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셰익스피어 센터는 ‘셰익스피어 연구의 날’, ‘가족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희곡 및 무대역사 등의 강연, 토론 등 다양한 학문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국현대문학관은 잘 조성된 숲속에 자리 잡았으며, 국내외 미술, 조각,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문학좌담회, 연구토론회, 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기념관, 고리키 기념관, 솔로호프 문학박물관과 기념관 등은 작가의 유물 보관 및 전시하는 기념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독일의 하인리히 만과 토마스 만 기념관은 작가를 연구하는 학회를 결성하고 모임을 확대하여 작가연구의 전시회와 학술회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일본의 미야자와켄지 기념관과 세타가야 문학관의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한 기획전시, 필름 페스티벌, 문학대학, 학교수업의 커리큘럼과의 연계 등 지역의 문학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출판 등 다양한 부가적 기능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외국문학관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표 3-1〉]

13) 경기문화재단(2006)의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 중 외국사례 참조

〈표 3-1〉 외국문화관 프로그램 사례

국가명	문화관 명	관 광	프로그램	비 고
미국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탄생지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강연 프로그램 • 헤밍웨이 작품 독서토론 프로그램 • 공공강연 • 헤밍웨이 단편소설 독후감 공모 	-
	윌트 휘트먼 생가와 통역센터	하이킹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낭송 • 강연 콘서트 • 교육프로그램 	지역의 역사와 휘트먼 생가의 건축 및 지역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영국	셰익스피어 센터	가든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학문적 프로그램 • 결혼식 • 가족의 날 • 셰익스피어 연구의 날 • 희곡 및 무대역사에 대한 강연 • 배우들과 다른 극장 수련생들과의 토론 	-
	찰스 디킨즈 탄생 기념관	-	• 다양한 종류의 학습 프로그램 제공(영어, 지리, 수학, 미술, 역사 등)	10개의 언어로 관람객 안내
중국	중국현대문학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좌담회 • 연구토론회 • 강연회 	잘 조성된 숲속에 자리 잡았으며 국내외 미술, 조각, 공예품 등을 전시
러시아	도스토예프스키 기념관	-	-	유물을 보관 및 전시하는 기념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함
	고리키 기념관	-	-	〃
	솔로호프 문학박물관과 기념관	카자흐식 마을축제	• 작가의 육성 녹음을 통해 ‘고요한 돈강’을 낭독	-
독일	하인리히 만과 토마스 만 기념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인리히 만 연구모임〉이란 정기간행물 제작 • 토마스 만 연구의 전시회와 학술회의 • 토마스 만 메달수여 	작가를 연구하는 학회를 결성하고 모임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음
일본	미야자와켄지 기념관	동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을 이용한 기획전시(동화) • 학교수업의 커리큘럼과 연계 	학회의 거점으로 전문교육장 역할
	세타가야문학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전시(그림책전, 영화자료전 등) • 문학살롱(문학회, 낭독회, 토크&콘서트) • 문학산책, 세타가야 문학 주간 • 세타가야 필름 페스티벌 • 문학대학 • 젊은 독자를 위한 문학 강좌 • 여름방학 어린이 문학관 	출판기능도 담당

제3절

외국의 지역문학관 특성과 시사점

- 지역문학관은 한 작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국가별로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관광 상품과의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각 국가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은 셰익스피어라는 한 가지 상품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원 소스 멀티유스 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냄. 또한 이미지보다 문학본연의 향기를 내세우고 있으며, 생가나 작품배경과 결합하여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효과도 증대시키고 있음
 - 또한 한 작가를 기념하는 공간이 여럿인 경우도 있는데, 영국의 큰 도시는 대개 제인 오스틴을 기리는 기념관이나 기념물이 있으며, 초튼의 제인오스틴 하우스, 소설 「설득」의 주요무대인 바스, 투병생활을 했던 윈체스터에 기념관이나 기념물이 있음
 - 각 문학관들은 대부분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지만 기업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기도 함. 찰스 디킨즈 뮤지엄과 제인 오스틴 하우스는 작가를 사랑하는 지역 유지들이 재단을 설립하여 1백년 가까이 운영되어 오고 있음
 - 문학관에서 문학관 전경과 전시물을 담은 엽서, 작가의 사진이 그려진 편지지, 문학관과 작가의 이니셜이 들어간 필기도구, 가방, 액자, 열쇠고리, 머그잔, 시계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 미국은 지역주민의 문학관 참여도를 높이고 있는데,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의 경우 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고 있음.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도 지역대표, 학자 연합체, 기부자와 사업가 등의 고문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의 문학관은 박물관과 문학관, 도서관의 기능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음. 또한 전시공간보다 훨씬 더 넓은 수장고를 갖추고 있으며, 문학관 건립에 앞서 3년에서 30년까지 자료수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또한 문학을 매개로 효율적인 문화공간이 되고 있으며, 대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머물고 싶은 문학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30년 동안 북해도 문학의 흩어진 자료들을 모두 모아 집대성한 홋카이도 도립문학관, 5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11만점을 자료를 준비한 후 지속적인 자료구입으로 60만점의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 아오모리현 근대문학관, 120만점의 근대 문학관련 자료를 소장한 동경근대문학관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만으로도 문학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기록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의식에서 기인됨
 - 문화공간의 예로서 시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후 무료 커피숍을 운영하며 시민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오타루문학관이 있으며, 울창한 숲 속에 지어진 「빙점」의 작가 미우라아야코기념관, 도심에 조성되어 나카지마 공원경관을 그대로 담아낸 홋카이도 도립문학관, 미나토노미에루오카공원에 있는 가와가나 근대문학관 등은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문학관의 사례임
 - 공원 속의 문학관은 녹지공간과 문화시설의 조화를 보여주며 가벼운 운동이나 여유로운

산책과 사색을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문학관 설립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학관설립을 추진하였음, 또한 설립과 함께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체조직도 지방정부가 지원한 이후 운영은 법인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재)가나가와문학진흥회와 가마쿠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20여년 넘게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음
 - 일본의 지방정부는 지역 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각 문학관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있음
- 유럽의 문학관에서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문학관 특징을 찾아 기념품판매부스를 운영하고 있음
 - 조사와 수집, 정리와 보존에 초점을 맞춘 도쿄와 가나가와 근대문학관은 영인본과 육필원고집, 작가의 친필그림 등이 주요 판매물품임
 -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내세운 가마쿠라문학관은 손수건과 거울, 수첩과 펜, 엽서 등 싼값의 소품들을 판매함
 - 개인문학관인 오사라기지로 기념관은 작가 애장품의 복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외국 지역문학관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문학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기함
 - 문학관 위치 및 공간조성: 문학관 건립 시 공원이나 숲 등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함. 또한 예술작품 등과 조화 및 지역민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친화적 공간으로서 주변조성을 유도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지향
 - 문학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 학술연구의 거점, 그리고 학교수업의 커리큘럼과의 연계, 체험학습의 장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기능 강화
 - 문학관 운영에 있어 후원제도 모색: 문학관이 점차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의 후원확대 모색필요
 -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문학관 역할 강화: 문학관이 지역민 및 지역작가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을 매개로 한 문학관의 ‘사랑방(북카페)’ 역할 지향
 - 지역민의 참여도 증대: 문학공모사업의 경우 지역대표, 학자 연합체, 기부자와 사업가 등의 고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제도 등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증대
 -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증대: 생가나 작품배경, 그리고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시너지 효과증대
 -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문학자료 보관소로서의 역할 강화: 수장고 등을 확충하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자료수집에 대한 중요성 및 작가 사후 기증 등 유도필요
 - 기념품 개발 및 판매: 기념품 판매부스운영을 통해 작가 및 작품과 연계된 독특한 기념품 상품개발전략 및 수익창출 필요
 - 문학관이 지역문화자산임을 인식: 문학관이 지역문화자산임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문학관 알리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제4장

지역문화관 운영 활성화
정책 개발

제1절

지역문학관 정책개발의 방향 및 추진체계

1. 문학관 정책개발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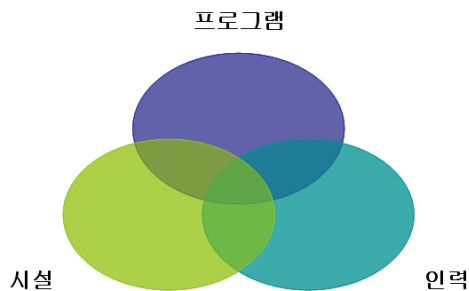
- 문학관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문학관을 둘러싼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 증대
 -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자생력 강화
 - 지역민 개인의 창의적 감수성의 시대로 진입
 - 지역주민의 문화력 증진 위한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화
 - 지역문화기반시설을 매개로한 문화동아리의 활성화
- 둘째, 시설+인력+프로그램을 갖춘 지역문화기반시설로서 문학관 위상 강화
 - 문학의 향기 느낄 수 있는 시설 디자인 설계 및 보완
 - 시설관리인력과 프로그램 인력의 이분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문학성과 지역성 담보한 문화콘텐츠 개발위한 지역문화시설간의 교류프로그램 강화
 - 문학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 위한 홍보
 - 문학관 위상강화를 위한 개별 문학관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노력
- 셋째, 문학성+지역성을 결합한 문학콘텐츠로 문학관의 정체성 확립
 - 기존 프로그램에 문화마케팅과 문화예술교육관점의 도입
 - 문학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문학관 프로그램 지원 위한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양성
 - 지역문인 및 문학 동아리 프로그램의 다양화
- 넷째, 문학관 위상 강화를 위한 협회의 지원
 - 지역문학관 지원 위한 정책적 마인드 제고
 - 지역문학관 시설, 인력, 프로그램 강화위한 컨설팅 기구 설치
 - 지역문학관의 위상 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 및 실행
 - 지역문학관간의 교류지원 및 홍보
 - 지역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다섯째, 지역문학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문학관 조례¹⁴⁾ 통한 지원방식의 공고화로 운영의 정확성과 수월성
 - 지역문화기반시설로 문학관 위상 제고 위한 법적 근거마련
 - 균특예산의 지속지원과 문학관 건립 및 시설지원의 확대

¹⁴⁾ 부록1에 제시한 표준 조례(안) 참조

- 지역문학관의 위상강화 기구인 문학관협회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지역문학관 운영매뉴얼 및 지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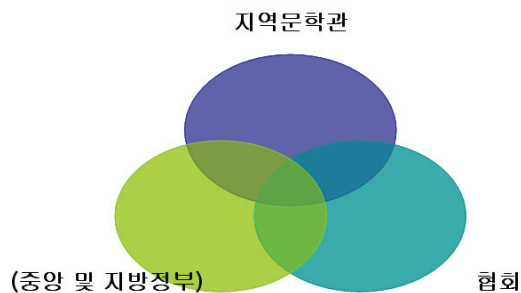
2. 문학관 정책의 추진체계

- 문학관 정책지원의 개념설정
 - 지역문화공간이자 지역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
- 문학관의 현재적 기능
 - 기념관 및 전시관의 기능: 특정 또는 지역문인 기념전시관, 근현대문학과 특정 장르 특화하기 위한 전시관
 - 창작집필실의 기능: 작가들의 창작 공간
 - 지역문화시설의 기능: 지역민들의 문학적 깊이 공감과 문화향수 저변확대
- 지원정책의 핵심 요소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처럼 문학관 역시 시설, 인력, 프로그램이 핵심요소



[그림 4-1] 지역문화기반시설의 3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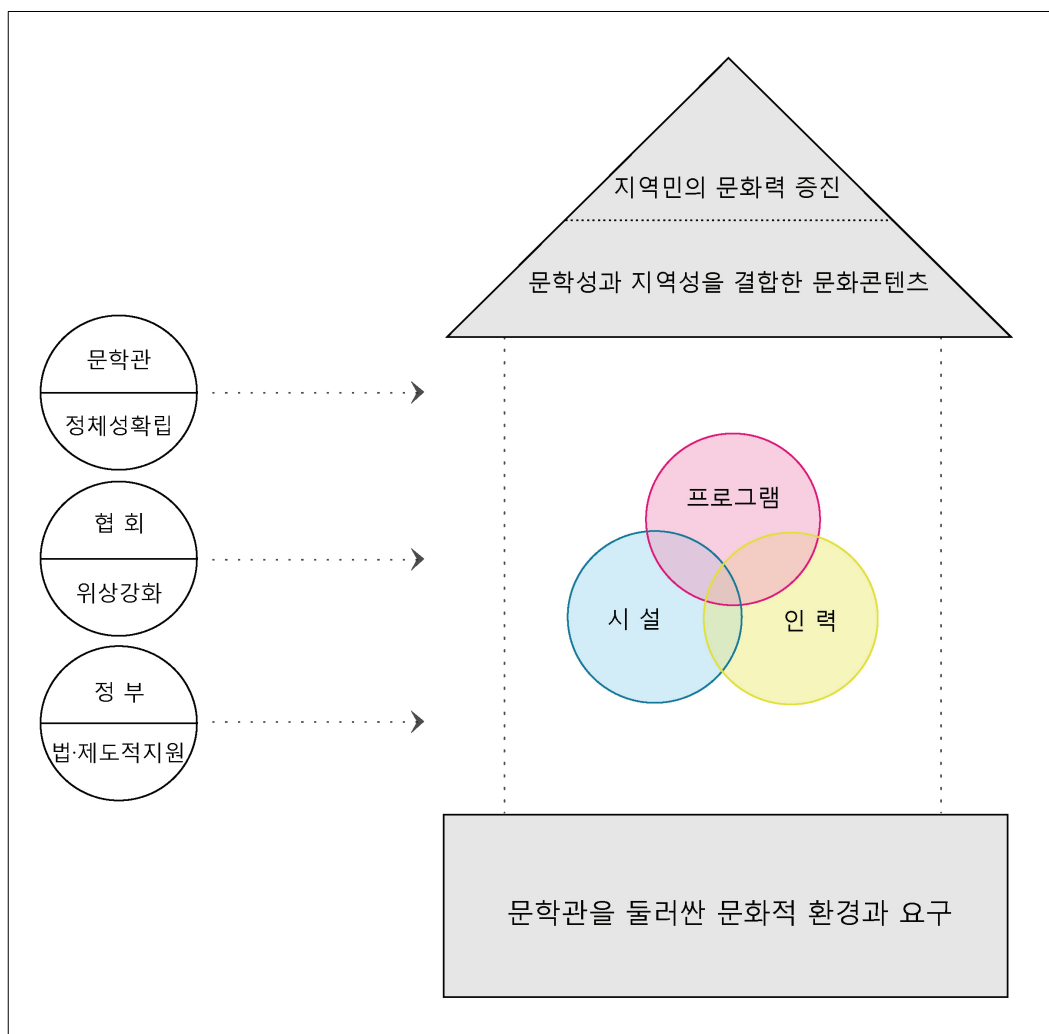
- 문학관 운영활성화의 주요 주체
 -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문학관, 문학관협회의 역할분담에 의해 추진



[그림 4-2] 문학관 활성화 정책개입의 3대 주체

○ 문학관 운영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개념도

- 고려사항: ‘문학성과 지역성’(인물, 지역 등 문화유산으로서 가능성 설정) 담보
- 목표: 발전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문학관 정체성과 위상 정립’으로 압축됨. 따라서 정부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 요구
- 발전방안: 지역문화시설로서 공간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설지원근거(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력의 전문화’(관리직과 학예직(사업담당)의 이분화)에 우선순위
- 지역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개념도는 다음 [그림4-3]과 같음



[그림 4-3] 문학관 발전 방안 개념도

제2절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방안

1.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1)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문학관 포함

- 광역단위 또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지역문화발전 중장기계획에 문학관 정책도 포함시키도록 함
 - 실효성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문화관에 대한 지자체장을 비롯한 행정직 공무원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우선 제기 됨
 - 지자체장의 임기 내 업적으로서만 내세워져 실제 문학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는 소홀함
 - 향후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함
 - 문학에 대한 지역민의 향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문화발전의 한 방편으로 문학관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 기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문화원,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지역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지자체나 혹은 민간자율에 의하여 지역문화발전 테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하여 지역문화시설간의 상호네트워크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문화관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지역문화관 건립계획 시 중장기계획을 세워 건립 이후 일정과 사업계획을 예산수립과 함께 설정하도록 하여 이행하도록 함
 -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 등의 방침을 세우고, 소요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지속사업과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광역단위 또는 기초단위지자체의 지역문화발전 중장기계획에 문학관 정책도 포함시키도록 함
- 지자체 직영 또는 민간위탁의 경우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문학관 정책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임
 - 하동군의 경우, 2008년 이병주문학관을 건립하면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2008.04.10 조례1827호)를 제정하고 선양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있음
 -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방문자 현황, 문화행사 추진현황 등 파악을 통해 문학관 접

근성 부족에 따른 조치¹⁵⁾, 문학관 예산확보 및 사업, 홍보계획,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¹⁶⁾(위탁단체인 이병주 기념 사업회와 공동전략 수립), 문학관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 하동군의 경우에서처럼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업완료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와 같은 사업의 재검토가 반드시 행해져야 함

2. 문학관 설치근거법 제·개정

1) 문학관 관련 법규 제정

- 문학관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문학관 관련 법규 제정은 문학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수월성을 기할 수 있게 함
- 현재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법 테두리에 적용시켜 놓아 운영에 있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하지만 일부 2종 박물관으로 등록한 문학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학관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예산 투입에 있어 그 근거의 부족으로 문학관 건립을 제외한 운영에는 자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남
- 이의 극복을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함
 -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의 범위에 문학관을 포함시키는 개정 입법 방법이 있음
 - 문학관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관 진흥법’의 발의를 통한 단일 입법 추진 방법이 있음
 -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지침’ 등 표준화된 조례를 문학관 건립의 요건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15) 주요도로변 안내 이정표 간판 설치: 3개소, 이병주국제문학제 개최시기 조정(북천 메밀꽃 축제와 연계한 행사 시기조정), 문학관 주변 꽃 단지 확대로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 유입

16) 문학프로그램 운영(관내 기관 및 단체 참가 문학관 탐방프로그램 운영, 경남문인참가유도 문학세미나 개최, 지역별 출향 문인초청 문학관 탐방프로그램 운영, 관내 학생참가 문학캠프 확대, 메밀꽃축제와 연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반영, 이병주전집읽기 문화운동 전개, 기념사업회와 연계 소모성 행사 지양 내실있는 이병주국제문학제 운영, 출향문인 경남도내 문인 등 참여확대 방안 접목, 청소년대상 이병주백일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추천 등

2) 상위법에서의 문학관에 대한 법률적 명시

- 이러한 지역문화관 법규 재정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박물관, 미술관 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문학관’에 대한 명시 필요
 - 일례로 법률적 지원체계에 있어 ‘문학관’이 기타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간판 및 안내표지판 부착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임

3) ‘문학큐레이터(가칭)’ 자격을 위한 학예사 자격증의 제도적 보완

- 박물관과 달리 문학관 실무자에 대한 신분보장(학예사 취득 등)이 되지 않아 문학 전공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음 이에 학예사 취득 등에 인센티브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필요
 - 현재 학예사 제도는 박물관 관련 전공을 해야 취득하기 쉽도록 과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취득에 있어 문학관 경력 등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관 종사자들에게 있어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불안감을 내재시키고 있음

3. 문학관 운영 및 관리지원 정책

1)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정책

(1) 운영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 개별 문학관이 하기 어려운 사업(예컨대, 문학관 기초 자료 조사 사업, DB 구축 사업, 실무자 연수 등)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매년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2008년까지 한국문학관협회 차원에서 진행되던 사업이 2009년 재정 부족으로 단 1개의 사업(문학관 기초 자료 조사 사업)만 진행하고 있음
 - 이는 현재 42개(2009년 3월 현재 가입 문학관) 문학관과 추후 가입 예정인 문학관의 운영 및 문학관 소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다수 문학관의 경우는 지자체예산에 의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단체 및 개인에 의한 문학관의 경우 운영에 있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인의 사재로 운영되는 문학관의 경우 운영재원이 바닥나면 문학관 지속이 어려움
 - 대다수의 문학관의 경우 수익사업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지역의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문학관들이 많아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

도 있으며, 입장료를 징수해도 인건비 및 시설관리 등 운영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기존 문학관의 경우 도로표지판과 안내판 등이 다른 문화관광지와 함께 제작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등 도시지역에서는 지하철 안내 및 문화 관광 리플렛에 공공문화시설과 함께 문학관도 함께 표기해줄 것을 요청함
-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숙박시설마련 또는 문학관내의 창작 집필실 및 숙박시설을 겸할 수 있을 것임
- 설립 5년 이상 된 문학관의 경우, 하자보수 및 리모델링(수장고, 휴게실, 세미나실 등 확충) 요구가 많아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 공모사업 역시 전체 사업 예산의 부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단위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 공모에 당선되지 못한 문학관의 경우에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의 예산 확대 및 운영자금지원에 대한 평가항목의 확충필요
- 이의 극복을 위하여 향후 문학관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예산 확보의 다양화 필요
 -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문학관의 경우는 문학관의 운영에 있어 입장료 징수 및 자체 수익자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한 예산확충이 필요함. 한편 문학관 운영에 있어 초기단계에서는 지자체예산 뿐만이 아니라 국가예산 지원 또한 요구됨
 -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문학관 건립에만 지원하던 국가예산을 건립 및 운영자금으로 양분하여 지원하는 방안 모색
 - 대다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문학관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문학관협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분기별 인력교육 및 연수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 또한 지역문학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에 대한 세금인하 또한 절실히 요구됨
- 문학관이 지역문화시설 또는 기반시설로 활동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관협회가 주관하는 실무자 교육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관 협회 지원사업은 안정적 재정조달 방법이 아니어서 향후 전국문학관 실무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안은 안정적 재원에 의한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의 간편화 및 협회가입 요건 완화
 - 개인이 운영하는 문학관의 경우, 법인 변경시 행정의 간편화가 요구됨. 또한 서울의 경우 도로표지판, 안내판 등에 문학관 표기를 요청하였으나, 박물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표기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됨. 그러나 서울 이외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학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함

- 현존 작가 개인문학관의 경우, 한국문학관협회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 가입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
- 문학관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인식전환
 - 문학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단순 시설관리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학관 또한 상존함. 단순 시설관리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자체 직영 문학관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만 배치하고 있어 문학관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함

(2) 지자체 직영 문학관의 위탁운영 제고

- 2009년 1월 현재 본 연구에서 조사된 41개 문학관 중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영 17곳, 단체 위탁 7곳, 민간 개인운영 6곳, 민간단체 운영 11개 곳으로 지자체 직영의 경우는 전문인력(전문학예사 또는 문학 관련단체) 배치, 위탁 또는 민간 운영의 경우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표 4-4〉 운영방식에 따른 문학관 현황

권역	공공		민간	
	직영	위탁	개인	단체
강원(5)	김삿갓, 이효석	김유정		만해, 토지
경기(3)			만해기념, 조병화, 청류재수목	
경남(7)	마산, 박재삼, 청마	이병주, 평사리		경남, 김달진
경북(4)	구상, 백수	동리·목월, 이육사		
부산(3)			추리	요산, 이주홍
서울(5)				문학의집 서울, 세계여성, 영인, 한국현대, 한무숙
전남(4)	목포, 조태일, 태백산맥, 한국가사			
전북(4)	아리랑, 채만식	미당시, 최명희		
충남(1)	만해			
충북(5)	오장환, 정지용, 충주		원서, 농민	
계(41)	17	7	6	11

-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문학관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및 임시직원 형태의 문학관 운영을 하고 있어 문학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지 못함

- 다른 업무와의 중복으로 사실상 박물관 활성화에 있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
 - 이의 타개를 위하여 민간에의 위탁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적합한 민간위탁단체가 없을 경우는 지자체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안동의 '이육사 박물관'의 경우 이육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의 이육사관련문화단체들이 발기인이 되어 안동시에 이육사박물관 건립을 건의, 이에 따라 안동시는 21억9천만을 들여서 박물관을 완공하였음
 - 민간위탁이전에는 기능직공무원 4명이 운영을 하였으나 안동시와 2008년 추모사업회가 법인을 설립하여 11월 21일 민간위탁 협약을 하여 12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하였음
- 이육사 박물관의 사례는 민간위탁에 있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음
 - 우선 민간위탁을 통하여 박물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박물관 운영 예산이 민간위탁 이전보다 축소되었음
 - 마지막으로 안동시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박물관이 지역 문학인들의 교류장소로서 이용됨으로써, 결국 박물관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됨
- 다만 박물관관련단체에 의한 위탁운영 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 됨
 - 단체 위탁이라고는 하나 박물관 시설관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관리를 전담할 인력예산 배정까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시설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개보수, 리모델링 등 시설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단체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시설관리는 지자체가 직접관리(비용 및 인건비 부담)하고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단체가 전담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음
 - 이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더욱이 박물관 설립 허가 시 이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민간운영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하였으나, 차츰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보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박물관 전문 인력 채용 및 양성 지원정책

(1) 박물관 운영관련 전문 인력 채용

- 전국의 모든 박물관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부족을 꼽음
 - 지자체 직접 운영 박물관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시설관리직으로 이들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인력의 잦은 교체는 박물관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임
 - 시설관리 위주의 박물관 운영은 박물관이 내세우는 특정인의 업적을 드높이는 것이 아닌 도리어 특정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임
 - 따라서 박물관관련 연구 인력의 채용을 통하여 박물관 운영의 특성화 및 활성화 필요

- 한편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한국가사문학관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지만, 지자체가 가사문학관을 잘 운영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수당도 상대적으로 높아 공무원들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꼽히고 있음
 - 한국가사문학관의 사례는 지자체가 문학관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앞으로 문학관 인력의 채용도 문학관 완공 이후가 아닌 건립 때부터 참여하여 문학관 특성에 맞는 문학관이 지어지도록 함
- 관리직과 학예직의 분리
- 목포문학관의 경우 학예직과 관리직이 이분화되어 학예직은 전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관리직은 시설관리를 맡는 이상적인 형태임. 문학관 건립 과정에 학예직이 참여한다면 문학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문학관 건립에 도움이 될 것임
 - 문학관련 위탁단체가 문학관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그 이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은 따로 배정해 줄 필요성이 있음

(2) 문학관 경력 인정제 도입

-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학예사 자격시험 제도를 통해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를 배출하고 있음
- 자격시험의 요건 중 경력 인정 부분은 대부분 국립박물관이나 대학 박물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사립박물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문학 관련 전공자들이 지역의 문학관에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학예사 자격을 가지기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문학 전공 우수 인력이 문학관 근무를 기피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예사 자격시험 제도의 경력 인정부분에서 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문학관의 경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의 문학관 역시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문학관의 2종 박물관 등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3) 실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 매년 한국문학관협회 차원의 2박 3일 실무자 연수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음. 현직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는 전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문학관에 있어서 매우 절실한 상황임
- 문학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기획 및 행정적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전문학예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으며, 문학관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인력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운영의 경우도 행정절차 등의 미숙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문학관협회 차원에서의 실무자 연

- 수 등이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동일 사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문학관간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 제기
 - 전국의 지역문화원의 경우, 실버문화학교를 문화원의 특성화사업으로 특화하여 2-3년간 컨설팅을 펼친 결과 사업의 질과 문화원의 위상이 높아져 문화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음
 - 따라서 문학관도 고유사업이자 특화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학교실과 문학기행등의 사업을 문학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래밍하고 컨설팅 하는 가운데 정착 시켜나가도록 함
 - 문학관 실무자 교육에 있어서도 예술경영 전문성을 고취할 필요성이 제기 됨
 - 회원 관리 및 펀드레이징 등을 통한 행정업무의 전문화
 - 후원회원 관리차원에서 지역문학관 주요콘텐츠에 대한 정보 및 문학관 소식을 정기적으로 메일 또는 이메일로 발송함
 - 문학관 주관의 각종 문학대회 시 장관상을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 세금감면혜택방법, 펀드레이징 방법 등 실무적인 행정업무 교육의 필요성이 실무자 면담 시 강조됨

(4) 자원봉사자 및 인턴 등 인력지원

- 전문인력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학관이 자원봉사 등 보조인력을 요구하고 있음.
 - 본 연구조사 결과 문학관의 운영인력은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으로 나타났으나, 문학관을 운영하는 실제 인력은 2-3명 정도 임
 - 그러나 문학관 전체관리책임자와 사업운영 실무자, 시설관리담당 또는 보조자만으로는 인력부족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육사문학관의 경우, 2008년 11월 민간위탁 운영 되면서 문학관 자체해설사(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입장료 수령, 관람객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주고 있음.
 - 전국의 많은 문학관이 지자체소속의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주5일 근무 등의 여건을 들어 관람객이 가장 많은 주말에 해설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함
 - 따라서 주말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 및 성수기에 해설사를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어야할 것임
 - 접근성이 원활한 문학관은 문학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배치하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장려되고 있는 학교, 아동센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 등으로 ‘찾아가는 문학관’ 사업도 이들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인턴 등 인력지원에 따른 보완점
 - 각 문학관들은 인력보완을 위해 인턴 또는 공공근로제도를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문학관 인턴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박물관의 경우 인턴경력 2년과 박물관 관련 석사학위로 3급 정학예사의 자격을

- 인정받을 수 있으나, 문학관 경력은 경력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문학관도 박물관 미술관처럼 경력 인정기관화 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인턴배치의 경우, 현재 6개월 기간이 아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인턴 30세 이하 규정은 문학관 특성상 연령제한 폐지할 것을 요구함.

4.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지원

- 문학인과 일반인의 만남의 장으로서 문학관 시설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문학관이 문학인 및 지역민의 '사랑방'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필요
 - 문학관은 작가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색의 공간 및 지역문인들의 요람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문인들 및 지역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구상문학관은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왜관읍은 인구 3만 명이 거주하는 지방 소읍으로서 읍 소재지에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음
 - 따라서 구상문학관은 구상시인의 유품과 작품의 전시기능 뿐만이 아닌 지역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자 지역민의 문화시설로서 역할도 함께 하고 있음
- 앞서서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정책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시한바 있음
 - 민간위탁의 문제는 지역 문학관의 현실적인 요건에 따라 많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민간위탁은 실효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 민간위탁 문학관은 지자체 운영 문학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의 문학단체나 문학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학교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최명희 문학관은 2006년 4월 25일 개관한 이후 줄 곳 '혼불기념사업회'가 문학관 운영을 하고 있음
 - 문학관이 민간위탁이 되고 시설을 운영하는 실무자가 문학인이 됨으로써 문학관은 전북지역의 문학인들이 문학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여 자연스럽게 문학인이 모이는 공간이 됨
 - 이를 계기로 문학인들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 역시 문학관을 문학교류의 중심지로서 생각하게 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관 직접지원 이외 문화단체로 하여금 문학관활성화 사업지원을 확대하여야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6년 문학관운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한 바 있음
 - 2006년에는 10개 단체 지원이었으나 2007년 1개 단체, 2008년 1개 단체, 2009년 3개 단체

로 축소되었음

- 2006년과 2009년 위원회의 사업지원을 받은 부산문화연구회는 ‘문학아 놀자, 문학아 하자, 북콘서트’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학관 프로그램을 시도하였고, 사회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으로 ‘이주홍문학관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놀이’ 프로그램 개발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문학관용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한바 있음
- 이외 부산문화연구회는 ‘무작정 떠나는 문학기행’을 200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달 운영해오고 있어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부산지역문학관의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문화지도 그리기

- 2007년 부산작가회의 세미나에서 부산지역문학콘텐츠 활용방안으로 문학관 이름을 담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이름변경을 제안한바 있음
- 예컨대 요산(김정한)문학관역, 이주홍문학관역, 추리문학관정류장 등이며,
- 또한 예술인 아호,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테마형 문학관 투어프로그램’을 제안함. 이러한 예는 문학이 책 밖으로는 끌어내는 마케팅으로 문학버스, 문학열차¹⁷⁾ 등의 운영으로 확산된다고 볼 수 있음

○ 문학기행특구 지정

- 전남 장흥군은 2008년 4월 전국 최초로 문학기행 특구로 지정받음
- 비록 이 특구가 문학관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한승원의 해산토굴, 이청준의 생가와 작품무대, 송기숙·이승우·김석중·김녹초 등의 작가들을 배출한 지역적 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특구지정은 지역문학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지역문화단체 및 인근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 강원도 정선의 아리랑박물관은 박물관 입장료대신 지역상품 판매쿠폰으로 지역식당 등 가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됨
-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인지도도 낮은 문학관의 경우, 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문학관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학관련 전문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봄으로써 지역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게 될 것임
- 학교,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독서단체와 연계하여 특정작가 또는 지역작가의 문학세계를 알리고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학관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함

¹⁷⁾ 2008년 옥천군 ‘지용제’ 행사서 서울서 옥천까지 문학열차칸을 운행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냄

제3절

지역문학관 운영 콘텐츠 개발

1. 문학관 운영 콘텐츠 개발방향

- 문학관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¹⁸⁾ 첫째, 문학이라는 핵심 콘텐츠의 개발, 둘째, 지역문화시설로의 자리매김, 셋째, 지역문학관 협력지원체계 관리가 필요함
- 문학의 깊이와 창작과정을 느낄 수 있는 간접체험은 문학서비스로서 문학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이 될 것임
- 문학은 우리의 말, 즉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여 지은이와 읽은 이 사이에 각별한 교감을 갖게 하는 창작 작품
 - 왜 문학인가? 각별한 교감, 문학의 향기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며, 감명 깊게 읽은 작품에 대해서는 오래 그 문학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 있음¹⁹⁾
 - 왜 문학관인가? 독서의 범주를 뛰어넘는 생각의 공간, 문학적 감동을 느끼는 간접체험 공간이며, 사적인 독서의 범주를 넘는 생각의 공간임. 따라서 문학관은 감상의 핵심대상인 문학적 감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음²⁰⁾
- 따라서 앞으로 문학관은 작가의 창작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되어야함. 현재 대부분의 문학관의 주요기능은 전시에 치중되어 있으며, 작가의 작품(출간된 책, 육필원고)이 기본 전시되고 관련된 유품(만년필, 사전 등 작가 생존 시 사용된 물품 등)들이 전시됨
 - 전시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문학관은 전시자체에서 작가의 창작열의를 느낄 수 있는 유품을 잘 배열함으로써 창작과정을 느낄 수 있어야함
 - 한편으로 체험이 강조되면서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기자재 코너, 작가의 흉상 등이 배치되는 등 전시관이 중심에 있고, 그 외 모임을 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강의실, 그 외 창작실 등이 배치되어 있음
 - 유품들이 많은 경우, 잘 정리되어 있는 신선함은 있지만 문학관 전시는 유품 나열이 아닌 창작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전시하여야할 것임
-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문학관 설계와 디자인
 -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개별 문학관 고유의 특색과 콘텐츠를 고려한 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편임
 - 어차피 문학관은 상설전시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전시에서 관람객을 분명한 문학적

¹⁸⁾ 문학관의 존재근거: 문학유산의 보존과 전승, 지역문학활동의 모체역할 (지역문학관협회 주관(2005) 실무자 워크숍, 정우영 ‘누가 문학관을 살리는가’)

¹⁹⁾ 한국문학관협회(2005), [전국문학관 찾아가기 - 문향을 따라가다] 서문에서

²⁰⁾ 한국문학관협회(2005), [전국문학관 찾아가기 - 문향을 따라가다] 서문에서

-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을 느끼게 해주어야함
- 태백산맥문학관의 경우, 건물자체의 설계와 외부의 설치미술 등에 다른 문학관과 차별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 문학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설계가 협의되어야함에도 제한된 설계비보다는 지자체간의 경쟁적 여건으로 비슷하면서도 좀 더 크게 짓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좋은 시설보다는 느낌이 좀 더 색다른 문학의 향기, 문학적 콘텐츠를 보유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느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머무는 시간이 늘릴 수 있어야함

2. 문학관 운영 콘텐츠 사례

1) 축제 및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²¹⁾

- 지역문학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운영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의 문학관을 축제 및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 콘텐츠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학관은 그 지역의 문화 관광 명소로서 매력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특히 지역문학관의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동식물과 일치하는 작가의 생애나 작품 속 내용을 문학관 나름의 이미지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함
 - 이효석의 고향 평창 봉평에는 「메밀꽃 필 무렵」의 메밀꽃을 보기 위해 한 해 연인원 2백만 이상이 찾아 옴
 - 황색 국화로 뒤덮인 전북 고창군 질마재 일대는 ‘국화 옆에서’의 미당 서정주의 시문학관과 묘가 있음
 - 춘천 실례 마을은 봄이면 김유정이 피운 「동백꽃」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생가가 있는 실례마을의 신남역이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이름이 들어간 <김유정 역>으로 역이름이 바뀌었다. 특히 실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금병산은 김유정의 작품명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면서 작가의 작품과 친근하게 만나게 됨
 - 이상과 같이 김유정로(춘천), 토지문학공원(원주 단구동) 만해마을(인제) 등 작가 이름을 딴 길 이름이나 지명은 문학관의 이미지 홍보에 매우 효과적임
 - 따라서 지역의 문학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문학 자료나 문학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 문학관과 차별화된 문학관 운영을 지향하도록 함

²¹⁾ 이 절에서 나온 강원지역 문학관 운영사례는 전상국(2005)의 발표문을 참고함

2) 지역성 연계 프로그램

- 지역 연고성이 우선시되는 지역문화관은 ‘그 지역에 왜 그 작가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예: 채만식문학관, 이병주문학관, 평사리문학관)
- 아래의 예는 2009년 2월 21일 대전문화연대가 주관하는 군산답사의 일부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결국 문학관의 활성화는 문학과 함께 지역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음

2009. 2. 21 대전문화연대가 주관하는 ‘근대도시 군산의 식민지 경관’이라는 주제를 갖고 군산답사에 참가했다. 답사일정은 군산청소년수련원 → 동국사 → 정주사집 → 군산경찰서 → 동산중학교 → 군산신사 → 군산세관 → 구암교회 → 채만식문학관이였다. 일정 중 가장 마지막 방문지가 채만식문학관이었지만, 그 전 과정에 채만식의 [탁류]가 배경이 되는 곳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었기에 마지막 코스 채만식문학관은 문학관 그 자체로는 좋은 전시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만식문학과 군산을 깊게 연계하게 함으로써 지역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답사가 되었고, 채만식문학관이 군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느끼게 하였고, 답사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탁류]를 다시 읽게 함으로써 한 개인에게 문학을 통한 시대의 아픔과 지리멸렬한 인간사, 그 당시 군산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다시금 생각게 했다. 이는 한 개인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문학 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군산시가 발행한 [군산관광안내]지도에 제시된 채만식 관련 답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채만식의 탁류 답사길’: 임피 삼거리 채만식 생가 → 채만식 선생 묘 → 홍남동 콩나물 고개 → 재보선창 → 미두장터 → 구 조선은행 → 월명공원 → 채만식 선생 문학비 → 채만식문학관 (6시간 소요)

3) 문학의 깊이 살리는 문화마케팅

- 문학의 깊이 살릴 수 있는 문화마케팅
- 일본의 세타가야 문학관처럼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미술 연극공연 보러오면서 문학과 연계
- 영국 휘트먼 문학관의 경우, 마을언덕을 하이킹 투어로 하여 시낭송 강연 콘서트 등 이벤트성 행사 운영, 지역역사와 생가건축 지역문화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경우, 평사리문학관이 있는 하동군의 최참판댁 관광단지에는 평사리문학관내의 지리산일대 문학과 작가들이 전시되어 있어 지역특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토지의 문학공간인 최참판댁 가옥을 통해 우리의 한옥 설명이 가능함.
- 평사리문학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한옥체험 및 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음(2008, 2009년 지원)
- 지역문학관 회보, 홈페이지 연계와 연계한 문학정보 제공
- 문학기행/ 부산문화연구회 사례로 2008년 9월에 진행된 제78차 봉평문학기행은 효석문화제에 참가하여 문학축제를 즐기고 이효석 문학관, 생가터, 문학비, 문학공간 등을 둘러봄으로써 이효석의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행을 기획함

[부산문화연구회의 문학기행 개요]

제78차 봉평문학기행 : 박경리의 원주 토지문학공원과 다시 찾아가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문학기행

일시 : 2008년 9월 6일~7일(1박2일)

일정 : 원주 소설가 박경리의 토지문학공원 - 강원도 평창 봉평문학마을 - 제10회 효석문화제 참가(이효석 문학상 시상식, 소설 낭독회 - 이금희 아나운서 김애란 작가, 문학나눔콘서트 관람, 김애란, 박민규 작가와의 만남/사인회, 김경주 시인 청문회) - 이효석문학관(기획전시회 관람 및 김남국 시인의 문학관 강의) - 이효석 생가터 - 이효석 문학의 숲 - 물레방앗간 - 가산공원 - 이효석문학비 - 작품 무대(메밀꽃밭, 노루목고개, 충주집) - 봉평장터 자유관람

참가자 : 40명 선착순 마감/ 13만원(교통비, 강사료, 숙식비, 여행자보험료 등 일체비용 포함)

진행자 : 김애란(소설가) 박민규(소설가)외

읽어올 책 : 『달려라, 아비(김애란)』 - 창작과비평사 / 『카스테라(박민규)』 - 문학동네 / 『패스포트(김경주)』 - 랜덤하우스 / 『하룻밤 돌배나무 아래서 잤다(김남국)』 - 문학동네

- 부산문화연구회의 봉평문학기행은 문화마케팅의 방향은 결국 문학의 깊이를 일반인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보여준 사례임

4) 문학관 활성화와 관련한 부대사업 사례

- 문학관 활성화 부대사업
 - 북콘서트, 문학콘서트/ 부산문화연구회가 2006년,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지원사업으로 실시한 문학아 놀자, 문학아 하자, 문학콘서트
 -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 북콘서트 형식 공연 활발
 - 문학관에서 열린 문학콘서트
 - 아래 사례는 부산에 위치한 요산(김정한)문학관에서 열렸던 요산문학관의 문학콘서트임

[요산문학관의 문학콘서트]

요산문학관은 요산 김정한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요산문학의 길' 행사를 2008년 12월13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요산문학관 강당에서 열었다. '문학은 고루하다'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었다. "문자로 쓰여진 시가 색소폰 오카리나 단소 팡파라 등으로 새롭게 표현되는 이색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문학을 무대로 올려 시민들과 함께 벌이는 '청소년과 시민문예 한마당' 잔치로 진행되었다. 특히 글 쓰는 재주 외 오카리나 색소폰 단소연주 등 문인들의 여러 숨은 끼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안도현·정일근 시인의 영상시가 차분히 막을 올리면 윤해승(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씨의 해금 독주 '정념'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가 구슬프게 현을 타고 흐르게 기획되었고, 고은 시인의 '가을편지'를 색소폰 선율에 실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낙엽이 쌓이는 날/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색소폰의 흐느끼는 음색과 가을의 외로움

이 절절히 맞아 떨어졌다. 연주자는 최근 활발한 시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의 김찬식 시인이었다. 문학콘서트인 만큼 이색 행사도 마련됐다. '당신은 구름벡타이를 매셨군요'(김예강 시)라는 시를 황창가·이혁우 두 부산시립극단 배우가 해석, 몸짓으로 읊어가는 시 퍼포먼스와 시 '그대 그리워라' 등을 팝페라 가수 손영희 씨의 노래로 감상했다.

5) 문학관의 문화콘텐츠 공간으로의 스토리텔링화²²⁾

- 문화콘텐츠에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물, 음악 등이 포함됨.
그러나 문화콘텐츠는 기술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개념임
- 축제나 공연, 박물관, 테마파크, 테마 쇼핑몰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공간은 문화 콘텐츠의 영역에 속하지도, 배제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음
- 축제나 공연은 예전부터 '문화'라는 틀에서 인식되어 왔고, 박물관이나 테마파크는 교육이나 놀이의 시설로 여겨져 왔음
-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찾으며, 여행을 가더라도 단순히 경치를 즐기는 여행보다는 이야기나 테마가 있는 이색공간을 구경하고 싶어 하고, 휴양지를 선택하더라도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어 함
- 현대의 공간은 이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 비일상적인 체험을 주며 방문객들이 즐기면서 배우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 기법임
 - 이러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문학관에 부가함으로써, 또한 문학이라는 유형의 상품을 무형의 상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문학관이라는 공간에 이야기를 입힐 필요가 있음
- 문학관이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람자가 만져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전시할 필요가 있으며, 테마성과 스토리텔링, 참여율을 높이는 장치의 고안이 필요함
 - 이는 단순히 문학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문학작품을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양평에 건립 중인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재현한 '황순원 문학촌-소나기 마을'이 그것임
 - 황순원 문학관에서는 그의 생애와 집필실, 유품, 작업실, 문학교실 등이 만들어지고 소나기 마을에서는 소설 속 전개과정을 도입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단계로 구성하여 소설 속 분위기를 살리도록 공간이 배치된다고 함
- 문학관을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이는 문학관이 문화관광상품의 일환으로써, 문학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과 함께 문화콘텐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²²⁾ 김희경, 김현정, 민세희, 장해라(2008), 『이야기를 파는 나라 일본』, 미래의 창

▶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박물관 사례

- 『어린 왕자』는 프랑스인 생텍쥐페리에 의해 지어졌으나, 유품의 일부가 일본에 기증하게 됨으로써 일본은 생텍쥐페리와 어린왕자와 관련된 온갖 자료들을 수집하여 1999년 생텍쥐페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하코네에 어린왕자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음.
- 박물관에 배경, 테마, 동선, 콘텐츠 등의 스토리를 가미시켰으며, 공간 구석구석을 배치하고 연출하여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문화관광 상품화함
- 어린왕자 박물관은 일본에서 느낄 수 있는 유럽의 공간, 특히 늘 상상에만 의존해왔던 소설 속의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지고 느끼는 기쁨을 준다는 점에서 다른 박물관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음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박물관'의 스토리텔링 사례]

- 배경: 어린왕자가 일곱 번째로 찾아온 별

도쿄 방송국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왕자 박물관은 자국의 콘텐츠가 아니지만 자신들의 것으로 재창조시킨 일본만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곳임. 도쿄 근처 하코네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관광지로서의 온천과 갤러리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물관을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꾸며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 어린왕자박물관의 타깃은 『어린 왕자』를 아는 모든 사람들임.

- 테마: 지상의 어린왕자

어린왕자박물관은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인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그의 삶을 충실하게 재현한 박물관이며, 그 자신이 어린왕자 자체였던 생텍쥐페리를 테마로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 놓고 있음

- 동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박물관은 생텍쥐페리가 살았던 과거의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며, 외부와 내부에 아기자기한 아이টে를 많이 배치해놓고 있어서 보물찾기처럼 그것들을 찾아내는 재미를 느끼게 해줌(스탬프를 배치하여 스탬프를 찍으면서 관람을 즐길 수 있게 함).

어린왕자박물관의 관람루트: 프랑스거리→ 생텍쥐페리 생가의 문(박물관 내부)→ 1층과 2층에 생텍쥐페리 삶의 여정 전시(영상 등을 통해 재현)→ 어린왕자 정원(박물관 외부)

- 콘텐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해

일본은 자국의 것이 아닌 콘텐츠로 'Made in Japan'으로 만들어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박물관 내부에는 생텍쥐페리의 삶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 그의 생가가 전시, 모형, 파노라마²³⁾, 디오라마 등의 형태로 재현하였음. 또한 프리텐더 테크놀로지²⁴⁾를 사용하여 적당한 모방과 창조는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다는 논리에 의존함

23) 파노라마: 실지 경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장치

24) 프리텐더 테크놀로지(pretender technology): 가상의 세계와 비일상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하고 모방하는 다양한 기술력과 연출법

6) 고객중심 프로그램 사례

- 만해기념관은 작가의 고향(연고)보다 작가 「만해 한용운」의 작가적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학관으로서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산성리 남한산성 자락에 기념관을 건립하였음
- 만해기념관은 2008년 총 방문객수가 약 3만5천명이며 ‘남한산성문화제’ 및 ‘남한산성 투어프로그램’과 연계, 또한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을 통해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기리고 문학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 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문학관을 찾는 수요자 만족을 위한 운영을 위해 전문학예사 등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문학관에 대한 열정이 문학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롤 모델(role model)로 사료됨
- 또한 만해기념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또한 해외에 알리기 위한 영문 브로셔 및 CD 제작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사례 1: 소책자로서 박물관 어린이 활동지인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만해 한용운의 작품 및 뜻을 기릴 수 있고 흥미를 갖게 노력을 하였음(만해 한용운 소개, 낱말 맞추기, 한용운 작품 및 연관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퀴즈 등을 수록)
 - 사례 2: 만해기념관 교육프로그램

- 만해기념관 교육프로그램 리스트 -

- 상시 프로그램:
 1. 시화 그리기 체험
 2. 판화 체험
- 정기 프로그램:
 3. 제5회 만해 문학 백일장(2009년)
 4. 제 13기 만해 학교(2009년)
- 맞춤형 프로그램(단체 20인 이상)
 5. 『내가 만든 엽서 전하기』-다양한 오브제 이용
 6. 알록달록 시전지 만들기
 7. 발도르프 원목 교구 만들기
 8. 『님의 침묵』 옛 책 만들기

9. 먹 만들기 체험

- 주변 문화 유적 답사 프로그램(초·중·성인 20인 이상)

A 코스(유치부·초등 대상): 기념관, 행궁, 침괘정

B코스(중등부 이상 대상): 기념관, 수어장대

*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시 연계 진행 됨

- 사례 3: 만해학교 운영

-만해학교 일정(12기 예)-

▶ 일시: 2008년 10월 18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교육원

09:50~10:00 입교수속(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10:00~10:10 개회사

10:10~11:00 만해 한용운은..(만해 한용운에 대한 영상)

11:00~11:10 휴식(다과 및 상견례)

11:20~12:00 특강 1: 만해에 있어서 “님”이란 누구인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특강 2: 시와 노래 배우기-님의 침묵, 사랑하는
까닭, 꿈이라면

15:10~15:40 님, 침묵, 사랑의 자유 토론(만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15:40~15:55 만해기념관 전시 해설

15:55~16:00 롤링페이퍼(만해 또는 이 시간에 대한 나만의 생각)

16:00 퇴교(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3. 문학관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1) 운영 형태별 특성화

- 운영형태별 분류에 의하면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며, 공공에는 지자체 직접운영과 단체 위탁운영으로 나누어지며, 민간에는 개인운영과 단체운영으로 나누어짐²⁵⁾. 운영형태 이외 운영방식에 따라 창작집필실 전용운영과 문학관 전용운영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일반 문학관이라 하더라도 창작집필실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세분화 할 수 있음.²⁶⁾
- 지자체 직접 운영 사례
 - 김삿갓, 이효석, 마산, 박재삼, 청마, 평사리, 구상, 백수, 목포, 조태일, 태백산맥, 한국가사 문학관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 하고 있는 문학관 임
 - 이 중 이효석문학관, 목포문학관은 지자체 운영 사례로서 주목 할 만함. 목포문학관은 건립에 있어 문학관련 학예사를 건립 단계부터 채용하여 문학관 건립이후 많은 문제를 야기 하는 기타 문학관에 비하여 공간 활용의 우월성을 지님
 - 특히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문예교실 등은 기존의 문학관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문학관에 사용 가능하게 하여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음
 - 문학관의 인력 역시 문학 관련 전공 학예사를 채용하여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보여줌
 - 목포문학관 사례는 결국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 문학관의 운영이 건립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보여줌. 또한 이효석문학관도 이효석문화마을에 배치하여 관·민이 합심하여 문학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음
- 민간단체 위탁운영 사례
 - 김유정, 이병주, 동리목월, 이육사, 미당시, 최명희문학관
 - 이 중 김유정문학관과 최명희 문학관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문학관으로서 주목 할 만함
 - 문학관에서는 문학세미나, 소설읽기, 문학강연, 문학기행, 고교생 문학워크숍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학관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전시위주의 문학관에 서 벗어난 체험 위주의 문학관 운영의 모범사례로 제시 될 수 있음
 - 특히 최명희문학관의 경우 인력의 활용의 측면에서 문학인이 직접 문학관을 운영하여 전문성과 함께 인맥의 활용을 통해 결국 다른 문학관에 비하여 좀 더 활발한 문학인과 일반인의 교류가 이루어짐

²⁵⁾ 본 연구 조사대상 41개 문학관 중 지자체직영(18곳), 민간위탁(6곳), 개인운영(6곳), 단체운영(11곳)

²⁶⁾ 창작집필실 전용(만해문학박물관, 토지문화관), 복합공간(이병주문학관, 만해문학체험관) 문학관 전용(그외 지역문학관)

- 개인운영 사례
 - 만해기념, 조병화, 청류재 수목, 추리, 원서, 농민문학관
- 단체운영 사례
 - 만해문학박물관, 토지문화관, 경남, 김달진, 요산, 이주홍, 문학의집 서울, 세계여성, 영인, 한국현대, 한무숙문학관
- 창작집필실 전용
 - 만해문학박물관, 토지문화관
- 창작집필+일반문학관 혼합형
 - 이병주문학관, 만해기념체험관

2) 지역별 특성화

- 광역단위별 문학협의회를 두어 지역 내 특성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문학관협회와의 관계를 통해 지역간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민간문화단체 활동에 의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 부산문화연구회 사례는 주목할 만함
 - 부산지역의 경우 3개 문학관을 연결하는 고리가 부산문화연구회라는 민간단체임
 - 부산문화연구회는 연구회 자체의 성인대상의 문학기행, 청소년대상의 어린이문화탐방학교, 어린이독서경제체험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관 활성화에 상호 기여하고 있음.

3) 장르별 특성화

- 시, 소설 등의 장르 이외 기타 장르로 아동문학, 추리문학, 농민문학지역문학 등으로 구분되어짐
- 시 문학관
 - 만해기념문학관, 조병화문학관, 김달진문학관, 박재삼문학관, 청마문학관, 구상문학관, 이육사문학관, 조태일시문학관, 미당시문학관, 만해문학체험관, 오장환문학관, 원서문학관, 정지용문학관
- 소설 문학관
 - 김유정문학관, 이효석문학관, 이병주문학관, 요산문학관, 한무숙문학관, 태백산맥문학관, 아리랑문학관, 채만식문학관, 최명희문학관
- 시 소설 문학관
 - 동리·목월문학관
- 시조 문학관
 - 백수문학관, 한국가사문학관

- 기타 문학관
 - 아동문학(아주흥문학관)
 - 추리문학(추리문학관)
 - 농민문학(농민문학관)
 - 지역문학관(경남문학관, 마산문학관, 평사리문학관, 목포문학관, 충주문학관)
 - 전체 포괄(청류재수목문학관, 문학의집 서울, 세계여성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 이상과 같이 장르별로 특성화 시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로 함
- 결국 지역문학관 운영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운영 형태별 특성화, 지역별 특성화, 장르별 특성화는 한개의 구심적인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 됨
 - 이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이 한국문학관협회 기능을 확대하는 것임
 - 문학관협회내에 각 운영 형태별로 분과를 두어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결국 운영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임

4. 문학관 운영 콘텐츠 관리방안

1) 지역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

(1) 관람자 참여유도

- 각각의 문학관은 지역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문학동아리, 초·중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부방 등과 연계하여 지역민 및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 문학관협회: 관람자 참여유도를 위한 역할은 문인협회, 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해 전국의 문학관현황을 알리고, 또한 관람객들의 지역문학관 답사 시 방문협조를 의뢰하여야 함
- 지역문학관: 기초단위 또는 광역단위지자체 권역 내 학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부방 등에 문학관 안내와 함께 방문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학교를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음
 - 문학관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문학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관내 학생참가 문학캠프 확대 운영, 문인협회 참가유도 문학세미나 개최, 축제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반영(사생대회, 글짓기 대회 등), 지역 내 출향문인 초청 및 문학관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2) 지역 내 프로그램 교류

- 문학관협회: 권역별 문학관 또는 장르별 문학관을 연계하여 문학관순방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하도록 함

- 지역문화관: 권역 내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아동센터, 공부방,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셔오고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3) 운영평가 시스템 도입

-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운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야함
 - 지자체 직영, 위탁운영, 민간운영 등 운영의 형태는 다르다하더라도 문화시설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문학관 운영의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더불어 이 지침에 근거하여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전국의 문학관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건립이후 운영은 연차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질 것임. 그러므로 한국문학관협회가 문학관 운영평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국의 문학관 시설 자체는 비교적 고른 편임. 그러나 운영은 제각각 다른 형태이어서 운영 중심의 평가 틀은 개별 문학관 평가이자 지자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여 지역 간 경쟁 구도는 건강한 문학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이러한 평가 틀을 운영자가 인식함으로써 영역별로 고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이러한 문학관 운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첫째, ‘문학관 평가 지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문학관 표준 조례’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던 문학관에 조례를 제시함으로써 문학관 운영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음
- 문학관 평가지표의 평가영역은 목표설정 및 비전, 조직 및 인력, 재정, 시설, 자료 및 정보 서비스, 사업, 교류협력 등 7개의 평가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세부평가 지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표4-5〉 참조]
 - 가중치는 각각의 세부평가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1~4점까지 각각 배분하였으며, 총 배점은 가중치를 부가하여 500점으로 하였음

〈표 4-5〉 문학관 평가지표²⁷⁾예시

평가 영역	세부평가 지표	가중치	배 점
목표설정 및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수립 및 추진실적	3	15
	운영제도 및 프로그램 개선 노력	3	15
	지역특성화 및 우수 운영 사례	4	20
	소계	10	50
조직 및 인력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1	5
	관장(운영책임자)의 전문성	2	10
	기관운영의 자율성	1	10

²⁷⁾ 2000~2004 실시된 문화부의 문화기반시설 평가 틀 가운데 ‘문화의집’ 참조. 이 때 문화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등을 지칭함. 문학관의 경우도 이 평가 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평가 영역		세부평가 지표	가중치	배 점
조직 및 인력		직원 현황	2	10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2	10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외부 전문인력 참여 정도	2	10
		자원봉사자 및 외부인력 인턴제도 활용 등	3	15
		소계	13	65
재정		예산 규모 및 구조	2	10
		자료구입비 비율	2	10
		기획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	2	10
		재원개발 및 외부지원금 확보와 활용 여부	2	10
		재정의 건전성	2	10
		소계	10	50
시설		시설 및 기자재 확보정도	2	10
		각 시설별 공간 활용 정도	2	1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여부	2	10
		시설의 개방 정도	2	10
		정기점검 실시 여부	2	10
		소계	10	50
자료 및 정보서비스		소장 자료 종류별 구비 정도	3	15
		연간자료 증가율	2	10
		연간자료 이용자 수	3	15
		실제 이용되는 자료 수	2	10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도	2	10
		운영서류 작성및 비치	3	15
		소계	15	75
사업		문화 프로그램 건수	3	15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특성화	3	15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규모	2	15
		동호인(동아리) 활동	3	15
		전문예술개(단체)의 공연 및 전시사업 건수	2	10
		지역주민들의 작품전시 및 공연사업 건수	3	15
		상설 프로그램 운영	3	15
		문화환경 특성 파악 반영 실적	3	15
		이용자 특성 및 수요 반영도	3	15
		소계	25	125
교 류 협 력	홍보	홍보 활동 내역	2	10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내역	2	10
	마케팅	연간 이용자 수	3	15
		이용자 개발 노력 여부	2	10
		회원제도 활동 여부 및 방법	2	10
		마케팅 활동 내역	2	10
	협력관계	지역내 타 문화기관과의 협력관계	2	10
		타 지역문화기관과의 교류활동	2	10
	소계		17	85
총 계			100	500

2) 지역문학관 협력지원체계 관리

(1) 광역단위별 문학관협의회 구성: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체계 관리

- 광역단위별로 문학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문학관에 대한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문학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예컨대, 강원(김삿갓, 김유정, 이효석문학관, 만해문학박물관, 토지문화관), 부산(이주홍, 추리, 요산문학관), 경남(마산, 경남, 김달진, 청마, 박재삼, 이병주, 평사리문학관), 충북(농민, 정지용, 원서 충주, 오장환문학관) 등으로 묶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 도 단위 차원의 문학관 현황과 운영실태가 조사되어 문학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²⁸⁾
- 광역지자체는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자를 문화관광부서에 배치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함. 또한 문화지도 등의 자료제작 시 반드시 문학관을 표시하고 탐방일정에 문학관을 명기하도록 해야 함

(2) 인근 10km 반경 내 지역문화시설 및 문화자원과의 연계 관리

- 지역문학관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근 10km 반경 내 지역문화시설 및 문화자원과의 연계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첫째, 가능하면 문학의 흐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함
 - 예: 군산의 채만식 [탁류] 일정, 순천의 조정래 관련일정(선암사, 태백산맥문학관)
- 둘째, 주변 관광지, 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코스를 설정함
 - 예: 이주홍문학관(우장춘박물관-금강공원-동래읍성-북천박물관), 정지용문학관(생가터 등)
- 셋째, 문학관을 중심으로 함께 다른 볼거리를 연계도록 함
 - 예: 진해에 위치하고 있는 김달진문학관의 경우, 생가터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지역주민이 '김씨박물관'(근대사박물관 형태)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마을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문학관 일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문학관 부대시설로 '작은 도서관' 설치

- 문학관의 기능을 다변화하여 부대시설로의 작은 도서관 설치가 필요함. 현재 대다수의 문학관이 작가의 문학적 유산 및 유품 보존 및 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문학관이 지역민을 위해 '문학교육적 기능' 및 '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부산의 이주홍문학관은 2007년 11월 작은 도서관 설립인가를 받았음. 「인가증」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주택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지

²⁸⁾ 전국문학관협회 연수 자료(2005년): 전상국(김유정문학촌장) '강원 지역 문학관 운영사례'

- 역주민들, 특히 주부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아동문학을 주 콘텐츠로 하고 있는 곳인 만큼 작은 도서관에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 다른 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구상문학관으로서 문학관 자체가 관광자원화를 위한 인근 연계관광시설이 없기에 초기부터 지역민과 학생들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제공함
 - 비록 구상문학관이 처음 설립목적인 구상시인의 업적을 기리기에는 문학관이 활성화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여겨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시설로서 지역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문학관의 효용성은 여전히 중요함

제4절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제언

1. 문학관 건립 및 시설지원 정책

1) 지역 문학관 건립 목표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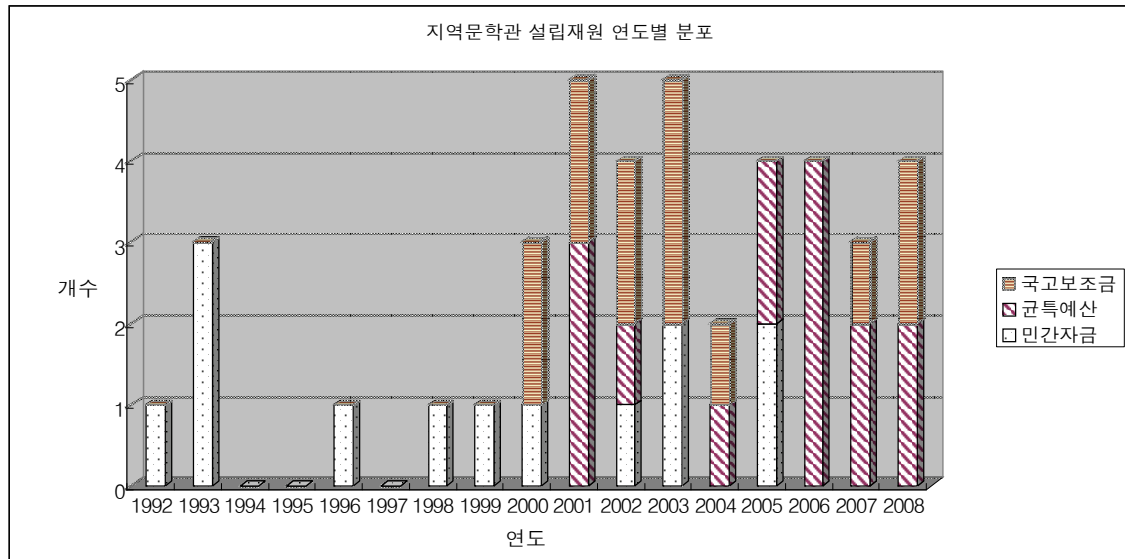
○ 문학관 건립 추세분석

- 지금까지 건립된(건립이 확정된 문학관 포함) 지역문학관의 현황은 [〈표 4-6〉참조] 아래와 같음

〈표 4-6〉 지역문학관 건립재원별, 연도별 건립현황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민간 자금	1	3	0	0	1	0	1	1	1	3	1	2	0	2	0	0	0	16
균특 예산	0	0	0	0	0	0	0	0	0	0	1	0	1	2	4	2	2	12
국고 보조금	0	0	0	0	0	0	0	0	2	2	2	3	1	0	0	1	2	13
계	1	3	0	0	1	0	1	1	3	5	4	5	2	4	4	3	4	41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4] 참조>와 아래와 같이 나타남



[그림 4-4] 지역문학관 건립재원별, 연도별 분포현황

- 문학 부문의 유일한 문화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학관은 시설 건립 초창기인 90년대에는 개인 또는 사단,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주도로 건립되기 시작하였음
- 그 후 2000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통한 문학관 건립이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는 균특예산 지원을 통한 문학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2005년을 끝으로 더 이상 민간 자금에 의존한 문학관 건립은 발견되지 않는 대신 일부 국고보조금 활용 문학관과 균특예산 활용 문학관 건립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최근에는 균특예산에 의존한 문학관 건립이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문학관 건립 목표의 설정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역문학관을 문학 장르 부문의 문화기반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학 향수 증진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특히 문학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문학관 건립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유명 문학인의 배출 절대 수 등을 고려하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 232개(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행정구 포함) 모두에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정책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 정부의 지역개발 기조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나 4대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건립 중장기 정책의 검토 과정에서 이미 제시된 문화기반시설의 복합공간화, 생활권 단위의 문화기반시설 건립 정책의 취지 및 인구 희소 자치단체인 농어촌 지역과 인구 과밀지역인 대도시 지역이 혼재된 행정단위를 고려할 때 자치단체 총 수의 50%인 115개 내외를 중장기 건립 목표로 설정코자 함
 - 이 경우, 현재 건립되어 운영 중인 45개관(41관+4관) 및 건립계획이 확정된(균특예산 배

정) 13개관 등 58개관 외에 추가로 최소 57개관을 건립 목표로 설정함

- 최근의 추세로 판단하면 더 이상 순수 민간 문학관 건립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고 보조금을 통한 문학관 건립도 감소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목표치인 115개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5개 내지 6개관의 문학관을 추가로 건립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균특예산의 지속 지원과 확대 필요성

-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학관의 효용과 당위성에 근거하여 향후 균특예산의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더하여, 현재까지 매년 3~4개의 지자체에 지원하였던 균특예산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앞서 설정한 문학관 건립 목표에 도달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지역문학관의 설립재원 중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 받은 총 25개 문학관은 평균 7억8천5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기 운영 중인 문학관의 경우, 평균 2~30억원 정도의 건립비가 소요되었으며, 최근 건립된 문학관의 경우에는 3~40억원 또는 80억원까지 소요된 사례(태백산맥 문학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의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목표치 115개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개관 평균 지원금 10억원×5개소(최소)=50억원, 또는 15억원×6개소(최소)=90억 원 정도의 국고(균특예산) 예산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지역문학관 건립 조건 및 이행 여건 마련

- 지역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문학관 건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향후 운영에 대한 정책과 우수모델뿐만이 아닌 문학관 건립 시부터 문학관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학관은 건립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지자체와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시설로서 문학관과 사단이나 재단 등 민간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민간문학관이 존재함
- 이 중 국가예산²⁹⁾을 통해 건립된 문학관은 일정부분 문광부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건립을 하게 되지만, 실제 심의 과정이 몇 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어 지자체에 배분되면 이후 문학관이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림. 또한 지자체에서 국고예산만으로는 문학관을 짓기에 불충분하여 지자체의 자체 예산이나 도비 등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임
- 문학관 건립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문학관 건립의 가이드라인의 부제로 실제 지자체에서

²⁹⁾ 대부분 균·특예산이며, 이외 문학관 건립 대상에 따라 다양한 국가예산이 지급되고 있음

문학관을 건립할 때 문학관을 문화시설의 일부로 보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건물을 건립한다는 차원으로 여기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이후 문학관을 운영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문학관에서 기획 전시나 체험학습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남
 - 충남의 한 문학관은 2층에 위치한 창작집필실을 보안상의 문제로 사용하지 못함
 - 전남의 한 문학관 역시 창작집필실을 운영하는데 보안상의 문제로 여러 번의 보수과정 후에야 집필실을 운영할 수 있었음
- 문학관 건립에 있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지자체가 수십억의 자금을 투자하여 지어진 문학관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는데에만 집중된 나머지 건립된 이후 운영에 있어 예산 문제, 프로그램 문제, 인력충원 문제 등이 발생함
 - 전남의 한 문학관은 80억 원을 들여 문학관을 건립하였으며, 문학관의 하드웨어인 문학관 건물과 전시 내용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훌륭함
 - 하지만 앞으로 운영에 있어 특히 지역민의 문화향유 수단의 하나로서 이 문학관은 많은 한계점을 표출함. 특히 문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부제로 향후 이 문학관이 지역민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짐
- 문학관 위치의 전략적 선택
 - 각 지역문학관의 기능 및 역할, 처해있는 환경 등에 따라 설립위치의 전략적 선택이 제기됨. 즉 지역민의 문학향유공간으로서, 그리고 문학교육의 기능 등이 요구된다면 문학관 위치는 접근성이 편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생가보존 및 추모, 창작 집필실, 그리고 문화관광적 기능 등이 요구된다면 지역에서 중심지가 아닌 생가지나 외곽지역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 문학관 건립 위치는 주로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접근성 고려보다는 부지 확보의 원형성 및 특정작가의 생가터 부근에 지정됨에 따라 문학관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됨
 -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작가의 정신을 향유하는 공간으로서의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학관의 위치가 점점 더 지역의 중심부에서 멀어지게 됨
 - 그러므로 앞으로 문학관의 역할이 지역민의 문학향유공간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요구된다면 문학관 위치의 전략적인 선택이 제기되고 지역민의 접근성이 원활한 곳 건립 요구가 있음
 - 기존 문학관의 경우, 도로표지판, 안내판 등이 다른 문화관광지와 함께 제작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등 도시지역에서는 지하철 안내 및 문화 관광 리플렛에 공공문화시설과 함께 문학관도 함께 표기해줄 것을 요청함
- 지역출신 작가를 위한 복합문학관 건립의 필요
 - 현재까지 건립된 문학관의 대부분은 특정 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학관이 대부분이며, 이는 각 지자체의 경쟁을 낳게 되었고 결국 문학관의 양적인 팽창의 동력이 됨

-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제기 되었는데 무엇보다 유명문학인을 배출하지 못한 지자체는 문학관 건립의 명분을 쌓기가 힘들게 됨
- 더불어 문학관이 특정인물의 업적에 의존하기에 문학관 운영이 전시위주로 흐르게 되고, 결국 문학관 활성화의 저해요소로 꼽힘
- 따라서 앞으로 문학관 건립에 있어 특정작가를 위한 문학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학관 건립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배려와 함께 문학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문학관 건립의 이행 여건마련
 - 문학관 건립 기본 조건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배정 심사 시 가점과 감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학관 활성화에 도움 될 것임
 - 무엇보다 예산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자체 문학관 담당자들의 지역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실제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장애요소가 존재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 지침필요
 - 지자체 설립의 문학관뿐만 아니라 검증된 단체 및 기관의 문학관 건립 시 국고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문학관은 특정작가를 위한 문학관이 대부분인데, 검증된 단체 및 기관에서 건립 시에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지자체의 예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도비 및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특정작가들의 문학적 유산 등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문학관을 건립하고 확장 시 문학관 건립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지역 문학관 컨설팅을 위한 전문 기구 설립지원

- 컨설팅 기구의 필요성
 - 지자체 및 단체, 개인의 문학관 건립 시 외형 위주의 건립 안이 주가 되어서 내실 있는 전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협회 전문 인력과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비슷한 형태의 문학관 건립이나 난립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컨설팅 기구를 한국문학관협회 내에 설립필요
 - 지역문학관의 목적 및 위치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및 건립형태를 고려한 컨설팅 자문
 - 또한 일부 문학관의 경우 도로표지판, 안내판 등의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는 문학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서 기인되었음
 - 현존작가 개인문학관의 경우, 한국문학관협회 등록이 어려우며 또한 지원에 대한 제약음

받고 있음. 그러므로 건립단계부터 문학관건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 문학관 시설디자인 측면에서의 지원
 - 문학관 설계 시 작가의 문학적 유산 및 유품 보존 및 전시의 기능뿐 만이 아니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학관 고유의 주요 콘텐츠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설디자인에 대한 지원필요. 시설디자인을 위한 컨설팅 기구 설립

4) 문학관의 관광단지내 설치 시 고려할 점

- 지역문학관이 관광단지와 연계되는 경우 장·단점이 상존함. 문학관이 관광단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관람객 증대 및 문학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관광단지 전체에 주안점을 둘 경우 문학관으로서 위상은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남 하동에 위치한 평사리문학관과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이효석문학관의 경우 현재 지역 관광단지 내 위치해 있음
 - 평사리문학관의 경우 가상의 문학공간을 관광단지화한 최참판댁 내에 위치하고 있음. [토지]라는 소설을 컨셉으로 한 곳이긴 하지만, 문학관자체의 위상은 낮은 편임
 - 이효석문학관 역시 효석문화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고 평창군의 직접운영으로, 그리고 이효석문학선양회의 도움을 받아 관람객유치 및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례임. 그러나 문학관 자체에 대한 관심과 위상제고가 필요
 - 평사리문학관 역시 하동군 사업소 관할로 들어가 있고, 문학인이 명예관장제로 활동하고 해설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평사리문학관만 놓고 볼 때 스쳐지나가는 부속시설에 불과함
 - 이의 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관광단지내 문학관 배치 시 문학관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학관련 사업은 부진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관광단지내 위치해 있는 문학관의 경우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문학관 신규 사업 지원정책

- '09년 문학관 사업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표 4-7>와 같음
- 문학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 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타기관³⁰⁾ 들은 '문학'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간접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음

³⁰⁾ '09년 현재 문학관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문학부문에 대한 간접지원형태를 띤 기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뉴딜사업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창작지원, 아르코 영 아트(Arko Young Art Frontier) 지원, 청소년 문예지 발간 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기념시설 건립사업, 예술뉴딜·녹색뉴딜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전용공간사업(문학관 및 창작집필실)

〈표 4-7〉 '09년 문학관 사업 지원정책 현황

지원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및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인기념시설 건립사업: 4,59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문학관(동구): 540백만원 ○ 박경리문학관(통영시): 650백만원 ○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합천군): 300백만원 ○ 복합문학관(순천시): 266백만원 ○ 시문학파기념관(강진군): 306백만원 ○ 여초서예관(인제군): 1,300백만원 ○ 이문구문학관(보령시): 800백만원 ○ 고암 이응노화백기념관(홍성군): 430백만원
	예술뉴딜, 녹색뉴딜사업 : 1,150백만원(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예술뉴딜): 1,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80여개 문학관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1관 1명) - 문학프로그램 개발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낭송 프로젝트 “포이트리 콘서트” (녹색뉴딜): 150백만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예술전용공간사업 (문학관 및 창작집필실) : 약 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창작 집필실 활성화 사업: 20백만원~100백만원 ○ 우수문학 향수프로그램 보급사업: 10백만원~3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9)의 내부자료 재구성

-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행해지는 문학관 지원정책은 시설에 있어서는 문학관 건립지원 및 창작집필실 활성화사업, 인력에 있어서는 문학작가 파견사업,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녹색뉴딜 및 우수문학 향수프로그램 보급사업 등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음. 그러므로 문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음과 같은 신규사업 지원정책을 제안함[〈표 4-8〉 참조]

원, 예술 보존조사 연구지원, 전국규모 주요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국내작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남북 및 재외동포 교류 지원, 문학특성화사업(우수문예지 구입·배포사업, 작고문인 선집 발간 지원), 사이버 문학광장, 문학나눔사업(복권기금 사업)

- ③ 서울문화재단: 생활속 예술지원, 문학창작활성화사업,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 책 읽는 사업 ‘독서캠페인’, ‘책다방’ 운영
- ④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문학), 문고지원
- ⑤ 경기문화재단: 정기공모사업에 문학분야 포함
- ⑥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학상, 대산창작기금, 대산대학문학상, 대산청소년문학상, 국제문학교류, 대학생동북아대장정,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표 4-8〉 문학관 신규사업 지원정책 개발 예시

구 분	신규사업명	내 용	비고
시설	문화예술인기념시설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카페 보급사업: 1문학관 1북카페 오픈사업 ○ 문학교육양성지원 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실 및 세미나실 확충 - 작은 도서관 확충(해당 작가 및 지역작가들의 책) - 기념작가 및 문학 해설 터치스크린 기기 보급 ○ 부대시설 확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장고 - 휴게실 및 화장실 등 ○ 전시관 보존자료 시설지원 사업(약품처리 및 보존) 	확충 및 리모델링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컨설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건립 전 건립 타당성 컨설팅사업 ○ 문학관 시설 디자인 컨설팅사업 	한국문학관 협회 내에 컨설팅 기구설립
인력	문화예술인력 뉴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소장자료 DB구축 파견사업 ○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해외 및 국내 문학관 벤치마킹 투어프로그램 - 문학관 해설 및 자료정리봉사자 교육 ○ 문학관 전시 컨설턴트 지원 	한국문학관 협회 주관
프로그램	문학관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홍보물 개발 및 업데이트 지원사업 ○ 기획전시 액자 지원사업 ○ 소외계층 청소년 문학관 투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바우처’를 이용한 투어참가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학습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연령별 해당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학습체험자료 개발 및 제작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문학기행 및 탐방 등) ○ 전국 문학관 지도 제작 	상시 및 기획 프로그램 포함

○ 시설부문 문학관 신규사업 지원정책으로 ‘문화예술인기념시설 활성화사업’ 및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제안함. 문학관 건립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던 지원정책을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그리고 문학관 추후 건립에 대한 컨설팅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설확충에 있어서 문학관이 지역주민 및 지역작가들에 있어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북카페 등이 없는 문학관에 시설지원을 확충하여야 하며, 문학관이 문학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영상실, 세미나실, 작은 도서관 확충, 해설터치스크린 기기 등의 시설지원이 필요함
- 또한 문학관 건립당시 간과되었던 수장고 및 부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전시관의 보존자료 등이 훼손되고 부식되는 등 작품 및 유품에 있어 지속적인 보존의 필요성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또한 요청됨
- 문학관 건립에 있어서 지역문학관 건립 전 건립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지원 정책이 필요함. 문학관 실무운영자들로 구성된 컨설팅 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추후에 확충되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인력부문 문학관 신규사업 지원정책으로 ‘문화예술인력 뉴딜사업’을 제안함
 - 문학관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학 및 도서관, 단체 등에서의 열람요청 등이 있으나 희귀본인 경우가 많아 열람에 있어 제약이 있음. 그러므로 문화예술인력 파견을 통한 DB구축지원이 요망됨
 - 또한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사업이 필요한데, 한국문학관협회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운영예산에 대한 불규칙적인 지원으로 ‘09년에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문학관에 대한 벤치마킹 투어프로그램의 재 실시 및 활성화필요. 한편 문학관 자체에서 교육시기에 부담이 되는 문학관 해설 및 자료정리 봉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 및 서비스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 프로그램부문 문학관 신규사업 지원정책으로는 ‘문학관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을 제안함. 기존의 프로그램 단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부문에 있어 지원정책이 필요함
 - 상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 업데이트, 신규 기획전시회에 대한 홍보물 개발 및 제작 그리고 기획전시에 있어 액자 제작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학관 투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관심증진 및 문학향수 공유
 - 문화예술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학관 해당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학습체험자료 개발 및 제작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애니메이션 및 문학관 체험학습자료 제작 등을 통해 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문학관 체험학습 길잡이를 제시함[<부록2: 이육사 문학관 체험학습 길잡이>]
 -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이 필요함. 예컨대, 부산문화연구회는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주홍문학관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놀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문화탐방학교]³¹⁾를 실시하였음. 이와 같은 문학관용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³¹⁾ 2005년 12월 18일 실시된 제52기 어린이문화탐방학교의 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음. ‘독서신문만들기와 연극놀이를 통한 동화읽기’(오전9시~오후5시) -이주홍문학관견학, 금강공원 이주홍시비탐방, 재미있는 독서신문만들기(이주홍의 아동소설 [메아리]를 주제로), 연극바로알기와 <메아리>연극보기(극단<맥>출연), <메아리>연극만들기와 공연하기

3. 문학관 활성화 전략 방안

1) 지역문학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로드맵

- 문학관 활성화 방안은 정부(지방정부 포함), 지역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이라는 세 주체의 적극적 역할 분담에 의해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정책의 개입주체는 5개년을 목표로 준비단계, 시행단계, 안정 및 정착단계로 나누어 각종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다음 <표 4-9>로 사업을 제안함

<표 4-9>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 로드맵

정책개입주체	중장기 전략 (5개년)		
	09 (준비단계)	10 (시행단계)	11~13 (안정 및 정착단계)
	(각종 시행계획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운영 매뉴얼 및 지침 개발 - 부대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연도별 예산 조사 및 반영 계획 - 문학관학예직 법적 근거마련 - 직영에서 위탁체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지침 전국 지자체 배포 - 표준 조례 지침 개발 - 민간단체 위탁시행 -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에 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학관 리모델링 예산 반영 - 민간단체 위탁 시행 계속 - 문학관 활성화 연구 계속
문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의 도입 - 인근 문화시설 및 단체, 동아리, 문인 협회 등과 지역 내, 지역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연계 코스 개발 - 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교육프로그램 확대 - 지역교류 프로그램 확대 - 특성화 프로그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교육 및 지역교류 프로그램 계속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계속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평가시스템 구축 - 문학관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평가 실시 -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평가 계속 및 인센티브 제공 - 문학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계속 - 시설 및 프로그램 컨설팅 시범 사업 실시

2) 지역문화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이행체계 방안

- 첫째, 시설 상의 현황, 문제점, 해결책, 역할분담, 중장기 전략상의 우선순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황: 전국 문화관 41개 조사결과 운영형태는 직영 17곳, 위탁 7곳, 개인 6곳, 단체 11곳
 - 문제점: 문화관에 대한 인지도 낮음, 문학콘텐츠 담은 설계디자인 약함, 접근성 떨어짐, 10년이상 된 곳의 노후화 및 하자 보수 증대, 관광단지내 문화관의 위상 모호
 - 해결책: 시설 설계 디자인 컨설팅, 주변경관 어우러진 에코 뮤지엄 지향, 인근 관광지 연계, 체험코너 등 부대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지원, 문화관 표지판 등 알림 표식 강화, 관광단지내 문화관 시설부각 표식 강화, 문화관 정책 마인드 고양
 - 역할분담: (정부) 문화관을 지역의 주요 문화기반시설로 대등한 위상 정립, 지역문화기반시설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시설관리운영 매뉴얼 및 지침 시행, 표준조례 시행 및 지역조례 점검체제 구축, 시설확충 및 시설노후화 리모델링 중장기 예산 수립 (지역문화관) 문화시설, 관광지 연계 코스 개발 (협회) 컨설팅 기능 확충
 - 중장기 전략상의 우선순위: 문화관 운영 매뉴얼 및 지침 개발, 리모델링 연도별 예산 조사 및 반영 계획, 컨설팅 자문단 구성, 연계 코스 개발
- 둘째, 인력 상의 현황, 문제점, 해결책, 역할분담, 중장기 전략 상의 우선순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황: 운영 실무인력은 평균 2~3명이며, 인력형태는 전문학예사, 문학단체 실무자, 관리직, 자원봉사자, 인턴 및 공공근로
 - 문제점: 운영을 위한 절대인력의 부족, 인력에 비해 시설관리에 시간투여 높아 상대적으로 기획력 떨어짐, 인턴, 공공근로 등의 보조인력의 지속성 보장되지 않음
 - 해결책: 관리직과 학예직(프로그램 인력)의 이분화, 문화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 및 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 배치
 - 역할분담: (정부) 문화관 전문학예사 배치 기준 마련, 민간전문단체 위탁화, 문화관 위상 제고 (지역문화관) 시설관리와 사업의 이분화 노력, 자체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역문인과 문학동아리 활성화로 인력강화 (협회) 실무자 및 자원봉사인력 양성 교육, 동일사업에 대한 지역별 네트워크 컨설팅
 - 중장기 전략상의 우선 순위: 문화관 학예직의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 직영에서 전문단체 위탁체제 검토, 문화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
- 셋째, 프로그램 상의 현황, 문제점, 해결책, 역할분담, 중장기 전략 상의 우선순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황: 전시(상설 및 기획), 문학강좌 및 교육, 자료정리 및 보관, 홍보 및 출판, 창작집필실 운영, 문학(축)제 운영, 문학기행, 백일장 낭송회, 문학콘서트, 문학국내외 세미나 등 운영
 - 문제점: 예산상의 이유로 기획전시 거의 못함, 안내 해설 프로그램 빈약, 문학콘텐츠 빈약

한 문학제 백일장 시낭송회

- 해결책: 기획전시로 관람객 증대, 안내 및 해설프로그램 강화, 문학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문학기행, 문학콘서트 등으로 문학향수층 저변확대, 지역문인 유치위한 세미나 및 행사 기획
 - 역할분담: (정부) 문화마케팅과 문화예술교육지원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프로그램의 분리, 문학관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강화 (지역문학관) 문학동아리 및 문학단체 활성화, 인근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와 교류프로그램 확대 (협회) 전국문학관 안내 홍보자료 개발, 프로그램 컨설팅 및 지역간 교류프로그램 지원, 문학관 활성화 세미나 매년 개최, 문학관 평가체계 구축
 - 중장기 전략상의 우선순위: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의 도입, 문학관 평가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 구성, 인근 문화시설 및 단체 동아리 문인협회 등과 지역내 지역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위에 열거한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체계 방안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4-10〉]와 같음

〈표 4-10〉 지역박물관 활성화 이행체계

요소	현 황	문제점	해결책	정책개입의 주체	중장기 전략 (5개년)
시설	2009년 현재 45개 문학관 중 본 연구에서 41개 문학관 분석 직영: 17 위탁: 7 개인: 6 단체: 11	-문학관 인지도 낮음 -문학콘텐츠 담은 설계디자인 부족 -접근성 떨어짐 -노후화 하자 보수 증대 -관광단지내 문학관 위상 모호	-시설설계디자인 컨설팅 -주변 경관 어우러진 에코뮤지엄 지향 -인근 관광지 연계 -리모델링 지원 -체험코너 보완 -표지판 알람표식 강화 -관광단지내 문학관 시설 부각 표식 강화 -문학관정책 마인드 고양	(정부) -주요 문화기반시설로 대등한 위상정립 -지역문화기반시설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시설관리운영 매뉴얼 및 지침 시행 -표준조례 시행 및 지역조례 점검체제 구축 -리모델링 중장기 예산수립 (문학관) -문화시설, 관광지 연계 코스 개발 (협회) -컨설팅 기능	-문학관 운영 매뉴얼 및 지침 개발 -리모델링 연도별 예산 조사 및 반영 계획 -컨설팅 자문단 구성 -연계 코스 개발
인력	(운영실무인력) 평균 2~3명 (인력형태) 전문학예사 문학단체실무자 관리직 자원봉사자 인턴(공공근로)	-절대인력 부족 -시설관리에 시간 소모 -기획력 떨어짐 -보조인력(인턴, 공공근로 등) 지속성 보장되지 않음.	-관리직과 학예직의 이분화 -문학관 전문직 양성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배치	(정부) -문학관 전문학예사 배치 기준 마련 -민간전문단체 위탁화 -문학관 위상제고 (문학관) -관리와 사업의 이분화 노력 -자체 자원봉사자 양성 (협회) -실무/봉사인력양성 교육(직접 또는 위원회 의뢰) -동일사업 지역별 네트워크 및 컨설팅	-문학관학예직 법적 근거마련 -직영에서 위탁체제 검토 -문학관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

요소	현 황	문제점	해결책	정책개입의 주체	중장기 전략 (5개년)
프로그램	-전시(상설, 기획), 안내 -문학강좌, 교육 -자료정리, 보관, -홍보, 출판 -창작집필실 운영 -문학(축)제 -문학기행 -백일장, 낭송회 -문학콘서트 -문학국내 외 세미나	-기획전시 예산 등의 이유로 거의 못함 -안내 해설프로그램 빈약 -문학콘텐츠 빈 약한 문학제, 백일장, 시낭송 회	-기획전시로 관람객 증대 -안내 및 해설프로그램 강화 -홍보 강화 -문학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문학기행, 콘서트로 문 학향수층 저변확대 -지역문인 유치위한 세미나, 행사 기획	(정부) -문화마케팅과 문화예술교육지 원위해 위원회와 진흥원 프로그램 지원분리 -문학관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강화 (문학관) -문학동아리, 문학단체 활성화 -인근 문화시설 및 단체와 교류 프로그램 확대 (협회) -전국문학관안내 홍보자료 개발 -프로그램 컨설팅 및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문학관 활성화 세미나 매년 개최 -문학관 평가 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의 도입 -문학관 평가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컨설팅 자문위원 구성 -인근 문화시설 및 단체, 동아리, 문 인협회 등과 지역 내,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3) 지역문학관 특성별 운영형태 예시

- 문학관은 문화체험공간으로, 문학교육과 문학연구 및 창작집필 공간으로, 지역관광 거점 공간, 문학자료수집 및 전시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제한된 시설과 인력으로 모든 요구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설특성에 따른 운영특성화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는 방안을 아래 <표 4-11>와 같이 제시함

<표 4-11> 지역문학관 운영형태 예시

시설특성	문학관 예시	인력 강화	프로그램	보조 시설
지역관광 거점	김유정문학관, 이효석문학관, 김삿갓문학관, 이병주문학관, 평사리문학관, 이육사문학관, 태백산맥문학관, 한국가사문학관, 미당시문학관, 아리랑문학관, 채만식문학관, 만해문학체험관, 정지용문학관, 만해기념문학관	-문화관련(관광, 생태, 숲, 마을) 해설 인력 -기획 인력	-문학콘텐츠 연계관광화 시도 -지역성과 문학성 결합 안내 및 해설프로그램 개발	-북카페 -문화상품 개발판매
근린 문화공간	만해기념관, 김달진문학관, 마산문학관, 박재삼문학관, 청마문학관, 구상문학관, 백수문학관, 동리목월문학관, 요산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조태일시문학관, 최명희문학관, 문학의 집·서울, 충주문학관, 오장환문학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문화자원봉사자	-작은도서관 지정받아 지역주민 직접활동 공간으로 문학관 활성화 -지역문화단체와 교류프로그램	-북카페 -문화상품 개발판매
문학 박물관 - 전시관	청류재수목문학관, 경남문학관, 추리문학관, 문학의 집 서울, 세계여성문학관, 영인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한무숙문학관, 목포문학관, 농민문학기념관	-사서 인력 및 자원 봉사자	-기존 박물관, 전시관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창작지원 공간	만해문학박물관 토지문학관	-시설관리 인력	-문학세미나 유치	

참고문헌

- 강희근. 2008. “지역 문학이 가는 길.” <지역문화 창달 및 문학관 활성화 토론회>. 이병주문학관 주최 세미나(2008.11.22).
- 경기문화재단 편. 2006. 『경기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연구』. 경기문화재단.
- 고승철. 2008. “재조명 받는 이병주 문학.” 『신동아』 제589호 (10월 1일).
- 김선태. 2007. “목포출신 대표문인들의 활동과 목포문학의 발전 방안.” 『현대문학이론연구』 30.
- 김성중. 2005. “추리문학관의 어제와 오늘.” 『문학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학관협회.
- 김원일. 2005. “지방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문학관.” 『문학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학관협회.
- 김종우. 2008. “한국문학관 운영 현황과 전망- 프랑스의 경우와의 비교.” 『현대문학이론연구』 33(1).
- 김종희. 2008. “지역문화 창달과 이병주 문학.” <지역문화 창달 및 문학관 활성화 토론회>. 이병주문학관 주최 세미나(2008.11.22).
- 김희경 외. 2008. 『이야기를 파는 나라, 일본』 미래의창.
- 문화관광부. 2006.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서의 문화의집 발전방안』.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연구』.
- 이규식. 2004. “문학관에서 ‘에코뮤지엄’으로.” 『대전문학』 31.
- 이성모. 2008. “지역문학관 운영, 이상과 현실의 거리.” <지역문화 창달 및 문학관 활성화 토론회>. 이병주문학관 주최 세미나(2008.11.22).
- 전북작가회의. 2008. 『작가의 눈』.
- 전상국. 2005. “강원지역문학관 운영 사례.”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학관 협회.
- 정경운. 2005. “한국문화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5(0).
- 정우영. 2005. “누가문학관을 살리는가.”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학관 협회.
- 조병권. 2009. “문학기행-문화 풀뿌리가 주인이다.” 『중앙일보』 (1월 4일).
- 조병화시인기념사업회. 2008. 『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2009. [전국문학관운영활성화지원(공) 사업결과] 내부자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3. 『문화의집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문학관협회 편. 2007. 『전국문학관 찾아가기 - 문향을 따라가다』. 한국문학관협회.
- 한국문학관협회 편. 2008. 『전국문학관 소장자료 기초조사 사업』. 한국문학관협회.

한국현대문학관. 2008. 『문학관』.

○ 홈페이지

각 지역 문학관 홈페이지

동인지문학관 홈페이지 <http://donginji.arko.or.kr/>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셰익스피어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shakespeare.org.u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문학관협회 <http://www.munhakwan.com>

황순원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soonone.com>

헤밍웨이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ehfop.org>

ABSTRACT

A Study for the Developing Plan of the Literary Center

Lee, won-tae/

Lee, choon-ah /Han, jin-young /Jeong, jeong-hun

The Literary Center have taken an important role of promoting cultural life in local areas by providing the relics of special writer(s) and literature programs to the public. This study aims to encourage the role of the venues and develop policy agenda regarding 'good' operation of the Literary Center. The study is divided into three areas.

In the first area, current situation of the Literary Center is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 research and some issues around the venues is identified.

In the second area, the cases of foreign literature memorial center such as England and Japan etc. are examined in the second place.

In the final stage, operation manual of the venues is designed for the 'good' management and some policy suggestions are recommend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of the Literary Center, it is revealed that sharing common understanding of the aims and missions of the venues are very important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venues. Regional character also should be reflected to the programs for the 'good' result of the venues' activities. To identify target groups and develop specific programs for them enables the venues to do their work more efficiently. Foreign cases show that those operation and programs which correspond to the social context and regional character of each society are the most important to successful management of cultural organizat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six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Firstly, the Literary Center should intensify their role as a key center for local culture. For this purpose, the venues should reject commercialization trend and fortify their public characteristic.

Secondly, professional management skill should be developed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taff should be increased.

Thirdly, common understanding of the aims and missions of the Literary Center should

be shared between all staffs.

Fourthly, networks between the Literature House should be established and developed in order to exchange useful information and program, and encourage cooperative activities.

Finally, a various type of the Literary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nd various kind of program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enable people to raise their cultural standard.

부 록

표준 조례안 예시
초등학생들의 체험 학습 길잡이
2009년 지역문화관 현황 조사표
지역문화관 현황 조사 결과표

부록 1. 표준 조례안 예시³²⁾

00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건립한 00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전시관, 기획전시실, 문학체험실, 창작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00문학관은 00시에 설치하고, 그 전시시설은 00으로 구분·운영한다.

제4조(기능)

- ①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취득 및 전시·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문학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³²⁾ 표준조례안 예시는 2008년 2월 18일 제정된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관리) 문학관은 00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운영·관리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 ①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에 따라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00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하되 산정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 (무료관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8.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보훈대상자
 9. 전시물 기증 등 문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0.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11.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2. 「00시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권)

-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 ② 관람권의 규격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3장 시설의 대관

제12조(대관허가) 시장은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문학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문학체험실
3. 창작교육실

제14조(사용시간)

-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대관허가 신청)

-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대관심사 결과 대관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대관료)

-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제18조(대관료 면제) 시장은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20조제1항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학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00문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00문학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인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관·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경우

제27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의 자문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제30조에 따라 관련 소위원회를 따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문학관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00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 분야의 심의를 위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8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5장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제31조(전시물의 취득) 문학관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32조(전시물의 기증) 시장은 문학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자료를 기증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제33조(전시물관리관 등 지정)

- ① 시장은 문학관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시물관리관”은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전시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전시물출납공무원”은 문학관 담당주사가 되며, 전시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34조(전시물의 관리)

-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전시물의 대여 등)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 당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00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37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문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의2(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문학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징수하고, 회원들에게 문학관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문학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지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0조(운영·관리의 위탁)

-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수탁자의 의무)

- ① 제40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문학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관리 위탁계약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41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3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학관 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록 2. 초등학생들의 체험 학습 길잡이³³⁾

2009 이육사 문학관 체험 학습 길잡이

P1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체험 일시 : 2009. . .

체험한 곳 : 이육사 문학관



도산선생 원혼의 쉼터인 [광포도] 서비 1993년 10월
축사의 묘소는 [광포도]사비에서 약 1km, 모도 광장을 조각으로 만든 작품이 놓여있다. 제각송이여

제 학년 반 번

이름 :

초등학교

33) '2009 이육사 문학관 체험 학습 길잡이'는 2009년 3월 7일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열렸던 '지역문학관활성화정책연구 제1차 워크숍'에서 안동 서선초등학교 김여선 선생님께서 '초등학생 체험학습을 통한 문학관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발제 시 제시한 자료임

□ □ 읽어보기

P2

1. 본 길잡이는 우리가 체험하는 이육사 문학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험하면서 얻는 새로운 나에 대한 발견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2. 본 길잡이를 자세히 읽어보고, 체험 활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과 새로운 생각들을 기록하고 잊지 않도록 합시다
3. 잘 기록한 길잡이는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 □ 다음 시를 읽어 봅시다.

청포도

이 육 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아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 1층 전시관 둘러보기

P3

- ① 제 1전시실 : 육사의 생애
 - ② 제 2전시실 : 육사의 문학 세계
 - ③ 제 3전시실 : 육사의 독립 운동
1. 제 1전시실을 둘러보며 빈 칸을 채우시오.

청포도

이 육사

내 고장 칠월은
()가 익어가는 시절.

이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를 따 먹으면
두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2. 제 2전시실을 둘러보며 빈 칸을 채우시오.

3. 제3전시실을 둘러보며 빈 칸을 채우시오.

□ □ 2층 전시관 둘러보기

P4

- ① 영상 및 세미나실
- ② 휴게 공간 및 기획 전시실
- ③ 체험 코너

1. 2층 전시관을 체험하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적어 봅시다.
(그림이나 시로 표현하여도 됩니다)

□ 육사 문학관을 둘러본 것 되새기기

1. 도착했을 때 나의 마음

2. 1층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거나 생각한 것

3.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거나 생각한 것

4. 문학관을 떠날 때 나의 마음

부록 3. 2009년 지역문화관 현황 조사표

 <p>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p>	<h2>2009년 지역문화관 현장방문 조사표</h2>
--	-----------------------------------

안녕하십니까? 귀 문화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관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인터뷰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수행기관	 <p>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p>	연구담당	연구책임자: 문화예술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 ☎ 02-2669-9836
----------------	--	-------------	--

【 _____ 문화관 】

■ 현지조사개요

- 일 시 :
- 장 소 :
- 조사자:

■ 인터뷰 대상자 요약

- 성 명 :
- 소 속 및 직위 :
- 연락처:

■ 현지조사 관련 기타사항

-
-
-

※ 자유기재

10.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	
11. 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	
12.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13.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부록 4. 지역문학관 현황 조사 결과표³⁴⁾

[경남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p>■ 시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경남 진해시 태백동 산98-1 ○ 개관일 : 2001년 ○ 소유주/대표 : 경남문학모임/김복근 이사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경남출신 문인들의 문학활동 지원과 자료수집 정리와 보관, 도내 청소년과 일반 시민의 문예교육을 위한 설립됨. ○ 연락처 - 전화번호 : (055)547-8277 - 홈페이지 : www.gnmunhak.com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문학관은 경남문인협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고 진해시가 부지를 제공함에 따라 진해에 위치하게 됨. 현재 운영주체는 경남문인협회가 아닌 경남문인모임에 운영하는 형태임. - 보유 장서가 많아 이를 관리해줄 사서담당 인력이 필요함. - 진해, 마산은 인접 도시로서 김달진 문학관 마산문학관 등과 연계한 문화자원봉사자 양성으로 문학교육프로그램, 도서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향을 제안함. 진해 마산 창원 등 잠재인력 들이 많은 곳으로 문화자원봉사인력 양성으로 경남 지역의 문화활동을 기대함. 		

³⁴⁾ 지역문학관 현황작성표는 2009년 2월 한달 간 진행 된 지역문학관 현지조사에 기초해 작성되었다. 부록 3에 있는 '2009년 지역문학관 현황조사표'의 1페이지와 3페이지의 내용으로서 1페이지는 연구자들이 현지조사 후 개별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이고, 3페이지의 내용은 지역문학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희귀자료 상설전시 *기획전시(연2회) *문학체험프로그램- 경남문학제, 화요일의 문학이야기, 환경백일장, 작고문인심포지엄 *문예교육프로그램-문예대학 운영(시, 수필창작반 운영) *연구지, 소식지 발간사업- 연간[경남문학연구]5호 발행, 경남문학관리뷰지 연4회 현재33호 발행 *홈페이지 관리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학관’(시여~ 춤추어라)</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김달진문학관, 진해벚꽃 군항제, 해양관광공원, 안골왜성, 환경생태공원</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p>경남문학관은 도비 시비 보조금과 문인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관계로 희귀자료, 문인자료 등 30,000여권의 자료보존에 필요한 학예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시의 토지무상제공으로 인한 기부체납조건으로 앞으로의 문학관 존립자체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리상의 여건으로 접근성이 어려워 인근의 경남문인들과 시민, 독자들의 참여도가 적은 편입니다. 경남문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귀중한 자료의 활용과 문학공간활성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확보와 접근성이 용이한 창원시나 마산시의 용지확보가 시급합니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문학관 공간 활성화를 위해 첫째는 국가보조금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둘째는 인력확보입니다. 학예사 지원과 사무요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자료발굴과 보존, 자료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문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체험프로그램을 위해 타문학관과의 교류, 타 문학단체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p>

【구상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5-84
- 개관일 : 2002년 10월 4일
- 소유주/대표 : 칠곡군/칠곡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세계200대 문인 중 한명인 구상선생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문학인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 연락처 - 전화번호 : (054)973-0039
- 홈페이지 : www.kusang.chilgok.g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구상문학관은 경북 칠곡군의 작은 읍인 왜관읍에 위치한 문학관임
- 왜관읍 인근의 문화, 관광시설의 미비로 구상문학관은 지역의 문화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
- 하지만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현재는 지역 어린이들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이 가장 큼
- 따라서 구상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학관으로서 지역민의 문학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 스스로 문학관을 칠곡의 문화 중심지로서 인식하고 시급히 문학 관련 학예사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	<p>0 칠곡군민과 인근 도시민들을 위한 문학창작교실이 운영되고 있음(3.5~12.12)</p> <p>0 구상시인이 소장하였던 2만여권의 도서와 300여점의 유품</p>
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	<p>0 거산산성, 송림사, 다부동전적기념관, 가실성당</p>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	<p>0 현재 구상문학관은 1명의 사서 공무원과 1명의 관리직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의 인원으로 문학관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 더불어 1명 있었던 사서 공무원도 5월에 군립 도서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전출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문학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들어진다.</p> <p>0 따라서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력보충이 먼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칠곡군의 불충분한 예산을 문학관으로 전이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의 극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p>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p>0 우선 지자체장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여 문학관에 문학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보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2년전 문학관협회에서 인턴을 구상문학관에 파견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인력 역시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지자체장과 문학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p> <p>0 2-3년전 문학관협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문학관 실무자들의 세미나, 해외연수 등이 다시 부활하면 좋겠다. 당시 참석했던 실무자들끼리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다.</p>

【김달진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남 진해시 소사동 43번지
- 개관일 : 2004년
- 소유주/대표 : 진해시장/(사)시시랑문화인협의회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월하 김달진(1907~1989) 시인의 생가 복원과 문학관을 건립함.
- 연락처 - 전화번호 : (055)547-2623
- 홈페이지 : www.daljin.or.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김달진문학관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자체행사와 인근 학교로 찾아가는 문학교육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담당인력이 한명으로 문화자원봉사자 양성으로 활로를 찾아야할 것임.
- 문학관, 생가가 동시에 조성되어 있어 연계성이 있고, 바로 이웃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김씨박물관’이 있어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마을 분위기를 연출하는듯하여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함. 김씨박물관의 경우 근대사박물관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이곳과 연계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가보존 및 문학관 전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찾아가는시인, 찾아오는 독자와의 만남 『시야놀자』 개최(연10회) * 아이들과 함께여는 문학동네 『문학체험교실』, 『독서체험교실』 운영(연2회) * 문학캠프 운영(연2회) * 제14회 김달진문학제 개최 예정 (2009년 9월) * 김달진문학상 역대수상자 전시 및 시상 (7개부문 상금7,000만원)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흥사 (사찰) * 대장동 자연발생 계곡, 구천계곡 * 응천도요지 * 안골왜성, 안골포 굴강, 명동왜성, 응천읍성등 * 이순신장군 해전지 * 시립박물관 * 진해해양공원, 진해식물원 * 황포돛대노래비 * 신항만 * 흰돌메 공원, 삼포가는길 노래비 * 진해예술촌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위주 학원중심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문학과 독서에 관한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짐.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제반 문학교육 프로그램으로의 기획 전환 *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루한 문학이 아닌 신나고 재미있고 상상하고 사고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필요 * 지역문학과 연계하여(하동 국제이병주문학제, 왜관 구상문학제, 경주 동리목월문학제) 공동프로그램을 기획 주최함으로써 상호 WIN-WIN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김삿갓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913 김삿갓 문학관
- 개관일 : 2003년 10월
- 소유주/대표 : 영월군/영월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난고김삿갓문학관은 난고 김병연의 생애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의 문학과 사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 연락처 - 전화번호 : (033)370-2115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김삿갓문학관 인근에 선민화 박물관, 영월곤충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등 박물관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박물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음
- 7, 8, 9월에 일반인 및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관람하고, 그 외 비수기에는 별로 관람객이 없으므로, 비수기에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학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문학관에 단지 매표원과 관광해설사만이 상주하고 있는데, 문학관 담당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외진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확충이 필요하며, 주민들을 위한 문학교육적 기능 또한 요구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삿갓 친필 소장품 전시 ○ 김삿갓 문화 큰잔치 축제 ○ 동양화 및 한글 붓글씨 대회 ○ 휘호대회, 시대회 ○ 조선민화공모전 ○ 박물관 투어 논술대회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삿갓 묘역, 김삿갓 계곡 ○ 마대산, 조선민화 박물관, 영월곤충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영월 서강미술관, 영월화석박물관, 묵산미술박물관, 호안다구박물관 등 박물관 특구지역, 동강, 서강, 고씨동굴, 태백산맥-소백산맥 접경지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요소 및 역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성격으로 머물고 있음(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 ○ 김삿갓문학을 국제심포지엄형태로 글로벌화하려 했으나 문화부의 반대로 무산됨 ○ 김삿갓문학과 영월의 생태환경적 요소 등과 결합하여 정부차원에서 글로벌화 지원필요(공무원들의 경직된 정책적 마인드) ○ 국가나 도의 무관심으로 모든 경비가 영월군비로 충당됨으로 인한 자금부족 ○ 교통편이 다소 부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기때 전자책 작업필요 ○ 김삿갓 문학의 국제적 요소 및 생태환경요소가 결합되어 글로벌화 필요 ○ 사회환원 사업임에도 세금감면 등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등록에 있어 먼저 세금감면 필요함.(세금감면 규정 등이 있으나 문학관 등록이 늦게 됨으로서 실질적 혜택을 못받음, 등록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림) ○ 문학관 운영에 있어 지원필요 ○ 문학관에서 주최하는 조선민화공모전, 휘호대회, 논술대회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상수여 필요(전국대회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영월군수 상 등은 선거법 등에 저촉되며 소정의 상금보다는 공모자들이 권위 있는 상을 받고 싶어함) ○ 김삿갓 문학교육 프로그램 상시운영 ○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을 위한 포토존 운영

【김유정문학촌】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68-1 김유정문학촌
- 개관일 : 2002년 8월 6일
- 소유주/대표 : 춘천시청/전상국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김유정(소설가)
- 연락처 - 전화번호 : (033)261-4650
- 홈페이지 : www.kimyoujeong.org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위탁운영 시 계약기간이 3년이라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 불안감 존재하므로, 위탁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 필요
- 주말에 단체관람객이 올 때 문화관광해설사 2-3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의 주5일 지원시스템으로 인하여 주말은 지원이 되지 않음. 그러므로 주말 및 성수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원이 필요함
-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자부담이 필요할 시 수익이 업서 애매함으로 운영 쪽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필요
- 단체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원증원이나 예약시스템 도입 등 관람객의 분산필요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6회 김유정문학제 ○ 2008 제 2회 김유정문학상 ○ 제 2회 청소년 문학축제 ‘봄·봄’ ○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 청소년 음악회 ○ 제 7회 김유정문학캠프 ○ 제 2회 소설의 고향을 찾아가는 문학기행 ○ 김유정 소설과 만나는 삶의 체험, 30년대 실례마을로 ○ 제 7회 향토작가와 함께 하는 순회 문학 강연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물 : 당간지주, 칠층석탑, 청평사 회전문 ○ 중요민속자료: 청풍부원군 상여(김유정의 9대조부)와 국립춘천박물관 ○ 문화유적지: 혈거유지, 천전리 지석묘군, 삼악산, 적석총, 청풍부원군묘역, 장절공묘역, 봉의산성, 백로·왜가리 번식지, 증리 고분군, 신매리 석실고분, 청평사지, 의암유인석 묘역 ○ 문화재 : 소양정, 청평사삼층석탑, 월송리 삼층석탑, 삼악산성지, 채재근 전통가옥, 민성기 전통가옥, 김정은 전통가옥, 방동리 고구려고분, 한백록 묘역 및 정문 ○ 기타 : 춘천호, 소양호, 의암호, 국립춘천박물관, 남이섬, 중도, 고슴도치섬, 삼악산, 구곡폭포 외, 3폭포, 도립화목원, 집다리골, 휴양림 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운영비 증액(인건비 등 재정적 지원의 현실화) ○ 세미나 실 등 기념관 부속시설 부족(수장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확장이 시급함) ○ 문학제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책 ○ 설립주체인 지자체의 문화예술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부서 이동으로 인한 일관된 문화정책 부재 ○ 김유정문학촌 설립 초기에 비하여 관람객 및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함과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주말 이용객 대처 방안이 요구 됨(자원봉사제 / 인턴사원제 도입, 전문해설가 확충) ○ 상근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 방안 협조(최소한 국민 4대 보험혜택) ○ 전문 인력 부족 : 학예사 또는 전문 인력 지원 절실 ○ 매년 행사 기획 단계부터 예산확보의 불안정으로 행사 기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 상존 ○ 내용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학관 운영을 위한 연수 및 전국문학관 탐방 및 국제 연수 확대 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인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긍지 갖기(문학관 인근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 전국문학관협회의 활성화로 데이터 베이스망의 확충으로 효율적 운영 ○ 테마별 연계 관광코스 개발(그 지역의 유적지나 문화 예술 관련 명소를 연결하는 문화관광코스 개발) ○ 모든 사업은 작가의 생애 및 작품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며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타문학관과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전문가 및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사단법인화 추진 ○ 지역 문화 예술의 창조공간이며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지향

【농민문학기념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622-3
- 개관일 : 2005년
- 소유주/대표 : 이동희/이동희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농민문학의 비전제시와 자료수집 정리 보관 전시 농민 문학 작가의 만남의 공간으로 개인문학관임.
- 연락처 - 전화번호 : (043)743-5186
- 홈페이지 : www.nongminmk.com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농민문학기념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문학관으로 문학관 내에서는 추리문학관과 함께 개인운영의 독특한 장르의 문학관이라할 수 있음.
- 영동군내에서도 외딴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곳은 문학관 현판을 내걸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 개인운영이긴 하나 공공성을 띤 문학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개인운영으로 운영인력이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농민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등을 도모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농민문학 포럼 작품 낭송회 작품 전시회 농민문학작가 유품 전시회 농민문학사전 제작</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난계국악당 노근리 사건 현장 월류봉 외 한천 팔경, 영국사 외 양산팔경 삼도봉 민주지산 물한계곡 지통마 직지사</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p>지속적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의 자금 지원의 확대와 인턴사원 지원 학예사에 대한 지원 등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시골 농촌에서의 작품 발표와 토론을 통한 농민문학 체험과 작가들의 농촌 농민 체험, 이에 대한 기록과 보존, 대표적인 농민작가상의 제작 전시 등을 힘겹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제 시작이고 아직은 농민의 참여도와 관심이 미흡하다. 이런 노력 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농민문학관을 통한 농민문학의 체험과 보 존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원의 규모와 폭을 늘려주고 지속시켜 주었으면 한다.</p>

【동리목월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북 경주시 진현동 550-1번지
- 개관일 : 2006년 3월 24일
- 소유주/대표 : 경주시/(사) 동리목월기념사업회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한국현대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활용
- 연락처 - 전화번호 : (054)772-3002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동리목월문학관은 사단법인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경주시로부터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학관임
- 매년 이루어지는 문예창작대학, 동리목월문학제 등은 다른 문학관의 문학프로그램에 비하여 질적으로 우수성을 지니고 있음
- 특히 문예창작대학은 경상북도 남부지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창작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문학관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 될 수 있음
- 향후 동리목월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의 보충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주시로부터 예산 증액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방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문학관협회의 인턴사원을 파견하는 것이 다른 방안이 될 것임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리, 목월 문예창작대학(2009년 포항, 울산, 대구 등 인근 도시에서 120명의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여 매주 토요일 14:00~16:00까지 운영되고 있음. 2. 시낭송의 밤 3. 동리, 목월의 작품배경을 찾아가는 문학기행 4. 동리, 목월문학상 시상식 5. 동리, 목월 문학제(동리,목월 문학심포지움, 음악회, 동요경연대회, 백일장 등)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불국사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음. 석굴암도 인근에 있음. 문학관과 함께 있는 건물인 신라를 빛낸 인물관이 있음.</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p>현재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년 예산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위탁운영자로서 인력운용하기가 힘들다. 현재 인력은 관리국장 1명, 간사 1명, 청소하는 아주머니 1명이 있다. 세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문학관을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다. 점심도 함께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경주시의 예산을 더 지원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드니, 과거 문학관협회에서 지원하는 인턴제도라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인력 보충의 방법이 될 것이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문학관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의 문학관 네트워크의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 과거 2-3년전에는 어느정도 잘 운영이 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학관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잘 운영되고 있는 문학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을 배우고 교환함으로써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자극도 될 것이다.</p> <p>문학관협회에서 우선적으로 인턴을 파견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아무리 인턴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이 인턴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경제적인 처우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인턴생활이 실제로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박물관의 인턴경력 2년과 석사학위를 소유하면 3급 정학예사 자격이 나오는데, 문학관은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우수한 인력들이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

【마산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남 마산시 상남동 58-8
- 개관일 : 2005년
- 소유주/대표 : 마산시장/마산시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근대 마산문학의 흐름을 조망하고 전통과 자산을 널리 알리기 위함
- 연락처 - 전화번호 : (055)220-560
- 홈페이지 : www.pen.masan.g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마산문학관은 경남지역 문학관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학예연구사를 두고 있는 곳으로 기획전시 등이 활발한 곳임.
- 마산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경관은 좋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외부 관광버스 한대가 들어오기 어려운 곳임.
- 관리직과 전문학예직의 이분화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운영이긴 하지만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이곳 역시 문화자원봉사자 양성으로 활로를 찾아야할 것임.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전시 : 마산문학의 전통과 자산 (1층 전시실) * 특별기획전 13 : 충무공 이순신 담론 자료전 -수루에 홀로 앉아 (1월 20일-4월 19일) * 제7기 문학아카데미 강좌 : 매주 화요일 14:00-16:00 (3월-6월) * 제2기 문예창작교실 : 매주 목요일 14:00-16:00 (3월-6월)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시립박물관, 문신미술관, 마산음악관 * 국립 3.15묘지, 3.15아트센터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흔히 개인 중심의 문학관이 많고, 시설 규모가 협소한 까닭에 소장자료 전시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 우선적으로 각종 전시 또는 행사 개최를 통해 문학관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 그런 점에서 전문 학예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고, 시설 공간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문학관의 기능으로 학술연구, 교육 학습, 실천 체험, 지역홍보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타의 기능들은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가운데 학술연구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켜, 전문가를 임용하고, 자료 발굴과 수집과 연구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p>

【만해문학박물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1830
- 개관일 : 2003년 8월 8일
- 소유주/대표 :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상국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사적 업적을 기리고 국내외 만해 문학인들에게 문학창작 및 전시공간 제공
- 연락처 - 전화번호 : (033)462-2304
- 홈페이지 : www.manhae.or.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전시시설, 창작관 등 규모는 큰 데 반하여 외부관람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함. 또한 전시관을 안내해줄 수 있는 관광해설사의 상주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전시관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난방을 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건물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이 필요함
- 강원도 백담사 근처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을 지녔으나 홍보가 부족함으로 관광지도에 문학관 표시 등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필요
- 예산문제로 ‘문인의 집’을 일반인 숙박시설과 겸하고 있었는데, 창작집필실의 기능을 담당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지 목표고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외진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확충이 필요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해를 주제로 한 시서화전」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설악 예술인촌 ○ 산촌민속박물관 ○ 백담사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전문 인력(예술경영 및 기획, 학예사 등)의 확보가 어려움 ○ 운영상 애로사항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학관 협회 워크숍을 강화(현재 연 1회 개최)하여 문화예술 공간(시설)의 예술경영 능력, 기획 및 진행 실무 능력 배양필요 ○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 문학관의 경우,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사립문학관의 경우 운영비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예산으로 일정정도의 운영비를 책정, 보조하는 것이 법제화 되어야 함

【만해기념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12-1 남한산성내 만해기념관
- 개관일 : 1998년 5월 20일
- 소유주/대표 : 전보삼/전보삼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사상가인 한용운의 인물에 대한 소개
- 연락처 - 전화번호 (031)774-3100
- 홈페이지 : www.manhae.or.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화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만해기념관은 남한산성내에 위치해 있어 등산객 및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으며, 문화관광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관람객에게 고객만족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시관은 신발을 실내화로 갈아 신고 들어가야 해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힘들며, 번거로운 단점이 있음. 그러므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일반대중 중심으로 문화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약 및 선별수용으로 관람객들의 수를 조정하고 있음으로 지원봉사자 등의 인력보충 및 배치필요
- 개인에 의해 운영되므로 수익사업을 통한 문화관 운영에 있어서의 예산확보 필요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화그리기 체험, 판화체험 ○ 정기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해문학백일장 - 만해학교 ○ 맞춤형 프로그램(단체 20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만든 엽서전하기(다양한 오브제 이용) - 알록달록 시전지 만들기 - 발도르프 원목 교구 만들기 - 〈님의 침묵〉 옛 책 만들기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산성 ○ 행궁 등 250여개의 문화유산 ○ 삼학사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 ○ 지방정부의 문학관에 대한 치적위주의 건립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문학관에 대한 기본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투자보다 콘텐츠 전문가 확보 및 배치 중요 ○ 정부지원도 건물투자와 콘텐츠 지원이 결합해야 함 ○ 학예사 고용에 대한 적극성 필요 ○ 문학관을 건립 시 수요자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지어야함 ○ 고객만족 수요창출위해 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함

【홍성만해문학체험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22-1

○ 개관일 : 2007년 10월 19일

○ 소유주/대표 : 홍성군/홍성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홍성 성곡리에서 태어난 만해 선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되었다. 1층은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2층은 창작실과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만해를 알고 그의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체험 할 수 있는 장소이다.

○ 연락처 - 전화번호 : (041)630-1227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홍성만해문학체험관은 충남 홍성군 결성리에 위치한 만해선사와 관련된 체험관이다.
- 이 문학관은 앞으로 건립될 많은 문학관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문학관이다.
- 현재 만해문학체험관에는 문학인이 집필을 하는데 필요한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 첫째,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지만 재정문제 인하여 창작집필실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전시공간과 숙박시설이 분리되지 않아 전시공간의 보안문제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면 앞으로 문학관 건립의 이유와 향후 문학관 이용에 있어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 단순히 한 작가의 문학시설로서만 이용한 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제시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해 업적 소개자료 전시(모형, 패널, 영상물 등) - 만해 유품 전시 ○ 체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해작품 탁본 체험 - 만해관련 퀴즈 체험 - 만해 도서실 - 만해 어록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정 기념물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 보물 고산사대광보전 - 도지정 무형문화재 결성농요 - 도지정 기념물 결성읍성 ○ 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당항 및 궁리포구, 오서산, 그림이 있는 정원 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문제 : 정식직원이 최소 3명은 필요하다. 특히 창작 집필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야간근무자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본청에 있는 문화재 담당 학예사와 일반 행정주사가 담당하기에는 다른 문화재 관리의 일이 너무 많아서, 따라서 문학관만을 담당하는 직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이 홍성읍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 홍성군민들이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홍성읍 소재지에서 정기적으로 군내버스를 확대 운영할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포문화권발전사업에 문학관을 포함시켜 하나의 문화단지로 만들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인력문제의 해결에 있어 사업소 형태로 분리하면 좀 더 많은 직원이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문학관이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있으면 문학관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적지나 문화재에 비해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소 형태로 분리하면 문학관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 문제와 인력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목포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p>■ 시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1-28번지 ○ 개관일 : 2007년 10월 9일 ○ 소유주/대표 : 목포시/목포시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우리나라 연극에 근대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 김우진,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로서 최초로 장편소설을 집필한 소설가 박화성,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극작가 차범석 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설립되었다. 국내 최초 3인 복합 문학관으로 목포문학의 선구작가인 이들 작가를 통해 목포 문학을 널리 알리고자 설립되었다. ○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061)270-8400 - 홈페이지 : www.mpmunhak.or.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문학관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문학관으로서 앞으로 지어질 문학관이 문학관의 건립, 인력운영,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참고할 만한 문학관임 - 문학관의 건립에 있어서 문학관련 학예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학관이 문학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됨 - 문학관의 인력 역시 문학 관련 전공 학예사를 채용하여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보여줌 - 목포문학관을 사례는 결국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 문학관의 운영이 건립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보여줌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제1회 서남권박람회, 문예대학, 김우진문학제, 청소년문학교실, 토요일의 시낭송 교실, 박화성 문학, 문화 페스티벌, 목포문학축전, 목포시낭송대회 및 박화성 백일장 대회, 문학관에서 놀자, 작가와의 만남, 차범석 연극공연, 제 2회 김현 문학축전</p> <p>김우진, 박화성, 차범석의 유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기획전시 공간 따로 만들어져 있어 기획전시를 할 수도 있다.</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갯바위해양관광단지에 목포문학관에 위치해 있음. 인근에 문화예술회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생활도자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 등이 위치함</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p>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여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음. 다만 학예사의 고용기한이 계약직이어서 근무의 안정성 면에서 우려되는 측면</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시가 아닌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관에 문학에 전문성을 가진 학예사가 필요로 하다. 목포문학관은 문학을 전공한 우수한 인력이 학예사로 2명이 채용되어 이들이 문학관의 전시, 프로그램 운용 등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문학관을 관리 차원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문학관은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제시된다. - 문학관을 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전기요금 등에 세금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문학의 집·서울】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21 문학의 집·서울
- 개관일 : 2001년 10월 26일
- 소유주/대표 :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김후란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2001년 남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래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문학행사를 열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다.
- 연락처 - 전화번호 (02) 778-1026
- 홈페이지 : www.imhs.c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남산과 연계되어 기업들의 세미나 및 워크숍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한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으므로 소규모의 컨벤션 장소로서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매니아 층 및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익사업 모색
- 주변 문학관들과의 연계행사 등을 통해 규모가 작은 문학관들에게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고문인 초상화전(그 외 연중 4~5회 기획 전시) ○ 수요일문학광장(월 1회),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월 1회) ○ 우리시 우리노래 신작가곡음악회(연 1회) ○ 문학청소년축제(연 1회), 이웃사랑문학제(연 1회) ○ 책읽는방 행사(독서감상문 공모, 독서지도, 함께 연극하기 등) 연중 ○ 서울문학인대회(연1회), 봄맞이문학축제(연1회) ○ 예장문학콘서트(연1회), 자연사랑문학제(연1회), 시낭송 행사(연1회) 등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산 ○ 한옥마을 ○ 애니메이션 센터 ○ 청소년유스호스텔 ○ 명동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학예사 등의 인력 ○ 문학관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 ○ 예산확보가 일정하지 않음 ○ 인근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부족 ○ 문예진흥기금이 행사위주사업 등에 지원되는 평가항목으로 인해 ‘문학관’이 전시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정부의 인식부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문학관이 하기 힘든 사업에 대한 문학관협회 차원의 사업 (예, DB 구축 사업, 문학관 실무자 연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 ○ 지속적인 지원(사업비 등)을 통한 다양한 문학 행사 및 기회 제공 ○ 세금(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 ○ 문학관 지원평가항목의 다양화 필요 ○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문학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미당시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231
- 개관일 : 2001년 11월 03일
- 소유주/대표 : 고창군/(재)미당시문학관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고창이 낳은 한국 시단의 거목 미당 서정주 선생의 작품과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문학관이다. 선운리에 위치한 폐교인 선운초등학교를 개조하여 개관하였고, 영상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시실에는 미당의 육필원고를 비롯하여 각종 사진자료 등 1만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 연락처 - 전화번호 : (063)560-2760
- 홈페이지 : www.seojungju.com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미당서정주문학관은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리에 위치한 문학관으로서 미당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학관이다.
 - 문학관이 개관한지 10년이 다되었기 때문에 문학관 건물의 보수가 가장 시급하다.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우선 있어야 하고, 민간위탁 법인 역시 문학관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문학관의 위치는 미당선생의 생가 인근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내 중심부에 있는 문학관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인근에 선운사가 있기는 하지만 선운사와 문학관을 연계하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문학관 방문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이러한 접근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한가지 제안하자면 문학관의 성격을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창작집필실등의 용도로 전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문학기행 및 세미나 개최, 문학수련회, 시화전시회, 문학 낭송회, 학생 백일장 및 문학강연</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서정주 시인 생가 복원, 선운사</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p>문예진흥기금의 원활한 확보가 어렵다. 비록 올해는 1천여만원을 받았지만 향후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아무래도 민간위탁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차원에서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문학관 운영에 얼마나 열성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p>

【박재삼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남 사천시 서금동 101-1
- 개관일 : 2008년 11월21일
- 소유주/대표 : 사천시장/사천시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지역시인 박재삼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공원 팔각정 위치에 문학관을 기념하고 문학관 옥상에 팔각정을 대신하여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연락처 - 전화번호 : (055)832-4953
- 홈페이지 : 없음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박재삼문학관은 2008년 11월 개관으로 운영초기단계의 문학관이라 할수 있음. 임시직형태의 직원2명이 있고 의욕은 있으나 문학관에 대한 전문적 기획력이 떨어져 실무자 교육이 요구됨.
- 문화원 등 인근의 문화시설 등과 연계한 문학프로그램으로 활로를 찾아야할 것이며, 작은도서관 유치 등으로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머무를 곳으로 문학관을 활성화하여야할 것임.
- 마산문학관 박재삼문학관은 산꼭대기 공원부지에 위치하여 도심속에 있으나 동떨어진 곳으로 이러한 지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찾아와 머물러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야할 것임.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박재삼 시 소록집 *박재삼 시인의 유품 *박재삼 시인의 대표적 시 표구 전시 *박재삼 시 읽기 영상 시설 *박재삼 시 읽기 모임</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문학관 인근의 도시공원인 노산공원, 그 낭만의 바닷가 바위 위에 목조로 지은 정자에서 한려수도 물길의 시원스러운 전망 감상, 또 한 노산공원 내 시비(詩碑)의 길에서 박재삼 시인의 시를 감상 *창선-삼천포 대교 *관광유람선 *항공우주박물관</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p>*〈박재삼 문학관〉 온라인 네트워크(홈페이지)의 부재로 정보교환 및 문학관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부족 *온 오프라인을 통한 〈박재삼 문학관〉에 대한 홍보부족</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전시관에서 벗어나 평생교육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작가의 생애와 집필공간을 방문할 수 있는 문학관광코스의 개발 -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로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지역예술인, 문학인 등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 강연, 세미나, 백일 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에 관한 자유로운 소통 활성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문학공간을 조성</p>

【백수 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1번지
- 개관일 : 2008년 12월 10일
- 소유주/대표 : 김천시/김천시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백수 정완영 선생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문학인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
- 연락처
 - 전화번호 : (054)420-6064
 - 홈페이지 : www.baegsu.gc.g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백수문학관은 경북 김천시 직지사와 세계도자기박물관 인근에 위치함
 - 이는 기존의 문학관과는 달리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 우위를 점함
 - 하지만 문학관을 구성하는 콘텐츠는 기존의 문학관이 가진 콘텐츠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의 극복을 위해 우선 민간위탁을 고려해볼 수 있음(현재 김천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함)
 - 지역의 문학관련 단체가 일정한 사단이나 재단을 설립하여 백수문학관을 위탁관리함으로써 시예산 절감과 함께 더 나은 문화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0 백수전국백일장</p> <p>0 백수문학관 문학아카데미 : 2009년 3월 3일 ~ 5월 30일까지 총 39회, 78시간</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0 직지사</p> <p>0 세계도자기박물관</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로사항</p>	<p>0 문학관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있어 경험이 없다보니 인근의 문학관의 많은 도움이 필요로하다. 특히 문학관협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현실적으로(생존작가의 문학관은 문학관 협회의 가입이 어려움) 문학관협회에 가입할 수가 없다. 이점이 해결되면 좋겠다.</p> <p>0 예산의 부족으로 문학관을 운영하는 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나 문학관협회에서 인턴사원을 파견해주면 운영이 좀 더 쉬울 것 같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0 전국의 문학관을 아우르는 문학관협회의 활동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되어 노하우의 전수필요</p> <p>0 문학관을 뚜렷한 법적테두리에 놓아서 지역의원들의 관심을 좀 더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백수문학관은 김천시의 조례로 운영되지만 이것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선 지역의원과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심을 유발시킬 만한 것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유발시킨후에는 문학관협회의 도움이 또한 필요하다.</p>

【세계여성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 개관일 : 2000년 11월 30일
- 소유주/대표 : 학교법인 숙명여자대학교/ 윤용익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한국여성문인을 포함한 전 세계여성문인
- 연락처 - 전화번호 : (02)710-9120
- 홈페이지 : wowlic.sookmyung.ac.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세계여성문학관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내부에 위치한 문학관이다. 서울의 중심부에 대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학관에 대한 접근성은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부에 있다는 것은 문학관의 홍보와 출입에 있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 이의 극복을 위하여 세계여성문학관에서는 기존의 지역문학관이 하지 못했던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를 기획, 전시, 홍보를 하고 있다.
-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문학관으로서 여러 가지 인력과 재정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싶지만 이것 역시 법적인 제약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있겠지만 이 보고서의 정책 성격상 무엇보다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공모시 이 문학관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제반여건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 ‘유럽문학과의 만남’</p> <p>‘주민과 함께하는 세계문학 산책’ 전(展)의 두 번째로 개최하는 ‘유럽 문학과의 만남’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문학의 특징 및 세기를 빛낸 유럽의 대표적인 문인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이다.</p> <p>영국이 낳은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극작가 몰리에르, 독일의 대표적인 고전주의 작가 괴테에서부터 현대 유럽문학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리스 레싱, 르 클레지오, 쿤터 그라스에 이르는 유럽문인들의 대표적인 작품과 그들의 삶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p> <p>■ 당신은 이 여성작가들을 모르십니까? : 현대 독일여성작가의 작품세계</p> <p>지금까지 국내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없었던 독일의 저명한 여성작가 도리스 되리, 울리아 프랑크, 유딧 헤르만, 카티야 랑에 뮐러, 올리 체 등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p> <p>■ 문인과의 정다운 편지전 : 문인들이 김남조 시인에게 보내 온 편지</p> <p>김남조 시인이 장롱 속 깊이 간직해 온 편지들을 모은 ‘문인과의 정다운 편지전’에서 문인들의 삶의 단면을 만날 수 있다.</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 지역 관광자원</p> <p>백범김구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한강시민공원, 전쟁기념관, 숙명여대 박물관 및 문신미술관</p> <p>■ 지역 축제 : 남이장군사당제</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어로사항</p>	<p>■ 전문 인력의 보완</p> <p>세계여성문학관은 설립의 주체가 숙명여대(도서관)이며, 도서관장은 도서관 관련 보직교수이다. 이러한 특수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어 문학관 운영 전반과 전시·행사 프로그램에 협의,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내에 설치된 문학관의 특성상 여성관련 자료의 구입 및 여성인명 정보 구축과 같은 영역은 운영의 장점으로 작용하나, 전반적인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p> <p>■ 관람 수요층의 다양성</p> <p>전시 및 프로그램이 문학관의 주요 관람객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므로 일반관람객(중고등학생, 일반인, 외국인 투어 및 관람객)의 수요층을 겨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 축적 자원의 활용 및 운영예산 확보</p> <p>세계여성문학관의 재정이 교비에서 대부분 충당하므로 도서관 예산을 일반관람객을 위한 ‘여성문학연구의 지원’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원들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문학관의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전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은 지원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p> <p>■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p> <p>본교 내에 있는 풍부한 문화적 자원(세계여성문학관, 박물관, 정영양자수 박물관, 문신미술관)과 백범김구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강시민공원 등과 연계한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또한 이를 확대하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문학관과 연계하여 일반인과 외국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p>

【아리랑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3
- 개관일 : 2003년 5월 16일
- 소유주/대표 : 김제시/김제시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문학과 역사의 고장으로서 김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리랑』에 담긴 문학정신과 역사의식을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설립함
- 연락처 - 전화번호 : (063)540-4990
- 홈페이지 : www.gimje.g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아리랑문학관은 김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 운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서는 한명의 학예사가 앞으로 지어질 박물관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문학특별강좌 등 문학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 이의 극복을 위하여 김제시에 학예연구인력의 확충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소설 아리랑 문학기행</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백제시대 저수지인 벽골제(사적 제 111호)가 벽골제사업소에 속해 있어, 농경문화의 근대사 및 김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p>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기획특별전이나 문학 강좌, 문학관련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전문 인력과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활성화 도모의 필수요소임.</p>

【영인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99-3 영인문학관
- 개관일 : 2001년
- 소유주/대표 : 강인숙/강인숙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문학자료의 수집과 보관 및 전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누군가 모으지 않으면 유실될 우리 시대의 문학 자료들을 모아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 되었음
- 연락처 - 전화번호 (02) 379-3182
- 홈페이지 : www.youngin.org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쾌적한 환경으로 주변에는 많은 미술관들이 위치해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미술관들과 연계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행사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기획전시 위주의 문학관을 지향하고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미술관 등과 연계해 순환셔틀버스 등을 이용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평창동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음. 안내표지판 등을 곳곳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고급스런 이미지의 문학관이므로 대중화 보다는 전문화 및 특화할 필요성이 있음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필원고와 초고전 ○ 1920년대전(계획 중) ○ 자료집(편지) 발간계획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 아트센터 ○ 김홍수 미술관 ○ 토탈미술관 ○ 김종영미술관 ○ 가인갤러리 ○ 그로리치 갤러리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문제(전기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 경비 등) ○ 전문인력 부족 ○ 인력지원이 6개월 단위마다 지원되고 있어 연속성이 없으며 연단위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문학관의 특성상 연령제한 폐지 필요(현재는 30세 이하임) ○ 도로표지판, 안내판 부착이 어려움 ○ 학예사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 인건비가 지원되나 학예사 자격증 없어도 지원필요(문학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필요)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지원항목의 다양성 필요(예: 시설보수, 액자, 자료의 보관(소독, 훼손방지 등), 팸플렛) 등 ○ 마을중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순례버스와의 연계 필요(평창동) ○ 가시적인 정책보다 실질적인 정책필요 ○ 1차 자료에 의한 문학관 평가필요(작가의 original 원고 및 유품) ○ 해외문학관 순방지원 필요(계획 시 이동시간 적게) ○ 문학관을 개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시 행정의 간편화 필요 ○ 홍보 브로셔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등에 대한 계획필요(2-3년마다)

【오장환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40번지 오장환문학관
- 개관일 : 2006.07.03
- 소유주/대표 : 보은군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오장환은 1930년대부터 해방을 거쳐 분단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격동기에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서정주, 이육사와 함께 시단의 3천재로” 불리었던 시인임
- 연락처 - 전화번호 (043) 540-3742
- 홈페이지 : www.boeun.go.kr/sisul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오장환문학관은 한국문학관협회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또한 독자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문학관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우선 한국문학관협회에 가입하여 문학관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문학관과의 네트워크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 오장환문학관은 보은군청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2007년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인계가 되어서 시설관리의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므로 문학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과가 아닌 문화관광과로 편입되어야 할 것임
-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담직원의 부재로 인하여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문학관 옆에 회의실 증축을 추진 중이므로 지역사회에 있어 문학교육기회 확대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문학관협회 가입을 통해 네트워크로 상호 협력관계 유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문학관을 활성화하여야 함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장환 유품 및 작품 상설전시 ○ 단막극 형식의 오장환에 대한 영상
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리산 국립공원 ○ 법주사 ○ 만수계곡 ○ 삼년산성 ○ 서원계곡 ○ 선병국가옥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프로그램 계획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음 ○ 해설사 등 문학에 대한 이해 및 안내할 수 있는 인력 부족 ○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여 다른 문화 및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기 힘들 ○ 속리산 자락 외진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힘들 ○ 홈페이지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홍보의 어려움 ○ 단순히 문학관을 군내 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어 활성화에 대한 인식부족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에 대한 애착을 갖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정부의 적극성 필요 ○ 프로그램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 ○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 ○ 문학관 협회에서 적극적인 홍보협조 필요 ○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를 위한 예산지원 필요 ○ 문학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행정 등에 대한 문학관협회의 지원필요 ○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에 대한 관심 ○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통한 시강좌, 시토론, 세미나, 문학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 정립

【요산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62
- 개관일 : 2006년
- 소유주/대표 : (사)요산기념사업회/정홍태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요산 김정한 선생을 기리기 위한 문학관으로 생가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연락처
 - 전화번호 : (051)515-1655
 - 홈페이지 : www.yosan.c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요산문학관은 요산기념사업 위탁운영으로 운영진과 실무진의 열의에 비해 프로그램 사업비 비중이 적은 편임. 부산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이긴 하나 최근 외곽주택 단지로 부상되고 있는 곳이어서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주민대상의 프로그램 가능성이 높음.
 - 인근에 범어사 등 관광지가 있어 외부 방문객이 많은 편임. 그리 멀지않은 이주홍문학관 등과 연계한 문학프로그램을 제안함.
 - 문학콘서트 등의 지속적인 시도로 외곽지역의 장점을 살려야할 것임.
 - 관내 문화원 등의 문화시설 및 단체와 문학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할 것임.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5월-어린이예절교실 6월-주부다도교실 7월-내 고장의 문학 그 현장속으로(시비+자비) 10월-요산문학제(시비+자비) 11월-청소년과 함께하는 시민문예교실(메세나) 11월-요산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전국학술대회(자비) 11월-문학콘서트(시비+자비)</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범어사, 을숙도, 낙동강 하우언 에코센터</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에로사항</p>	<p>국비나 시비의 운영보조금 턱없이 모자람</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문학관 간의 형평성으로 운영보조금 지급에서 탈피 실적 위주의 보조금 지급 요망</p>

【이병주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2번지
- 개관일 : 2008년 4월
- 소유주/대표 : 하동군수/이병주기념사업회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소설가 나림 이병주(1921~1992)를 기념하며 창작저작물과 유물을 상설 전시하기 위함.
- 연락처
 - 전화번호 : (055)882-2354
 - 홈페이지 : 없음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이병주문학관은 이명산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2009년 1월 현재 문학관 앞마당은 조성 공사중이었음.
- 비교적 최근 개관으로 전시관 이외 강당 창작실 사무실 등이 있고 2009년 3월 준공예정인 광장과 소공원 등 다른 문학관에 비해 시설은 잘 구비되고 작가 창작 집필실과 숙박시설도 2개 있으나 식당 등의 부대시설은 없어 실제 작가들이 머물 수 있기에는 불편한 실정임. 인근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음
- 인근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어 이곳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를 기대함. 평사리문학관과 더불어 지리산문학 프로그램의 개발을 기대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겨울 어린이문학캠프를 방학중에 운영 *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초중고백일장대회(9월) * 이병주문학학술세미나(4월) * 지역문화창달세미나(지역대학 콜로키움)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 차문화축제, 대봉감축제, 벚꽃축제, 섬진강여름축제, 코스모스축제 등</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에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 식사, 음료, 대중교통 등등 * 문학관 홈페이지제작, 리플렛 홍보물 제작 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개발 * 국공립대학 도서관과 자매결연으로 연구 발판 마련 * 지역축제와 연계프로그램 개발 (차문화축제, 대봉감축제, 벚꽃축제, 섬진강여름축제, 코스모스축제등) * 문학관 접근성 부족에 따른 조치: 주요도로변 안내이정표 설치, 이병주국제문학제 개최시기 조정(북천 메밀꽃 축제와 연계한 행사 시기 조정 4월->10월), 문학관 주변 꽃 단지 확대로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 유입

【이육사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900번지
- 개관일 : 2004년 7월 31일
- 소유주/대표 : 안동시/안동시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 선생과 관련한 자료와 기록을 모아 육사의 혼, 독립정신과 업적을 정리하여 그의 출생지인 원천리 불미골에 설립함
- 연락처 - 전화번호 : (054)852-7337
- 홈페이지 : www.264.or.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이육사문학관은 이육사 선생의 생가인 원천리 불미골에 위치한다. 문학관 인근에는 선생의 생가인 육우당이 위치해 있어 육사의 혼과 독립정신을 기리기에는 현재 문학관의 위치는 표면적으로는 적절하다.
- 하지만 안동시민이나 다른 지역의 관광객이 문학관을 방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안동 시내에서 문학관까지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문학관을 비롯한 인근의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하여 우선 안동시는 문학관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육사문학관의 사례는 앞으로 문학관 건립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기한다. 문학관 건립에 있어 일반인이 문학관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 주목하여 건립위치의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육사의 유품 및 육필원고 2. 작고문인 및 현존 문인 작품 육필원고 3. 이육사의 독립활동 자료 및 영상물 4. 육사 생가 복원(육우당) 5. 청포도 문학공원 조성(포도원) 6. 시상지 참관 활동(웃판대, 칼선대 - 절정, 광야 시상지) 7. 이육사문학축전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도산서원, 퇴계종택, 농암(이현보)종택, 오천유적지, 국학진흥원, 산림과학박물관, 퇴계선생퇴실, 퇴계묘소, 왕모산성, 예던길(강변 오솔길), 도산온천</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문학관 관람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없음. - 문학관 관람객 교통 편의시설이 불편함(문학관 차량지원 시급), 실제 안동 시내에서 이육사문학관까지는 하루 두 대의 대중교통 수단이 있음. 따라서 대중교통으로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 이것의 극복방안이 있어야 함.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2. 문학관 앞 들과 꽃 단지를 조성하여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육성 3. 문학관이 자체 운영하는 <문학기행>을 활성화 하여 수익사업으로 하여야 함 4. 이육사문학관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관람료 수입을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편입시키는 것보다 문학관 운영관리비로 전이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관람료 수입을 재정수입으로 하는 것은 문학관 운영자들에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

【이주홍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435-24
- 개관일 : 2002년
- 소유주/대표 : (사)이주홍문학재단/ 허형택(이사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향파 이주홍(1906~1987) 작가를 기리기 위함. 이주홍선생의 도서와 유품, 전국의 문인들이 보낸 편지 등 전시
- 연락처 - 전화번호 : (051)552-1020
- 홈페이지 : www.leejuhong.com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이주홍문학관은 주택지 속에 있고 인근에 중고등학교 등으로 지역접근성은 좋은데 비해 프로그램 운영은 활발하지 못한 편임.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은 상태여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 등으로 지역주민사업을 통해 문학관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 더구나 아동문학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문학관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 등과 연계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할 것임.
- 아동문학을 주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이곳에서 개발된 아동문학프로그램을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문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함. 현재 문학관은 자체 시설유지에 급급한 편이나 다른 유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문학프로그램을 공급도 고려해봄으로써 외연을 확대시켜나가야할 것임.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전시 - 이주홍문학제: 이주홍문학상, 문학기행, 시화전, 백일장 개최 (문학제 2008년 현재 7회) - 아동문학활성화와 문학관 공간활용(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000,000원 지원)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금강공원 및 금정산, 동래온천, 온천천공원, 충렬사, 우장춘기념관, 동래읍성, 복천박물관 등 많은 볼거리와 문화재가 인근에 있습니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p>주변에 좋은 문화적 자원이 함께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기대만큼 문학관이 잘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자체 운영 수입 없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비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이 늘 부족한 편이라 홍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무엇보다 향파 이주홍 선생님과 문학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학관의 주요 방문객이 어린이층과 문인층임을 놓고 볼 때 학교나 여러 지역 도서관, 각종 독서단체와 연계하여 이주홍 선생님의 문학세계를 알리고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학관의 활용도와 역할도 높여가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좀더 늘려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기획하여야 겠습니다.</p>

【이효석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44-3 이효석문학관
- 개관일 : 2002년 9월 7일
- 소유주/대표 : 평창군청/평창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가산 이효석작가(1907-1942)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관은 창작실 재현, 옛 봉평 장터모형, 문학관 생애를 다룬 영상물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고, 문학교실에서는 다양한 문예행사를 제공한다.
- 연락처 - 전화번호 : (033)335-9669
- 홈페이지 : www.hyoseok.org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평창군에서 운영하나 ‘이효석문학선양회’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효석문화마을 자체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 학예사 배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2년마다 바뀌므로 고정적인 상주인원에 의한 운영이 필요함
 -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는 군청 관광경제과에 요청할 때만 오고 있음. 그러나 효석문화마을에 문학관이 위치해 있어 예약을 하지 않고 가는 관람객이나 개별관광객은 문화관광해설사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해설사의상주 필요.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효석 유품, 작품집 ○ 이효석 작품발표된 잡지, 신문 ○ 육필원고 ○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 전시 ○ 기획전시: 이효석과 북만주 하얼빈(2008년)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효석문화제(매년 9월), 대관령 눈꽃축제(1월), 진부 송어축제(1월) ○ 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 허브나라, 무이예술관 ○ 월정사, 대관령목장 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에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운영으로 전문성 부족(학예사, 해설사 등) ○ 문학연구, 문학사업,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부족 ○ 리모델링 필요하나 예산부족 ○ 성수기때 인원필요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필요 ○ 문학관 활성을 위해 정부예산 지원 필요(자료수집, 프로그램 운영, 문화 마을 조성 등) ○ 민간위탁 필요 ○ 문학관협회에서 적극적 지원필요 ○ 비수기 대책 필요--> DB 자료

【정지용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39번지
- 개관일 : 2005년 5월 10일
- 소유주/대표 : 옥천군/옥천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1902~1950) 시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해 설립.
- 연락처 - 전화번호 : (043)730-3588
- 홈페이지 : www.jiyong.or.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정지용문학관은 옥천군이 직접 운영의 형태로 관리직과 옥천문화관광해설사 2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음. 생가터도 함께 관리되고 있으며, 전시관, 체험관, 교육장, 일반도서자료 등도 구비되어 여건이 좋은 편임.
-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 옥천읍과는 떨어져있어 옥천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 떨어지며 타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형태임.
- 지용제 등의 축제시 문학열차를 운행하여 호응을 받았는데, 정지용문학관은 지역 문화관광의 거점 프로그램 시범을 더 많이 보여줄 것임.
- 외부 방문객은 많은 편이나 지역주민 프로그램은 빈약한 편으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지역문학동아리, 문학작가모임, 지역문화단체나 시설과의 프로그램이 활발해져야할 것임. 이는 시설관리 차원의 인력은 있으나 기획 등 전문학예직 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시설 : 도입영상, 지용연보, 지용의삶과문학, 향수체험코너, 정지용의 시, 산문집, 지용문학지도, 문학과 예술의 고장옥천 ■ 영상실 : 종합영상 ■ 낭송실 : 시 낭송체험 / 대표작품 노래체험 ■ 문학교실 : 다양한 문학연구, 문학활동(문학강좌, 학술세미나, 문학동아리활동, 단체관람객 사전 오리엔테이션, 한국현대시인들의 작품전시및열람)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영수여사 생가 ■ 장계관광지 ■ 용암사 ■ 농심테마공원 ■ 장용산휴양림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에로사항</p>	<p>미 답변</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미 답변</p>

【조병화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337
- 개관일 : 1993년 2월 6일
- 소유주/대표 : 안성시/조진형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편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유품 및 창작품들을 비롯하여 한국 문인들의 유물들을 상설 전시하는 문학기념관으로서, 시인이 전 생애의 창작활동을 통해 추구해온 꿈과 사랑의 시정신이 담겨있는 한국 현대문학의 한 발자취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 연락처 - 전화번호 (031) 674-0307
- 홈페이지 : www.poetcho.com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조병화문학관은 4월-10월 화, 토, 일만 개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난방 및 냉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 문제 등에서 기인된다고 함. 그러나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주인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기업체 및 개인후원회원들에게 조병화작가의 작품에 대한 정기적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홍보 및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 인근 박물관 및 미술관과 연계하여 브로슈어 제작 및 공동연대 홍보, 또한 순환 버스 운행 등을 모색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조병화 유품, 도서, 그림, 기타) ○ 축제와 연관해 한미친선프로그램 운영 ○ 기획전시(한국문단 반세기 사진전: 조병화의 시간속에서 만난 얼굴들) ○ 시창작교실(편운 아래서 쓰다)-3월~12월 매주 토요일 ○ 조병화시축제(기획전시, 백일장, 음악회, 시낭송회, 사생대회) ○ 다문화가정주부 문학투어 ○ 찾아가는 문학관(순회전시) ○ 편운문학상 시상 ○ 사단법인 회원 문화투어
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맞춤박물관, 청룡사, 칠장사, 3.1운동기념관 ○ 미리내성지, 남사당전수관 ○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 에버랜드, 민속촌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운영비 조달 ○ 도로 표지판 확보(도로교통법상 표지판 제한됨) ○ 학예사 및 해설사 확보의 어려움(시골이라 잘 안옴, 교통불편, 냉난방 안됨, 인건비 문제 등(보험료, 퇴직금, 인건비 부담 등)) ○ 부대시설 확충필요(예: 휴게실, 공연장, 냉난방시설 등)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고, 성인 대상 교육프로개발에 있어서 연구비 보조를 통한 프로젝트 용역 필요(예: 교재, 영상물 등)(문예진흥기금 항목에 포함 필요) ○ 인근 박물관/미술관 연계 브로슈어 제작/ 공동연대홍보/순환버스 운행필요 ○ 지역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 안성시의 투어 운행코스의 일부분으로 등재 ○ 자원봉사자 pool system(해설사, 관리직, 기타) ○ 기부금(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혜택부여(행정절차의 간소화 필요하며 또한 소득공제 확대 필요) ○ 외국문학관 사례 벤치마킹 필요(예: fundrasing,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 18-24
- 개관일 : 2003년 9월
- 소유주/대표 : 곡성군/곡성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조태일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창작실 등을 이용한 문학 배움의 장 마련
- 연락처 - 전화번호 : (061)360-8587
- 홈페이지 : www.gokseong.g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은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태안사 입구에 위치한 문학관이다. 문학관 인근에는 큰 마을이 없고 절 인근에 있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다,
- 이러한 특징은 두 가지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장점으로는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작집필실의 용도로는 적합하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창작집필실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근의 문예창작학과 대학생들이 글을 쓰기 위해 숙박을 하니 이 기념관은 일정정도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점은 단점이 되기도 한다. 현재 이 기념관은 한사람에 의해 운영 및 관리 되고 있다. 이는 곡성군 차원에서 인력을 보충해주고자 하여도 기념관이 너무나 외진곳에 있어 사람들이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곡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여 기념관을 관리하는 것이다.
- 둘째는 문학관 운영의 중점사항을 창작집필실에 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전문학예사 없이 문학관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 문학수련회, 시화전시회, 문학 낭송회, 학생백일장 및 문학강연 - 조태일시문학기념과 및 부설 시집 전시관 건립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성팔경, 태안사, 섬진강 자연학습원 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력충원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조 태일시문학기념관이 곡성읍과 먼거리에 위치하고, 외진곳에 있 어 기념관 근무인력이 한사람만 근무하고 있음 이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함.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에서 좀 더 예산과 인력의 배정이 되어야 함. 이를 통해 앞으 로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음

【채만식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내흥동 285번지
- 개관일 : 2001년
- 소유주/대표 : 군산시/군산시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백령 채만식 선생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문학인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 연락처 - 전화번호 : (063)450-4467
- 홈페이지 : www.chaemansik.gunsan.g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채만식문학관 인근에는 금강호관광지와 금강하구둑이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만식문학관은 기존의 전시위주의 문학관 운영을 답습하고 있어 문학관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
- 채만식문학관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문학관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이다.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설관리 공무원의 파견은 문학관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줌.
- 따라서 채만식문학관을 현재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본청에 있는 문화체육과로 업무를 이관시켜 문화 관련 공무원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지역의 문학관련 단체에 의한 민간위탁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 될 수 있음.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 백릉 채만식 세미나, 지역문학단체 강연</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 철새조망대, 서해낙조, 새만금방조제</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로사항</p>	<p>○ 인력부족과 예산부족</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 미 답변</p>

【청류재수목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682-5 청류재수목문학관
- 개관일 : 1993년
- 소유주/대표 : 김유신/김유신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청류재수목문학관의 특징은 우리 생태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풍부한 생태환경과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의 청록파 시인을 비롯한 당대 문인의 육필원고, 편지, 엽서, 그림 등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 연락처 - 전화번호 (031) 674-5852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trees2007>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청류재수목문학관은 일정 작가를 기리기 위한 문학관이 아니라 종합문학관의 성격 등을 띄고 있음. 전국적으로 문인들 및 예술품 자료, 오래된 월간지 및 개간지 등을 수집하여 자료가 많으나 문학관 건물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전시 및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므로 문학관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전문인력에 의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하며, 운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안내표지판 등의 부족으로 홍보가 부족하므로 지자체와 연계해 안내판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경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문학 및 조경, 예술품 등과의 어우러짐으로 인해 야외행사 개최 시 이점이 있음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류재 꽃과 예술의 만남(매년 4월말 개최, 2009년도 17회 예정) ○ 시화전 <생태계와 문학의 접근>, <야생화 등 꽃과 나무 문학의 세계> ○ 시낭독, 가곡 <시로된 가곡> ○ 판토마임 <유진규> 등
<p>문학관 인근 문학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운문학관(조병화 문학관) ○ 박두진 집필실 및 연구자료실 ○ 미평문학관(김윤배)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자금으로 문학관 운영비 등을 전부 부담함으로 자금부족 ○ 개인문학관이 아니라 종합문학관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지원이 안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명도에 따라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원받기 힘들 ○ 월간지, 개간지 등 오래된 자료를 갖고 있으나 빌려주면 환수하기 힘들 ○ 전시 등을 위한 건물신축 등이 필요하나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적 경로등에 대해 알지 못함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시설지원 필요 ○ 형식이 아닌 많은 문인들의 흔적과 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원금 필요 ○ 정부의 장기적인 문학관 정책필요 ○ 행사위주의 지원이 아닌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필요 ○ 문학관 운영 행정에 대한 교육 및 지원필요

[청마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863-1
- 개관일 : 2000년 2월14일
- 소유주/대표 : 통영시/통영시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청마 유치환(1908~1967)선생의 문학정신을 보존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문학관 위쪽에 생가 형태를 복원하여 함께 운영함.
- 연락처 - 전화번호 : (055)650-4591
- 홈페이지 : www.gnty.net/literature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청마문학관 전시관중심의 문학관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어 교육프로그램 진행은 어려운 상황임. 2009년 1월 현재 6급공무원이 관장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음.
- 윤이상기념관, 박경리문학관이 건립되면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현재도 청마거리와 연계한 해설이 가능함. 청마에 대한 지역민의 인지도는 높으므로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통영시를 위해 문학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마우체국 개명 염원 글쓰기 대회 (10월중) - 청마 추모제 (2월 13일) - 청마문학상 시상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마선생 시비 및 흉상 설치 (청마 거리) - 남망산 공원 - 유명예술인 시비 - 김춘수 유품전시관 (임시 건물) - 윤이상기념관(2010년 완공 예정) - 박경리문학관(47억 예산 착공 2010년 완공 예정)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에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부족으로 문학관내 시비 미설치 - 창작실 및 영상자료실 미설치로 교육 어려움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내 청마 시비 2기 정도 설치 요망 - 창작실 및 영상자료실 신축 요망

[최명희 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5
- 개관일 : 2006년 4월 25일
- 소유주/대표 : 전주시/장성수(혼불기념사업회 대표)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혼불』의 작가 최명희 작가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활용
- 연락처 - 전화번호 : (063)284-0570
- 홈페이지 : www.jjhee.com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현재 최명희 문학관에서는 문학세미나, 소설읽기, 문학강연, 문학기행, 고교생 문학워크숍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학관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전시위주의 문학관에서 벗어난 체험 위주의 문학관 운영의 모범사례로 제시 될 수 있음.
 - 따라서 최명희 문학관의 운영방법과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의 문학관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음,
 - 향후 최명희 문학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주시로부터 인력보충에 필요한 예산 증액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문학애호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확대 시킬 필요가 있음.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상설)최명희의 문학과 삶 / (기획상설) ‘수공(手工)’, 그 아름답고 귀한 시작 ○ 프로그램: 다시 읽는 「혼불」, 함께 읽는 「혼불」 / <당신과 나를 이어주는 별별이야기>: 전주교도소장애인수감자 대상 <예술치료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 설·정월대보름 맞이 프로그램 / 전주시 문화·복지 시설 종사자를 위한 실무워크숍 『두레강좌』 / 박예분 선생님의 글쓰기교실 <글 잘 쓰는 반딧불이> / 전북지역 작고문학인 조명사업 등등 ○ 체험: 최명희 서체 따라쓰기 /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 / 문학관은 우체부, 엽서쓰기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한방문화센터, 교동아트,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 전통문화센터 등 ○ 문화유적: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한벽루 등 ○ 기타: 전주한옥마을, 전주덕진공원 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눈치 보기 ○ 관 눈치 보기 ○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턱없이 부족한 보수 ○ 공정하지 못한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심사(문학관 지원사업의 경우)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특성화가 과제다. 일본의 650여개 문학관 숫자는 일본인들의 자기 문학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다. 문학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우리도 보다 많은 수의 문학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본의 문학관들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만으로도 문학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쿄 근대문학관과 가나가와 근대문학관은 일본 근대문학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차별화된다. 두 문학관은 문학 자료를 자원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문학관'이지만 실제 그 기능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으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그만큼 소장 자료가 방대하고 특화되어 있다. 가마쿠라문학관은 지역과 관련한 문학 자료를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지역문학관의 전형을 보여준다. 특히 문학관에 전시해놓은 가마쿠라문학지도는 지역 문학관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다. ○ 문학관 종사자들의 바람은 관람객에게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여유와 사유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학관’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 한다.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색과 사유의 산물이라는 점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학관들이 대부분 짝 짜진 투어 일정에 맞춰서 볼거리만 보고 스쳐 지나가는 공간인데 반해, 일본의 문학관은 가벼운 운동이나 여유로운 산책의 끝머리에 잠시 앉아서 사색을 즐기는 공간이다.

【추리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483-6
- 개관일 : 1992년
- 소유주/대표 : 김성중/김성중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세계 최초의 추리문학 전용문학관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지하1층에서부터 지상5층까지 연건평 500여평의 시설에 3만5천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
- 연락처 - 전화번호 : (051)742-2346
- 홈페이지 : www.007spyhouse.com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추리문학관은 개인운영형태이며, 1층 카페에서 차값명목으로 5천원을 받는 유료임. 시설면에서나 소장도서 수, 프로그램 등에서 문학관으로서 탁월한 위상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다른 문화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실정임.
 -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 문화강좌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활로를 찾아야할 것임. 부산문학단체, 문학관(요산, 이주홍문학관) 등과 연계하고 해운대구내 문화시설(부산시립미술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들과 결합한 문학프로그램 창출로 문화벨트를 형성할 것을 제안해 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추리창작교실 -현대사진예술의 흐름 -산티아고 가는 길 -일본 사회의 이해: 대중문화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일본 근대문학 -장 주네의 ‘도둑일기’ -일본현대문학과 자살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1월-해맞이축제 2월-달맞이온천 축제, 부산국제연날리기대회 6월-해운대모래축제, 모래작품전 6·7월-문탠로드 걷기행사(달맞이) 7월-해운대 Beach Festival, 바다무용제 8월-부산바다축제, 달맞이언덕철학축제 10월-한일친선해변걷기대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12월-해운대미술작가전</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p>	<p>다른 문학관과 달리 주위의 지원없이 설립자 개인의 자비로 설립된 만큼 그 기반이 취약합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추리문학 전문 도서관인 만큼 행정 당국은 물론 문화주관기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정치·경제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후원조직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결성되어 문학관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지만 존립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p>

【충주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65-3 충주문학관
- 개관일 : 2007년 11월 29일
- 소유주/대표 : 충주시/충주시장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충주시민들의 문학체험과 문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된 문학관이다.
- 연락처 - 전화번호 (043) 850-6611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충주시립도서관의 부속건물 형태로 되어 있으며, 문학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측과 충주시청 간 담당이 분명치 않은 상황임. 도서관측은 도서관 법규에 문학관 운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충주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건물이므로 도서관에서 병행관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므로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운영주최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예산의 문제로 문학관 운영이 힘들며, 전담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힘들. 그러므로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문학관을 활성화하여야 함
- 문학관 2층에 도서관이 있어 학생들의 독서실로 이용하고 있음. 또한 도서관의 특성상 소음이 나는 행사나 많은 관람객들도 유치하기 힘든 상황임. 그러므로 2층 도서관을 문학관에서 운영하거나 창작집필실이나 문학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특화할 필요가 있음
- 문학관협회 가입을 통해 네트워크로 상호 협력관계 유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문학관을 활성화하여야 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문학관 견학 행사 실시 (학생특별활동(CA반) 유치) ○ 도서관문화학교 수강생 문학관 견학 ○ 문인협회 주관 각종 백일장 작품 전시회 수시전시 ○ 문인협회 및 각 문학단체 및 동호회 월례회 행사 실시 ○ 이삭문학회 결성으로 문학관 활성화 도모 및 노력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아공원, 탄금대, 탄금호, 우륵당, 중원고구려비, 중앙탑, 충주호, 월악산등 ○ 삼색온천(수안보온천-백반석, 양성온천-탄산온천, 문강온천-유황온천) ○ 중원문화벨트의 중심지로 지리적 여건이 좋음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운영조직 및 운영인력 전무 ○ 문학관 운영예산의 확보 시급 ○ 향토작가들의 초당적 협력체계 미흡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확보 ⇒ 운영비 국비 지원 ○ 문학관협회 가입 -> 전국문학관협회와 네트워크로 상호 협력관계 유지및 홍보활동 강화 ○ 운영주체의 현실화를 통해 다양한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관내 대학동아리 및 문예창작과(충주대학교) 등과 교류협력 활성화 ○ 지역 문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득권 배제를 통한 상호 협력 활성화

【태백산맥 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357-2

○ 개관일 : 2008년 11월 11일

○ 소유주/대표 : 보성군/보성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태백산맥 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벌교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소설이 가지는 가치와 작품에 투영된 조정래의 치열한 작가정신을 기린다.

○ 연락처 - 전화번호 : (061)858-2992

- 홈페이지 : www.tbsm.boseong.go.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태백산맥문학관은 훌륭한 건축물, 작가의 명성 그리고 소설의 명성 등이 아울러 현지조사시 관람객으로 부족 거리는 문학관이었다.
- 개관을 한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시 이 외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역문학인이 이곳을 이용하여 집필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문학관 방문 후 가장 아쉬운 점은,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문학관 운영이 아닌 문학관의 시설관리를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이었다. 4
- 문학관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본청에도 역시 학예사가 이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인원은 시설관리의 측면이 강하고 학예사 역시 역사분야의 전문가이지 문학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문학관의 활성화의 하나의 측면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문학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야 한다면, 태백산맥문학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문학관이다. 당장은 언론의 보도, 작가의 지명도로 인하여 관람객이 제법 방문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꾸준히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다. 특히 지역민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민을 위한 상설프로그램운영, 지역문학인이나 문학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우선 필요로 하다.
- 이를 위해 태백산맥문학관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뀔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힘들다면 진지하게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기획전시, 창작교실 운영, 문학의 밤 행사 등을 기획 준비 중 (2009년)</p>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태백산맥 문학공원 조성사업이 포함 되어 활용됨. 문학관 인근에 소설에 나왔던 소화의 집, 현부자 집, 문학기행길 조성이 됨</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에로사항</p>	<p>미 답변</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미 답변</p>

【토지문화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570 토지문화관
- 개관일 : 1999년
- 소유주/대표 : 토지문화재단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박경리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문학강연, 창작실 등을 이용한 문학 배움의 장 마련
- 연락처 - 전화번호 : (033)762-1382
- 홈페이지 : www.tojicul.or.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문인 및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현재 창작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강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토지문화관은 현재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어있지 않으며, 전시성격이 배제되어 전시품이 없음. 이러한 유품 전시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
- 토지문화관이 창작공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박경리 선생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인근 <박경리 문학공원>과의 차별화 및 연계필요
-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잇점과 원주에 대학들이 많으므로 문학교육적 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인 창작실 운영 지원사업(한달 약 15명 정도) ○ 문화예술인 창작실 운영 지원사업(1개월, 4개월로 정해지며 식사제공) ○ 해외작가 교류 지원사업(해외동포 및 초청 예술인, 외국인들 창작 공간으로 거주(약 1개월 정도)) ○ 문학강연(년 8회, 전국에서 온 시민, 청소년 등 대상)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백운산 자연 휴양림 ○ 천은사 계곡 ○ 농악전수관(준비 중) ○ 박경리 문학 공원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실 지원 및 운영에 따른 재정 부족 ○ 문화관 주변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 지역시민들을 위한 신설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재원 부족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 지원 확대 ○ 지원 프로그램 및 재원 다변화 ○ 각 문학관들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 문학관 및 예술단체 종사자의 교육기회 제공 및 증대

【평사리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97번지
- 개관일 : 2004년
- 소유주/대표 : 하동군/ 하동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박경리(1926~2008)의 대하소설 [토지]의 주무대인 소설 속 ‘최참판댁’을 복원하여 관광단지화 하고 단지내 상단부에 문학관을 만들고 지리산일대의 작가와 작품들을 전시함
- 연락처 - 전화번호 : (055)880-2362
- 홈페이지 : 없음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예약된 방문객에게 해설해주고 있음. 현재의 관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옥과 문학관을 관장하고 청소년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학생, 단체 등 예약된 곳에 소설 토지, 한옥의 구조 등에 대해 해설하고 있음.
- 학교단체방문희망지 1호로 꼽히는 곳인지라 이곳 문학관에는 문학동아리를 비롯하여 단체관람객이 많은 곳임. 문학관은 박경리 선생이 살아있던 당시에 조성되어 박경리선생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함.
- 평사리문학관은 관광단지 ‘최참판댁’내 부속시설처럼 구성되어 있고, 문학관 표지판도 찾을 수 없음. 방문객들은 문학관을 찾아가기보다는 [토지]라는 소설속 문학공간을 다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장소라 할 수 있음.
- 예약된 단체등이 아니면 문학관의 존재를 느낄 수 없을 것임. 관광단지로서 ‘최참판댁’ 시설이 핵심은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문학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위상을 높여나갔으면 함.
- 평사리문학관은 <하동군 최참판댁관리 및 운영조례>(제정 2003.12.16 조례제1669호, 개정2008.12.18 조례제1848호)에 포함됨.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p>전시: 지리산 일대 작가 및 작품 전시</p> <p>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문학제 개최 - 전국 청소년 한옥체험 및 문학교실 운영-옛 생활에 스며있는 문학 옛보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 관내 청소년 한옥체험 및 문학교실 - 2007년 토지문학제 때 지리산 섬진강 문학연대 발족 - 최참판댁(문학속 공간 + 한옥구조) 해설(연평균 50만명) - 300-400명 대단위 학생답사시 야외무대에서 설명(야외무대 최근 조성됨)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p>쌍계사, 칠불사, 화개장터(소설‘역마’의 무대), 청학동,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노량 앞바다</p> <p>‘최참판댁’이라 불리는 관광단지내에는 최참판댁(문학속 공간 한옥건축물), 평사리문학관, 드라마촬영장, 전통한옥체험관, 전통문화전시체험관 등을 포함함.</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ऐ로사항</p>	<p>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 청소년 프로그램 역시 그 재원확보의 문제로 인하여 신청하는 학생 모두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수많은 자연발생 관광객 및 체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소설 낭송, 시낭송, 평사리 옛 사진전, 소설‘토지’세미나, 작고문인작품 낭송회 및 유품 전시회, 생태작가 초청 문학대담,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 세미나 등)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재원조달의 문제로 인하여 포기 혹은 축소하는 형태임</p>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p>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신청하는 대상 모두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크다. 이를 문화예술위원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우수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기대됨</p>

【한국가사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319
- 개관일 : 2000년 11월 11일
- 소유주/대표 : 담양군/담양군수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한국가사문학관은 가사문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현대적 계승,발전을 위해 2000년도 개관하였다. 가사문학관은 가사문학 자료를 비롯하여 송순의 면앙집과 정철의 송강집 및 친필 유묵 등을 전시하고 있다.
- 연락처 - 전화번호 : (061)380-3240
- 홈페이지 : www.damyang.go.kr/new/gasa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에 위치한 가사문학관은 인근의 소쇄원을 비롯하여 담양관광의 중심에 위치한다.
 -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여 그동안 낫설었던 가사문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 군 차원에서도 이곳을 중요한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여겨 실제로 다른 지역의 문학관에 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분해 주고 있다.
 - 하지만 문학관의 규모에 비하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일정정도 한계가 있기에 앞으로 국가차원의 운영예산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전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앙 송순, 송강 정철 등 관련 작품 및 유물 전시 ○ 2전시실 - 전국의 가사 및 규방가사 ○ 3전시실 - 소쇄처사 양산보, 석천 임억령, 하서 김인후, 서하당 김성원, 제봉 고경명 등의 관련 작품 및 유물 전시 ○ 장서실 : 송강 정철의 송강집 목판 및 기암 정홍명의 기암집 목판 등 전시 ○ 전국가사문학학술대회 개최(제9회) - 매년 11월 ○ 전국 가사·시조창작공모(9회) - 매년 6월~9월 ○ 전국 가사·시조낭송대회(4회) - 매년 10월 ○ 가사문학길 열린음악회 (4회) - 매년 6월
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가로수, 관방제림, 금성산성, 추월산, 대나무 박물관 등 ○ 소쇄원 및 정자(면앙정, 송강정, 식영정, 환벽당, 명옥헌원림 등), 무등산, 화순온천 등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상 관리운영 지남 ○ 문학관 규모별 중앙정부 운영 지원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 서비스 제공 ○ 문학관별 웹진 시스템 지원으로 지역 문학관 활성화 ○ 우수기업과 협력 및 제휴로 자생력 강화 ○ 전국 및 지역별 국어과 교사 모임 활성화 - 교육기관 참여 유도 ○ 문학관별 공모전 및 낭송대회 개최 ※ 전국 가사·시조창작공모(9회) 및 낭송대회(4회) 실시 -(한국가사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한국현대문학관
- 개관일 : 1996년 12월 24일
- 소유주/대표 : 전숙희/전숙희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한글창제에 담겨 있는 애민정신과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 오면서도 치열하게 모국어를 지키고 가꾸어 온 문학인들의 노력의 실체인 문학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는데 앞장선다
- 연락처 - 전화번호 (02) 2277-4587
- 홈페이지 : www.kmlm.or.kr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주) 파라다이스 건물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주)파라다이스의 비영리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학관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입장료 수입전액을 기부하고 있음
- 영상자료 제작, 오래된 작가들 위주로 시대순으로 전자책을 제작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있음
- 문학관의 위치가 충무로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므로, 학생들 및 일반인들의 현대문학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다양한 학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현대문학들이 전시되어 있으나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희귀본들의 열람을 위해 DB작업 필요
- 타 문학관들과 연계해 기획전시 등을 기획하여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것도 한국현대문학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p>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 ○ 영상자료 제작-시인 최남선·김소월 편, 소설가 이광수·현진건 편 ○ 청소년 문학행사 ○ 한국 시의 밤 행사
<p>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산 소월시비 ○ 문학의 집·서울 ○ 남산 한옥마을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대우 측면-전문 학예사 제도 필요 ○ 인력부족(인턴 등 배정 받기 힘들) ○ 비영리 법인이라 수익활동하기 힘들 ○ 문화예술위원회, 문화관광부 지원축소에 따른 문학관협회 사업 축소 및 문학관 사업 축소에 따른 다양한 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축소
<p>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위상과 경력이 인정되어야 함(문학 큐레이터 등 명칭 필요) ○ 지역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필요 ○ 문학관 자체홍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관련 홍보에 포함되어야 함(지하철 관련 안내 등에 표시필요) ○ 미술관, 박물관 등과 동급대우 필요 ○ 문화 정책에 흡수되어 정책이 안정화되어야 함 ○ 문학관 관련 중장기 정책 필요 ○ 인건비에 대한 안정화(학예사 제도) 법제화 필요 ○ 문학관 투어프로그램 등 여행사와 연계하여 정기적 필요(가족단 위, 소외계층에게 추천)

[한무숙문학관]	연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

■ 시설 개요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3-100 한무숙문학관
- 개관일 : 1993년
- 소유주/대표 : 김호기/재단법인 한무숙재단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소설가 한무숙 선생의 40년간 작품 활동 보존
- 연락처 - 전화번호 (02) 762-3093
- 홈페이지 : hahnmoosook.com
- 연구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일반대중을 위한 행사자체가 힘들, 따라서 인근에 위치한 문학의 집, 서울 등과 연계하여 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필요
 - 대학로 근처에 위치해 있으므로 홍보 등을 통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학술교육 프로그램 필요
 - 사립문학관으로서 100% 개인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 등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익사업 또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문학관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전통한옥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한옥해설 및 문학관해설 등을 겸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필요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5월 ‘한무숙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문인 편지 사진전을 열 계획 ○ 현재는 상설전시만 진행 중
문학관 인근 문화관광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가옥 ○ 짚풀생활사박물관 ○ 최순우 옛집, 심우장 ○ 이태준 고택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예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인 어려움: 사립문학관으로 100%가 개인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학관 활성화 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에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학관 보수공사, 직원 임금, 현재 가동 중인 CCTV, 수장고 온습도 조절시설의 유지비 등으로 많은 돈이 지출됨 ○ 표지판 설치의 어려움: 대학로와 가까우나 명륜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한무숙문학관의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혜화역 근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몇 차례 시도했으나 엄연한 문학관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록이 되어야 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상황임. 등록 절차나 심사가 까다로워 진행 중에 있음 ○ 문학관 간 연계의 어려움: 전국문학관 간의 연계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학관 운영에 관한 정보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학예사 교육 및 연수 기회의 부족: 현재 한국문학관협회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무자 연수 교육은 1년에 한 번 1박 2일 코스로 이루어지고 있음. 규모나 내용면에서도 부족하고, 이는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임 명맥을 이어가던 문학관 기행도 이번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힘들게 되었음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인 지원의 확충: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 이미 알려진 대로 사립박물관 뿐 아니라 사립문학관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화 예술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함 ○ 대학로와 연계한 문학관의 홍보: 대학로와 연계하여 문학관을 홍보하고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문학관 간 연계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교육·연수 기회의 확대: 실무자 교육·연수 기회를 1년에 두 번 이상으로 늘리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문학관 운영을 위한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 연구

발 행 인 유 인 촌

연구 기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09년 4월 20일

발 행 일 2009년 4월 25일

인 쇄 인 크리홍보(주)

ISBN :